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8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1월 18일(음력 10월 2일) 수요일(주간)

사람 불암산 명예산주 탤런트 최불암

'불암' 큰뜻 몰라 용서를


불암산 명예산주로 위촉된 탤런트 최불암.

불암산 명예산주 시비 제막
산내에 유명 기도처 많아

큰 바위로 이뤄진 산봉우리가 마치 모자를 쓴 부처님 형상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불암산(佛岩山)에 명예산주(山主)로 불자 탤런트 최불암씨가 위촉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11월 12일 불암산 제6등산로인 양지초소사거리에서 '불암산 명예산주 시비 제막식'을 개최하고 최불암씨에게 불암산 명예산주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노근 노원 구청장은 이날 제막식을 통해 "방송인 최불암씨의 '불암(佛岩)'과 불암산의 '불암(佛岩)'의 이름과 한자가 모두 같은 것이 인연이 돼 최불암씨를 불암산 명예산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명예산주 선정 소감에 앞서 "나의 원래 이름은 영한이었다"며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불암'이라고 불러주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잠시 옛날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공교롭게 불암산의 의미가 이렇게 큰 뜻을 가진 것도 모르고 불암산의 이름과 같은 '불암'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심경은 '불암산 명예산주 시비'에 적혀진 그의 자작시에도 담겨있으며, 최씨는 이날 행사에서 시를 직접 낭송했다.

불암산은 조선 초 세조가 불암산 일대를 지나가다 수려한 모습에 반해 '하늘이 내린 보배로운 산'이라는 별칭을 지어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또한 불암산의 정기(精氣)가 남달라서인지 유명한 기도처가 많으며, 불암사 석천암 옥천암 학도암 등 고찰들이 자리잡고 있어 불교와의 인연도 남다르다.

"불암산의 정기가 깃든 화강암을 예전에 친구한테서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제가 이렇게 명예산주가 될 인연이었다면 더욱 신경 써서 보관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평소 "낙이불류 애이불비(樂而不流 哀而不悲:즐거워도 흥청거리지 않고 슬퍼도 비통해 하지 않는다)를 삶의 원칙으로 삼아 중용과 도를 지키며 살고자 한다"는 최불암씨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국립극단 단원을 거쳐 KBS 공채탤런트로 브라운관에 발을 들였다. 불교영화의 대표작중 하나인 1974년 김기영 감독의 작품 '파계'에서는 서산사의 조실 법연 스님을 열연했다. MBC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반장과 '전원일기'의 김회장 역을 맡아 서민적인 이미지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최불암씨는 현재 SBS 드라마 '그대, 웃어요'에 출연중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약사여래 화신 한뜻으로 모여

12월 4일 반갑다연우야 등 불교계 의료봉사활동단체연합회 발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불자들이 자비행을 펼치며 자타불이의 공생(共生)을 실천하고 있다. 아픈 이의 질병을 치료해 온 약사여래의 화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큰 보살행을 꿈꾸기 시작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는 12월 4일 7시 KBS홀에서 1만 명 무료의료봉사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고 불교계 의료봉사활동단체연합회(지도법사 명진, 이하 연합회) 발족을 공포한다.

연합회에는 반갑다연우야, 마하의료회(회장 손경수),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한국불교선재마을의료회(회장 이강훈) 등 대표의료봉사단체들이 결집했다. 연합회는 화성지역 새터민 의료봉사 등 의료 사각지대 봉사를 시작으로 불자 운영의료기관들의 연대를 통한 취약계층 불교계 의료서비스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미 이웃종교에는 오래 전부터 의료봉사단체연합회가 있어왔다.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회장 박재형)는 70여 회원 단체가 연간 1만5000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들은 치료비 지원, 장학사업, 문서의료선교지 발행 외에 의료봉사자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의료봉사자를 통한 선교 전략 등을 펼쳐왔다.

가톨릭계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회장 이동익 신부)가 활동 중이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는 가톨릭병원협회(35곳)를 주축으로 가톨릭의사협회(1200명), 간호사협회(2569명), 약사회(6000명) 등 전국의 가톨릭의료기관 및 의료인 직장직능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또한 성서 교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직업병 환자, 정신질환자 등 선교 성격의 의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계에는 그동안 개별 봉사단체가 산발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에 발족된 연합회 소속 단체들 외에도 동국대 · 경희대 등 각 병원불교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꿈을이루는사람들마하붓다센터(대표 진오), 새생명광명회(회장 김기원),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이수완) 등이 있다.

의료봉사활동은 관음보살의 자비행과 보현보살의 보현행을 약사여래의 서원으로 회향시키는 거룩한 수행방편이다. 이번 연합회 발족으로 불교계 의료봉사활동이 개인 수행의 방편이자 대사회적 자비실현 활동으로 펼쳐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든든한 기반을 얼마나 많은 불자 의료인들이 딛고 올라 '대의왕'이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지는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달렸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캐나다서 영산재 시연 영산재 공연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일운)가 캐나다의 현충일(Remembrance day)인 11월 11일 캐나다 토론토 소재 캐나다한국참전용사묘역에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500여 명의 전사자 영령들을 추모했다. 사진은 일운 스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반야심경>과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캐나다 토론토=박재완 기자

27일 한국불교 세계화 세미나

한국불교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불교와의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와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지원)는 11월 2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4개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티베트의 불교 현황과 특징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사회부 양정술 국제팀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아시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금주의 Hot


명진 스님 14선지식


월주 스님 08불자들


고우 스님 23설법전

社告

백양사 야단법석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21		고우 스님	시몽 스님
11/22	각묵 스님	용타 스님	용타 스님
11/23	도법 스님	월암 스님	월암 스님
11/24	시몽 스님	향봉 스님	향봉 스님
11/25	도법 스님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집 결 : 2009년 11월 21일 낮 12시
입 재 : 2009년 11월 21일 오후 2시
회 향 : 11월 25일 오전 11시
대 상 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동 참 비 : 출가자-10만원, 재가자 20만원
접수계좌 : 농협 645117-51-01709(예금주:백양사)
접 수 처 : 백양사 종무소 (061)392-7502

주최 : 고불총림 백양사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동절기이므로 개인침구 반드시 지참하세요

법구경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아야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향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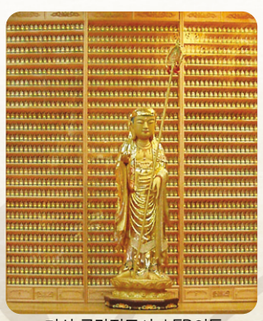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hdbp@hanmail.net

비구니 군승 파송 준비해야

미국 폭스(Fox)뉴스가 10월 30일 보도한 미군 최초의 불교 군종장교 파송에 관한 뉴스가 불교계에 이목을 끌고 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다이어(Thomas Dyer, 43) 대위는 미군 최초 불교 군종장교로 12월 이라크로 파송될 예정이다. 기사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 내 불교도의 숫자가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군 내 불교도는 0.3%밖에 되지 않는다. 다이어 대위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침례교 목사였지만 불교로 개종한 다종교적 바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어 대위의 파송은 반 기독교 정서가 강한 파송지 등의 이유를 떠나 미국과 미군 내에 날로 증가하는 불교, 무슬림 등 소수 종교인들의 정서 등 일종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 최초의 불교 군종장교 탄생의 예에서 보듯, 군 내부의 인적 변화는 새로운 군종정책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국군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교 있다. 바로 직업 군인을 선택하는 여성의 증가가 그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목을 파송한 11개 개신교계 각 교단에 여성 군종장교 파견을 요청한 결과를 정리했다. 군내의 효과적 목회를 위해 여성 군종장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였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신교계 11개 교단 중 여섯곳이 찬성, 다섯곳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과는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과 그렇지 않은 교단으로 확연히 구분됐다.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은 모두 군목 파견에 적극적인 의견을 보냈다. 이에 각 교단의 이해와 남성 군목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국방부는 여성 군목 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는 조계종 군종교구가 전국비구니회 등과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송을 협의 중에 있다. 비구니 스님의 파송은 군승 독신조항으로 인한 장기복무자 감소와 군승 수급 확보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미군의 불교군종장교 탄생에서 나타나듯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군종장교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맞춰 다종교 교육을 실시하고, 이웃종교간 협약을 통한 종립학교 위탁교육 등 군승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송은 풍부한 군승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첩경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군포교 진출은 바로 오늘의 과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조계종 집행부 인선 완료

총무부장 영담 · 기획실장 원담 스님 등 임명

제33대 조계종 집행부 인선이 완료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1일 총무원 총무부장에 영담 스님, 기획실장에 원담 스님, 재무부장에 상운 스님, 문화부장에 효탄 스님, 사회부장에 혜경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제33대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은 빠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해 종단 중흥에 노력하자"며 "특히 총무부와 기획실은 10 · 27법난 명예회복 등 종단 안팎의 현안들이 산재한 만큼 바삐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도 11일 교육원 부소장 인사를 단행해 교육원 교육부장에 법인 스님, 불학연구소장에 원철 스님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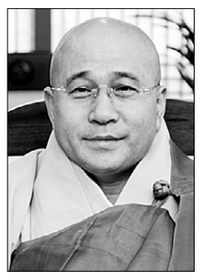
현응 스님은 "어제 국장급 인사에 이어 교육원 교역직 인사가 완료됐다"며 "승가교육 진단 평가와 개혁을 위해 위법망구의 자세로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10일 총무원 및 교육원 국장단 인사도 단행됐다.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 스님, 기획국장 만당 스님, 재정국장 각운 스님, 문화국장 묘청 스님, 사회국장 묘장 스님, 상임감찰 명본 · 행관 스님, 호법과장 법상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 재안 스님이 각각 임명됐으며 교육원 교육국장 재경 스님, 연수국장 광전 스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보문 스님이 임명됐다. 앞선 11월 4일에는 총무원 조사국장 선응 스님, 상임감찰 덕림 스님이 임명됐다.

다음은 각 부 · 실장 스님 이력.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1968년 고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고산 스님, 본사는 쌍계사다. 불교신문 사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현재 복지법인 룸비니 이사장, 불교방송 이사장, 동국대 이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부천 석왕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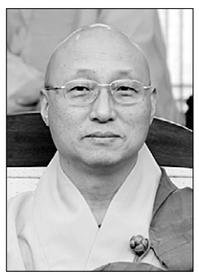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1977년 이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무상 스님, 본사는 법주사다. 서울 옥천암과 조계사 주지, 청주 불교방송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수국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등을 맡고 있다.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재무부장 상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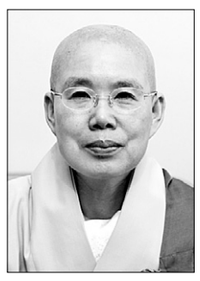
재무부장 상운 스님은 고암 스님을 계사로 1973년과 1975년에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능가 스님이고, 본사는 범어사다. 제13대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진해 정암사 주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1975년 혜공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도율 스님, 본사는 수덕사다. 스님은 현재 청도 운문사 강사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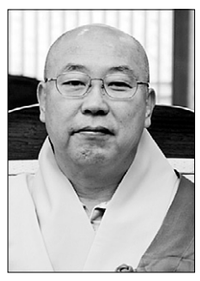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1989년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석주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인호 스님, 본사는 직지사다. 스님은 총무원 재정국장, 총무원 총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강화 전등사 주지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상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7, 1978년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중앙승가대와 실상사 화엄학림을 거쳐 원광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 교무국장, 광주 향림사 주지, 해남 대흥사 부주지, 불교신문사 주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 은해사 승가대학원,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스님은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 총무원 재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부장 효탄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이력 및 기사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승랍 기산' 관련 종법 개정

조계종 종회… BBS경영실패 참회 촉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제182회 정기종회가 교육원장 선출 등 주요인사 및 종법 제 · 개 6건 등 법령정비와 BBS경영실패 참회 촉구, 2010년도 예산 확정 등의 성과를 남기고 폐회했다.

종정감사에 이어 9일 속개된 종회는 '승려법 개정안'이 화두였다. '승랍기산은 사미 · 사미니를 승려로 명시하지 않은 종헌 종법에 위배된다'는 스님들과 '승랍 기산은 94년 이전 · 이후 출가자간의 형평성과 출가연령 고령화 등 현실에 비춰 도입이 필요하다'는 스님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격론 속에 승려법 개정은 종무원법 및 지방종정법 개정으로 가닥이 잡혀 종회의장 직권상정 후 만장일치 개정됐다. 이에 따라 말사 주지 및 본사 국장 임용 자격은 승랍 10년, 연령 30세 미만, 중덕 이상에서 승랍 5년 이상 연령 30세 미만, 견덕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어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소청심사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중앙종회가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181회 임시회 종헌 제48조 개정에 따라 △종무원법 △호계원법 △법규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또 종단 표준 의례 등을 제정하기 위한 의례법 제정안은 표결에 붙여 총 43명 정원 중 찬성 34명, 반대 4명으로 제정했다. △승가고시법 개정안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 등 5개 안건은 폐기됐으며,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등 7개 안건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이번 종회에서는 이밖에 종무원법 개정 외 2010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10억 3743만원이 확정됐으며 '불교방송 사장(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 강화, 추천 · 선임절차의 공개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 채택됐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불교방송과 사장후보 추천기관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역대 사장들의 경영실패에 대해 사부대중에 참회해야 한다"며 "조계종과 불교방송, 진흥원은 불가분의 관계로 불교방송 사장 선임, 경영에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보우국사 탄신기념 다례법회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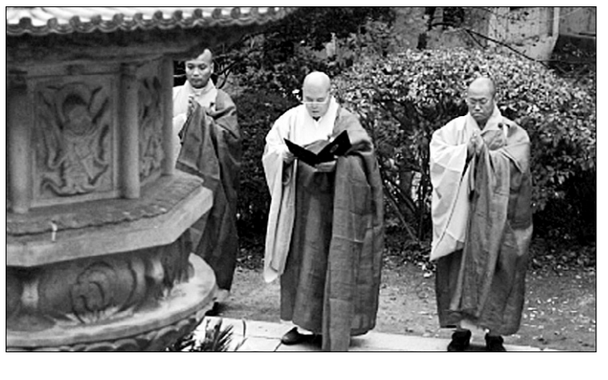
태고종은 11월 7일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내 태고사에서 '제708회 태고종조 보우원증국사 탄신기념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다례법회에는 총무원장 인공 스님, 원로의원 원법 스님, 총무원 부원장 청봉 · 법현 스님, 법륜승가대학장 보경 스님 등 종단 원로 중진스님들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이날 다례를 시작으로 종단 내 불화를 일소하고 종조의 원융종풍을 이 땅에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법회는 태고보우 국사의 원융사상을 통해 서로 화합하는 종단을 조성하고, 태고보우국사의 본지를 밝혀 불조의 혜명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회향됐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자승 스님 "정화정신으로 종단중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화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중흥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11월 10일 서울 도선사 청담 스님 부도와 서울 적조사 경산 스님 부도를 연이어 참배하고 "정화정신을 계승할 것"고 강조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제33대 총무원장으로서 대종사들께서 정화를 천명하며 이루고자 하신 청정 종단 건립과 부처님 정법 회복, 그리고 민족 전통문화 창달에 모든 정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010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1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5명

2. 지원자격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 /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09.10.26(월) ~ 2009.11.24(화)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서 접수 : 2009.11.16(월) ~ 2009.11.24(화)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09.11.26(목) 13:00(박사과정) 14:00 (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09.11.27(금)
5) 등록 기간 : 2009.11.30(월) ~ 2009.12.4(금)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
2) 시간 : 2009. 11. 26.(목)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과정 : 학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 수계확인서 (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 (가사 수한 사진 3×4㎝)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10.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 / 석사과정 6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전화 : 031)980-7864 (내선 : 7864)
FAX : 031) 980-7863

특전
1)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시 승가고시법 시행령에 의거 3급 고시 응시 자격에 혜택이 있음.
2) 조계종 승려 (구족계수지자 및 익년 4월 구족계수지 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3)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종교도 법·상식으로 관계 정립”

종자연 9일 교회언론회에 공개토론 제안

개신교가 종교편향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개재한 것과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교회언론회)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11월 4일 일간지 신문광고에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고는 ‘십자가 트리를 금지할시 초파일 연등도 금지해야 한다’ ‘청와대 내 불상을 철거 하라’고 말하는 등 개신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종자연은 11월 9일 성명서를 통해 “교회언론의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상황을 보는 최소한의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종자연은 “개신교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많은 종교사립학교에서 여전히 전교생 강제예배 등 종교강요와 인권침해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종교단체의 선교자유만을 옹호하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종자연은 “종교가 시민사회 영역인 만큼 한국종교도 법과 상식의 시민적 잣대로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립해야한다”며 교회언론회가 종교단체,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에 나오기를 촉구했다.

박선주 기자

“사랑 양념 듬뿍 김장 담아요”

먹거리협·SK텔레콤 13일 조계사서



왼쪽부터 김현배 목사, SKT 정만원 대표이사,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재열 신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성공회 푸드뱅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현배 목사 등 3대 교단대표와 협의회 공동대표인 김재열 신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배태진 목사, 이경림 상임이사가 300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장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146톤의 김장김치를 담아 소외이웃과 결식계층 급식시설에 지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성공회 푸드뱅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민간푸드뱅크 조직인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SK텔레콤의 자원봉사자들이 11월 13일 조계사에서 ‘행복나눔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김근상 주교, 한국기독교

이나은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T&SOLAR 태양광 전지판 기증

부경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北 우리민족햇빛발전소에 전달



13일 전지판 기증식을 가진 T&SOLAR 김용균 대표이사, 정여 스님, 부경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영 상임공동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부산 · 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정여 · 이영)이 북한 평양에 건립을 추진 중인 우리민족햇빛발전소에 사용될 태양광 전지판을 기증한다.

11월 13일 오후 3시 범어사 주지실에서 (주)T&SOLAR(대표이사 김용균)가 100㎾ 태양광 전지판을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북녘에 전달하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기증하는 태양광 전지판은 100㎾ 규모로, 북한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하루 평균 사용량 500W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동시에 200여 가구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4인 1가구에서 3㎾ 정도의 전력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약 1/6 적은 수준이다. 이날 전달된 태양광 전지판은 단가로 환산하면 현금 3억, 공사 단가 기준으로는 약 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전지판 기증식은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올 초부터 북한 평양 낭랑구역에 500㎾급 태양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오던 중, (주)T&SOLAR가 흔쾌히 기증하기로 해 열리게 됐다.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우리 단체는 대북지원모임으로 그간 북측의 크고 작은 민간차원의 교류를 이어오던 중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안타까웠다”며 “핵이 아닌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 북녘에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심하던 중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흔쾌히 태양광 전지판을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T&SOLAR 김용균 대표이사는 “북측이 어렵다는 것은 온 지구가 다 아는 일인데, 원자력이 아닌 무한한 자원인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해 나눔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 같아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영 상임공동대표, 구자상 · 주병호 공동대표, T&SOLAR 김용균 대표이사 및 박춘희 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친일 · 항일행적 객관화 필요”

‘친일인명사전’ 불교계 인사 54명 수록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공개된 <친일인명사전>이 한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가 11월 8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총 4389명친일인사 중 불교계 인사 54명도 포함됐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인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종욱 스님이다. 스님은 월정사에 있을 당시인 1919년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 3 · 1 운동의 성과로 한성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강원도 대표로 참가했으며,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도 강원도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1920년대 상해에서 국내로 돌아와 조선총독부가 임명하는 월정사 주지가 됐으며 종회(宗會) 의장으로도 선출됐다.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 이후에는 기원법회나 시국강연회를 열어 일제를 적극 지지했으며 <신불교> 등의 잡지에 친일 논설을 쓰기도 했다.

한국불교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지암(이종욱) 스님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후손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불교계는 후손이 없어 나서는 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불교계가 친일과 항일 모두에 관심이 없는 것을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학문적으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계 일부에서는 스님의 이름이 친일인사로 등재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편찬위원들은 친일행적 자료가 에 근거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불교계 인사 중에는 지암 스님과 같이 애국자로 인정 현충원에 안장된 박영희 스님, 차상명 스님, 허영호 스님 등도 포함됐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윤경로 위원장은 “역사는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일인명사전 편찬도 그 중 한가지다”며 “국가가 외면한 미해결 과제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 역사정의 실현의 단서를 열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한국 근현대사 금기의 영역이 최초로 공개됨으로써 퇴행적 역사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지리산을 살려주세요” SOS

지리산불교연대준비위 등 천왕봉서 퍼포먼스



지리산불교연대준비위원회 천왕봉에서 ‘SOS지리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리산환경연대 제공.

지리산불교연대준비위원회(공동대표 법인)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박두규) 관계자들이 11월 1일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SOS지리산’ 퍼포먼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지리산불교연대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리산에 철탑을 꽂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SOS 지리산’이라는 글씨가 쓰인 대형 풍선을 띄우고, 반야봉에서 산상시위를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봉화를 피웠다.

한편, 연대의 일부 회원들은 10월 12일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자연공원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리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지에서 무기한 산상시위에 돌입했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리산생명연대, 남원생협, 섬진강과 지리산사람들, 함양시민연대 등 지리산 주변 5개 시 · 군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에는 화엄사, 하동 쌍계사, 함양 벽송사, 산청 대원사, 남원 실상사 등 지리산에 위치한 5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박병선 ‘직지’ 대모

조계종 부실장단 위문



조계종 총무원 부 · 실장단은 임명 직후 첫 휴일인 11월 14일 암투병 중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대모 서지학자 박병선(82 · 사진) 박사를 위문하고 격려금 등을 전달했다.

1928년 서울에서 출생해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박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며 ‘직지’를 발견 한 뒤 1972년 파리 세계동양학 대회에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기까지 산파 역할을 해냈다.

박 박사는 지난 9월 초 청주직지축제 참가 차 입국, 건강검진에서 직장암 4기를 진단받고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4대강’ 사업 위헌 소송 나서

4대강사업저지국민소송단 운하백지화 소송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11월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불교환경 · 시민단체들이 사업중단을 위한 위헌소송에 나섰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를 비롯한 4대강사업저지국민소송단(이하 4대강범대위)은 운하백지화를 위한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

국민소송청구인단은 11월 11일 4대강 사업 반대 공동소송대리인단을 발표했다. 국민소송청구인단은 총 4584명으로 변호인단(단장 임통일) 28명이 구성됐다. 국민소송단은 11월 24일 국민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4대강저지범대위는 “4대강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됐고, 국가재정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 90%를 면제받았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는 이번 사업이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4대강범대위 등 전국의 환경관련 시민 · 사회단체는 ‘대규모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우식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12일 남원 실상사에서 수경 스님 등 한국환경회의 회원들과 위헌법률 소송 준비와 전체적인 운하백지화에 대한 논의를 했고, 17일 첫 착공식을 하는 여주 낙동강에서 현장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불교환경연대와 광명YMCA는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하는 ‘광명둘레길 순례’를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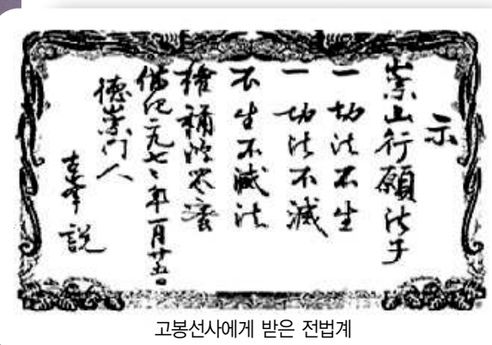
박선주 기자



봉 행

숭산 행원 대종사 5주기 추모다례 및 사리탑 제막식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으로 일생을 국제포교에 헌신하시며 한국불교의 가치를 세계 속에 드높이신 **숭산 행원대종사의 열반 5주기**를 맞이하여 추모다례 및 사리탑 제막식을 봉행코자 하오니 교계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무루 동참을 바라옵니다.



고봉선사에게 받은 전법계

◇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1시
◇장 소 : 화계사 대적광전
◇주 최 : 숭산 행원 대종사 문도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Hwagyesa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02) 902-2663
국제선원 02)900-4326 / 계룡산무상사 042)841-6084

"한국 33관음성지 순례했어요"

日 관광객 10人 첫 회향… OECD관광위, 템플스테이 문화관광 성공사례 소개

템플스테이가 순풍에 돛을 달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있다.

최근 OECD관광위원회가 발간한 <Impact of culture on tourism, (2009.1)>에 템플스테이가 문화관광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된데 이어 '한국 33관음성지 순례'를 모두 순례한 첫 일본인 10명이 탄생했다.

<Impact of culture on tourism>는 한국의 템플스테이를 잠재성과 경쟁력이 높은 특화된 국제화 관광 사업으로 소개했다. 특히 템플스테이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혁신적 관계를 꼽았다. 관-민 협력은 공적 자금 · 기술 · 인력 도입, 관광목적지로서 사찰 전통문화 흡인력 증대,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민-관 신뢰 회복 등으로 상호 이익을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템플스테이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한편 11월 11일에는 한국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첫 관광객들이 탄생했다. 지난 봄, 여름에 이어 한국을 3번째 방문한 순례단은 서울 도선사(주지 혜자)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순례단은 마애불입상에서 반야심경 독송, '첫 순례완성자를 위한 기념식'을 봉행했다.

'한국33관음성지순례'는 2008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기획한 사업으로 관-민 협력 대표 상품이다. 사업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문화 전파, 외국관광객 순례활성화, 양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 일본 순례객들이 11월 11일 서울 도선사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혜자 스님,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 김봉기 본부장과 순례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혜자 스님은 "일본의 관음성지를 다 돌고 한국 관음성지를 순례한 참가자들의 신심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는 도선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108사찰 순례에도 도전해보라"고 권유하고 33관음사찰의 관세음보살상의 명호가 적힌 33개의 염주알과 108사찰 순례관련 자료 등을 선물했다.

이어 주경 스님은 종훈 스님을 대신해 "33관음성지사찰순례 사업 시행 1년 동안 참가한 1만 5000여 명 가운데 최초 순례 완성자가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다. 관세음보살의 원력과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김봉기 본부장은 "본 사업은 한 · 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형태로도 의미가 크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알찬 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회향식에 앞서 마지막 순례지에 도착한 순례단은 대학 수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 학부모들의 기도하는 모습, 수천 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진풍경을 관심있게 바라보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순례에 동참한 가께오지 미찌오 씨는 "33곳을 순례하면서 익힌 한국 반야심경이 이제 익숙하다. 3차례의 방한과 33곳을 순례하며 감동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미찌오 씨는 "한국 관음성지 33곳을 방한한 이유는 원래 '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순례를 회향하고 보니 한국을 좀 더 가까이 보고 이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소감했다. 미찌오 씨는 "33관음사찰 순례자는 고령자가 많다. 혜자 스님이 말씀한 108사찰 순례를 하려고 생각하니 내 다리로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수행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령자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다"며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고야마 유키코(64)씨는 "일본 관음성지를 다 돌고 나니 일본에 전래된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는 백양사를 꼽았다. 그녀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속에 위치한 백양사에서 한국 전통 선수행을 이끌어오신 스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훌륭한 체험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전통사찰음식 정체성 확립 시급"

불교여성개발원 주최 사찰음식 세미나서 선재 스님 주장

수입 식자재, 외국인 공양주의 정체불명 사찰음식 등으로 전통사찰 음식의 정체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가자들이 세미나와 함께 열린 전통사찰음식 전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11월 9일 불교여성개발원(이사장 이은영)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사찰음식과 채식의 대중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은 "국산 식재료 구입의 어려움과 외국인 공양주들이 만드는 국적불명의 사찰음식,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요구와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대응책으로 △사찰의 소임자 및 공양주 교육을 위한 사찰음식 교육기관 설립 △발우공양의 활성화를 통한 사찰음식의 가치관 보급과 절용을 강조하는 사찰음식의 정신 확산 △사찰음식의 검수 및 인증제 도입 △사찰음식 전문점 개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재 스님은 주제발표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에서 "사찰음식은 포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지혜식, 건강식, 수행식의 관점에서 대중화시켜야 한다"며 "빠르고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문화가 현대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채식요리가 육식요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담, 조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채식요리에 시간을 할애할 때"라고 강조했다.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은 주제발표 '전통음식문화로서의 사찰음식'에서 "사찰음식은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로서 온 인류와 세계에 자랑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며 "한식의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님은 세계 언론에 비쳐진 한식을 분석하고 "일반 한식은 향신료, 소금, 조미료 등으로 병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인 사찰음식으로 중간급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며 "스님들은 경율론 삼장에 근거해 전통사찰음식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채식 사업 대중화를 위한 여성부와 불교여성개발원의 공동협력사업인 채식전문조리사의 의미와 전망도 진단됐다.

남혜정 채식조리사파견센터장은 "일자리 제공과 소외계층 대상 채식요리 제공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는 크게 하고 있지만 채식조리사의 위상과 역할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센터장은 "채식조리사 파견요청에 대한 의도와 실행의지를 평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형식 마련, 기존 조리사와의 역할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고 "전문성과 자신감 부여를 위한 홍보기간과 교육기간을 확보하고, 파견기관의 사업취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채식요리사에 대한 수요창출과 함께 사찰음식전문조리사 자격증 제도도입과 사찰의 공양주, 사찰음식전문점 등에 전문 조리사 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언 기자

생명사랑 특강·걷기명상 등 '풍성'

불광사, 22일 '생태문화 한마당' 개최

세대와 종교를 초월해 어린이 · 청소년들이 '생명과 평화'를 노래한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11월 22일 불광사와 석촌호수 일대에서 '제2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태문화 한마당'을 개최한다.

'생태와 평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한마당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초 · 중 · 고등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사찰생태연구소 김재일 소장의 생명사랑 특강, 송파나루공원과 불광사 일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된다. 또 불광자원봉사센터 불광생태지킴이들이 진행하는 '休 +치유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걷기명상, 나무목걸이 만들기, 나무와 하나 되는 나, 주변환경 살펴보기 등을 실시한다. 그밖에도 생태사진 전시회, 아나바다 벼룩시장, 전통차 나누기, 빈그릇 나눔공양 등이 진행된다.

오후 1시 반부터는 불광사 보광당 특설무대에서 생태한마당이 실시된다. 이날 공연에는 기독교 청소년 밴드인 '청개구리'가 불자 청소년들과 함께 '생명과 평화'를 노래한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일반 재가자 동안거 수행=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및 전국 말사는 12월 24일~2010년 1월 23일 일반 재가자 동안거 한 달 수도를 실시한다. (043)423-7100

●좌선집중수행=서울 길상사는 11월 21~22일(초심반), 11월 28~29일(구참반) 주말 수련회를 실시한다. 사찰 생활, 예불, 공양 등 기본 습의를 시작으로 불교상식 공부, 좌선의 및 좌선 집중실수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5만원으로 선착순 40명 접수. (02)3672-5945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독송=서울 도선사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독송기도를 실시한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2)993-3161

●철야참선법회=봉화 축서사는 11월 21~22일 축서사 대웅전에서 철야참선법회를 실시한다. 무여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참선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54)672-7579

"수행 통해 나 바꾸면 운명도 바껴"

길벗, 9일 법륜 스님 초청 즉문즉설 개최



"번뇌와 욕망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놓아버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럼 들고 계세요."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 사진)의 살아있는 법문에 대중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정토회 방송, 영화, 연극, 문화 예술인들의 마음 공부하는 모임 '길벗'은 11월 9일 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서 법륜 스님 초청 즉문즉설이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배우 남일우, 배종옥, 김여진, 김유석씨, 노희경 작가, 표민수 PD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30여개의 질문에는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 '번뇌를 소멸하는 방법' '포식증에 걸린 딸을 치유하는 법'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진정한 자유와 사랑' '운명이란 무엇인가' 등의 문제부터 진로, 취미, 연애사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법륜 스님은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일반인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참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일반인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만 참사랑은 상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해와 인정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삶의 고통이 따를 때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한다. 나를 바꾸는 것은 '수행'에 답이 있다.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전의 사고와 행동, 습관이 만든 운명이다.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나를 바꾸면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세계평화 기원 한마당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공개 · 의륜 서주범 대종사 제19대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취임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취 지 문

인류의 등불이신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은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 하시고 초대 법왕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조계종원로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국가보위입법위원 등 많은 직책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일붕삼장대학원, 일붕신문사 등 많은 불교단체을 설립하였고 우리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원 하기위해서 40여년 전부터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8백여개의 평화통일 기원비를 세웠으며, 세계각국 유명대학교에서 문학, 철학, 종교학박사 등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불교포교를 위하여 1천 40 종류의 저서를 냈으며 국내외적으로 6천7백여명의 제자를 두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불교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2회 연속 올랐으며 제17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세계불교사에 빛나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일붕 존자님의 제자들이 모인 단체는 전국일붕문도중앙회에서 한국불교단체가 동참하는 평화 한마당을 마련하고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서주범 대종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취임식과 아울러 화합 단결로 불교발전을 이룩하고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세계평화기원 한마당 대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대종사 취임을 계기로 일붕 법왕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정신 사상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중흥은 물론 전 세계 불교문화를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 설것을 부처님전에 서원하며 이 뜻을 응집하여 우리의 결의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국불교 전체 종파를 초월하여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회장 **의륜 서주범** 약력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저서 : 알기쉬운 불교 외 40여종 / 전국 순회포교 백일
- 동참안내
  교계 각 종단의 고승대덕 스님들과 각 불교단체 임원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입장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 규 모 : 1천여명 뷔페식 만찬
- 법요식 : 평화기원 메시지 전달 / 회장 취임 인사
- 시 상 : 불교계에 공헌하신 분 (각 종단, 단체 추천에 의한)

*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공개 / 불자 연예인 공연**

- 문 의 : 전국일붕문도중앙회 02)777-0901 / 각 종단 및 사암
  회장 의륜 대종사 011-352-7751 / 기획위원장 김소부 011-356-3427 / 사무총장 서병열 010-6253-4936

* **불교TV와 연합불교방송에서 함께 합니다. (특집 프로그램 제작)**

세계평화 기원 한마당 봉행위원회

대 회 장 **석월호 대종사** [(사)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 전국일붕문도중앙회 고문 / 저서 : 월호 박팔봉 설법집 등 10여종 출간]

마곡사 대중 연기군 위로방문

세종시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충청지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주 마곡사 스님들이 연기군청을 찾아 지역민들과 고민을 나눴다.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 등은 11월 2일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중 쓰러져 입원치료 중인 유한식 연기군수와 연기군민 등을 위로 방문했다.

원혜 스님은 유 군수에게 "산중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고 '국민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걱정이 들었다"며 "연기군민과 충청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지역 스님들과 방문하게 됐다"고 격려했다. **조동섭 기자**

소년원생과 멘토링 자비실천어머니회

자비실천어머니회(회장 해광 · 천안 자비사 주지)는 11월 6일 청주소년원을 찾아 소년원생들과 1:1 멘토링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정 · 교육 환경이 열악한 소년원생과 자원봉사자를 1:1 멘토링 결연을 맺음으로써 청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자비실천어머니회는 천안 자비사,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 신도로 구성된 단체다. **혜철 충청지사장**

삼존불 점안법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11월 9일 극락전(납골봉안)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우학 스님은 "극락전 삼존불은 18년 전 불교대학 초창기부터 모셔온 부처님으로 이번 화마로부터 납골당 조상 영가님들을 구해준 신통력과 영험이 있는 부처님"이라며 "장엄하게 개금불사된 삼존불봉안 점안식에서 신도님들이 큰 환희심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극락전 삼존불은 지난달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훼손된 일부를 보수하면서 개금불사를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고운사 강원 복원 첫 삽

6일 강원 상량식 봉행… 50년 만의 재건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 강원이 50년 만에 복원을 앞두고 11월 6일 강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11월 6일 의성 고운사 운수암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고운강원 상량식 모습.

행사에는 조실 근일 스님, 회주 혜승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호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강원이 소실된 지 50여 년이 흘렀으나 다시 복원해 민족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조선 후기 함흥 선사가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할 때의 가풍을 진작시켜 도제양성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겠다"고 말했다.

신라고찰 고운사는 창건 당시부터 일본 강점기까지 승가교육을 맡아온 교육전문 도량이었다. 1934년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했으나 한국전쟁 당시 전소됐다.

6월부터 복원이 시작된 고운사 강원은 옛 운수암 터에 지상 1층, 연면적 234㎡ 규모로 세워진다. 2010년 5월 완공되며, 강원 복원 후에는 도서관 등 부대시설도 건립이 예정됐다.

호성 스님은 "강원이 복원되면 종단 인가를 받아 강원을 열고 학인들을 모집하겠다. 옛 고운사 강원의 전통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김교각 스님 동상 東大에 건립

경주캠퍼스, 20일 동상 봉안 · 100주년 기념관 준공식 봉행

지장보살의 화현으로 '김지장'이라 불린 김교각 스님의 동상이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세워진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봉안될 김교각 스님 동상(오른쪽)과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위.)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11월 20일 오전 11시 10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100주년 기념관 준공 및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봉안 법요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100주년 기념관 5층 강의실에서 '김교각 지장왕보살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 및 <지장>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학술세미나에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영담 스님이 기조발제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를, 장총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이 '김교각 법사와 중국 지장신앙의 전개'를, 인환 스님(前 동국대 교수)이 '한국 지장신앙의 전개와 그 특질'을, 이케미 초류 교토 불교대학 교수가 '일본 지장신앙의 연원과 그 전개'를 발표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100주년 기념관 준공과 함께 지장왕보살 봉안을 계기로 한 · 중 우호를 강화하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학을 세계적 특성화 원년의 기회로 삼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전북교구 제16대 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9일 도광 스님 취임법회 봉행

태고종 전북교구는 11월 9일 전주 보문사에서 전북교구 제16대 종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행정부원장 청봉 스님, 교무부원장 법현 스님 등을 비롯해 신임 종무원장 도광 스님(전주 승암사 주지)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도광 스님은 취임사에서 "전북종무원은 종무원 개설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해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과 번영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교구"라며 "종도들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조직정비 불사를 추진 서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고, 종헌 종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가운데 투명한 종무행정, 열린 종무행정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무원 터에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영산재 전승관을 내년 말까지 건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문화재정책학회 창립 13일 총회 열려

문화재 정책 환경을 분석해 문화재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학술연구단체가 창립됐다.

한국문화재정책학회(학회장 이삼열 · 前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는 11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창립총회와 제1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서는 '문화재 정책 50년사 재평가와 미래 비전'(엄승용), '우리나라 고도보존법의 현황과 과제'(채미옥), '한국문화재 정책에 있어서 법제와 조직의 과제'(김창규)가 발표됐다.

이삼열 학회장은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의심 없이 감내하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인문학자는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해 문화재 보존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과학자는 최적의 정책 수단을 체계적으로 연구 · 개발해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동종 금강계단수계식 봉행

덕우 스님 "초발심 잊지 말고 정진해 달라"



조동종 총무원은 11월 6일 제12차 금강계단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제12차 금강계단수계식을 11월 6일 서울시 상계동 소재 총무원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수계 받은 20여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승정원장 감찰원장 종회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구족계 수계식 등을 개최했다.

덕우 스님은 "호법불교 묵조선의 조동법맥을 이어나가면서 승려로써 초발심을 잊지 말고 수행과 포교에 정진해 달라"며 "종단의 종도들과의 애종심을 잊지 말고 단결하는 모습으로 종단의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법문했다.

이에 앞선 10월 28~11월 2일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각 교구 원장 등 임원진은 10월 28일~11월 2일 캄보디아 및 태국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조동종 성지순례단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하는 BWC를 방문해 금일봉 등을 전달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지성 스님 회고록

지성 스님(함께하는세상 이사장 · 前 동화사 주지)의 출가 50년의 수행을 담은 회고록 <생의 언덕을 넘어서> 출판기념회가 11월 7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명 스님, 前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지하 스님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중원 불교' 세미나

충주대는 11월 10일 캠퍼스 내에서 '중원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제3회 중원문화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원문화 속에 담긴 불교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학문적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준식 충청대 교수가 기조강연 '중원문화의 성격과 의미'를, 정제규 문화재청 위원이 '중원지역 불교사상의 변천'을, 김인한 충청대 실장이 '중원지역 불교고고학의 현황'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진주불교사암련 日 죠구신사 방문



진주불교사암련은 10월 28~30일 연지사종 반환을 위해 방일했다.

성덕대왕신종, 상원사종과 함께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종이지만 일본에 소장된 연지사종 반환을 위해 진주사암연합회가 나섰다.

진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보운 · 천진선원 주지)는 10월 28~30일 연지사종이 보관된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 죠구신사를 방문했다.

이번 답사를 계기로 진주불교사암연합회는 연지사종 반환 범국민 운동 등 구체적인 반환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지사종은 높이 111cm, 입지름 66cm 크기로 2구의 비천상 등이 새겨져있다. 일본 신국보 제78호로 예술성과 학술적 연구가치를 지녔다. **조동섭 기자**

국태민안과 나라경제 살리기 기원

동양 최대 산신탱화 점안 대법회 및 만등불사


〈크기 : 가로 10m × 세로 10m〉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본 사찰에서 조성한 동양 최대 산신탱화 점안 및 국태민안 기원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재방대덕 큰스님의 법력으로 증명하시어 복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1월 29일 (음 10. 13) 일요일 10시
■ 장 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고탄리 산 102-1
■ 연락처 : 대구 도광사 053-653-8583 / 전송 053-656-1843
고령산신도량 054-956-0320 / 주지스님 010-2015-7233

주최 : 동양최대 산신탱화 점안 봉행위원회 · 주관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고령 도광사 · 후원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이웃 종교 RELIGION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취임

제25대 행정수반 맡아… "일사불란한 교정 운영 다짐"



원불교 제25대 교정원장으로 전산(田山) 김주원(61 · 金主圓 · 사진) 교무가 11월 7일 취임했다.

원불교는 10월 13일 임시로 수위단회(원불교 최고의결기관)를 열고 전산 김주원 교무를 신임 교정원장으로 임명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교정원장은 원불교의 행정수반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주원 신임 교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불교 100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백년성업'과 '교화혁신'의 성공을 위해 교단혁신팀, 교화대불공추진팀, 백년성업추진팀, 교구자치화추진팀 등 4개 팀으로 교정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주원 교정원장은 1948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균타원 신제근 종사의 연원으로 출가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교정원 기획실을 시작으로 종로교당 교무, 교정원 총무부장 · 교화부원장, 경기인천교구장, 중앙중도훈련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교산 이성택 前 교정원장은 교립대학인 원광대학교 소속 원광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나은 기자

"불법낙태시술 거부 의사 지지"

정진석 추기경 '진오비'에 격려사 전해

"불법낙태 시술을 거부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데 이어 불법낙태 시술 반대운동을 지지하는 등 생명존중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교단과 지난 10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 천주교회는 불법낙태 시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산부인과 의사들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11월 1일 '불법낙태 근절 운동 선포식'을 주최한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 진오비)에 격려사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격려사에서 "우리 사회는 태아를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모체의 부속물처럼 여기며, 낙태가 불법이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생명 경시풍조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추기경은 또 "이번 선포식을 통해 생명경시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불합리한 산부인과 의료정책이 개선되고 미혼모와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제주에 바이블 테마랜드 조성

제주 기독교교단협 9일 설명회

에덴공원과 노아의 방주 등 기독교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구현한 바이블 테마랜드가 제주도에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는 11월 9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8년 여동안 구상해온 바이블 테마랜드 건립지역으로 제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블 테마랜드 추진위원회인 '토브플랜(tovplan)'은 "한국교회 120년사의 숙원을 성취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기독교 문화성지를 구축하기 위해 테마랜드 건립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독교 종합연수원으로 세워질 바이블 테마랜드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2만 1000㎡에 1700억원을 투입해 2013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국제적 문화선교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선교센터에는 세계선교박물관, 에덴공원, 컨벤션시설, 성경역사관, 성경풍물관 등이 갖춰진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원형 크기로 복원할 예정인 시설물이다. 이 밖에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테마센터와 건강센터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 "바이블테마랜드는 성 · 소망의 이야기가 빛과 소리, 선, 모형으로 살아 있는 공간에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장애법우 위해 두드리고 두드릴 터

원심회 창립 21주년 첫 문화공연… 두드림 난타공연과 수화극 선보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북채를 들고 타악기 연주에 몸을 맡기고 리듬을 탄다. 흥을 돋우기 위해 박수갈채를 청하며 관객과 교감을 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난타공연 만큼이나 능숙하다.

장애인포교에 진력하는 원심회(회장 김장경)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11월 7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원심회는 난타팀 '두드림'의 난타공연과 원심회 회원들의 수화극을 선보였다.

3월 창단한 '두드림'은 남녀노소, 장애 · 비장애의 구분을 뛰어넘는 법우들로 구성됐다. 팀 구성원으로는 김경환, 신동열 씨 등 청각장애인들과 조계사와 한성포교원 어린이 법회, 소속봉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몸으로 느껴지는 울림만으로 리듬을 배우고 박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악기연주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드림은 창단 당시 봉사자가 먼저 리듬을 배워 장애법우들에게 다시 배운 것을 전달하는 식으로 매주 한 번씩 연습을 해왔다.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문화마당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정식강사를 초빙해 매일 3~4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원심회 창립기념 첫 공연을 장식할 수 있게 된 것.



장애인 포교단체 원심회가 남녀노소, 장애 · 비장애의 구분을 뛰어넘는 합동 난타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의 공연은 2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인(백운초3)군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난타공연이 신나고 좋았다"고 말했다.

난타공연에 앞서 원심회 회원들은 '천타불 만보살'이라는 수화극에 참여해 직접 수화로 연기를 펼쳤다. 관객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영향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는 내용의 대사 · 소리가 없는 수화극을 진지한 태도로 관람을 했다.

원심회 엄재면 부회장은 공연에 앞서 "소리 없는 세상을 살아온 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해 드리고 소리 없이 살아온 그 분들의 세상을 잠시나마 느껴보기 위해 준비했다. 장애법우들의 닫힌 세상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림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심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들의 찬조공연도 진행됐다.

조계사 무용단이 입춤과 소고춤을,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래' 회원들은 시낭송을, 조계사 초등법회 어린이들은 수화로 찬불가를 불렀으며 마임이스트 이태건씨가 초대돼 판토마임 공연을 선보였다.

원심회는 장애 · 비장애인을 분별하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1988년 수화교육을 시작으로 창립됐다. 현재 원심회는 청각장애 불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실천해보도록 하기 위해 불교 기초교리 강좌, 사경 · 참회 · 수계 · 수련 · 야외 법회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원심회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입력활동과 책 · 문서자료를 소리로 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상시모집 중이다. 원심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324-01-099891 (02)720-4528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포미닛 · 비스트와 행복 나눠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아름다운 동행' 캠프



포미닛 · 비스트 멤버와 기념촬영을 하는 승가원 장애아동 시설 어린이.

승가원장애아동시설(관장 동옥) 아동들이 겨울을 맞아 인기 연예인 언니 · 오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승가원은 11월 2~3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숲체원'에서 '농심사랑나눔봉사단', 인기그룹 포미닛, 비스트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캠프를 진행했다.

(주)농심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0여 년간 활동한 '농심사랑나눔봉사단'은 전국의 청소년들과 인기 스타 그룹이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날 승가원 아동들은 신세대 핫 아이콘 포미닛과 비스트,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0여 명과 함께 나뭇잎 티셔츠 만들기,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숲 공원을 오르는 휠체어 등반 시간도 가졌다.

동옥 스님은 "겨울 한파 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장애아동들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숲과 자연의 이치를 배우며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장애아동이 성장하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02)921-6410

이나은 기자

제주·대구도 생명나눔 지부 생겨

12일 이사회서 승인… 2010년 예산 12억 책정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대구와 제주도지역본부를 설립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제26차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11월 12일 개최하고 제주도 지역본부 설립을 승인했다.

생명나눔은 △2009년 주요사업 보고 및 회계보고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제주도 지역본부 설립 승인 등을 주요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본부는 2010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7% 증액된 12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 정각 스님(도솔암 회주), 경륜 스님(석불사 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명락사 주지) 등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본부는 또 종호 스님(제주도 제석사 주지)을 이사로, 현암 스님(경기도 법륜사 주지)을 감사로 충원키로 했다.

제주붓다클럽에서 2004년 창립한 바 있는 제주지역본부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에 의해 발기인 모집 · 대회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제주도지역본부로 재창립 하게 됐다.

제주도지역본부는 제주 약천사에 소재할 예정이며 성원 스님이 본부장을 맡게 되고 12월 23일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생명나눔은 11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구지역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신 입 생 모 집

칭 기 스 칸 대 학 교
chinggis khaan university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 학사과정(4년제) :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석사과정(2년제) : 4학기 ■ 박사과정(3년제) : 6학기

특 전(한국불교재단)
1. 전세계 대학 편. 입학 인정.
2. 대학 등록금 저렴함 (타. 대학의 학비절반)
3. 장학금 제도 및 공부시간 여유 있음.

학교법인 김 해 대 학 교 육 원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한국승가대학 불교문화대학원

■ 전문과정 (1년제) : 종교학(불교문화학과)

■ 불교문화 강좌내
불교학. 수행학. 종교학. 경전학. 철학.
의식학. 법회학. 교리학. 경영학. 생이학.

문의 : 학무처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효봉 스님 결사는 현대판 정혜결사 효시

보조사상연구원 21일 효봉 스님 조명 학술대회 개최… 김방룡 · 김용덕 · 김경집 교수 등 발표

통합종단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1888~1966)은 '절구통 수좌'로 불릴 만큼 수행에도 철저했다. 또, 출가 전 일제 강점기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의 판사로 활동했던 엘리트였다.

한번 앉으면 엉덩이가 짓물러 방바닥에 눌러 붙을 만큼 처절하게 수행해 '절구통 수좌'로 불린 스님은 목우자 지눌 스님의 가풍을 되살리려 했던 선지식이었다.

승보종찰 송광사를 중창한 구산 스님과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고은 시인 등의 스승이기도 한 효봉 스님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제21차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효봉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법산 스님이 '효봉 선사의 삶과 철학'을 기조강연 하는 것을 비롯해 △'효봉 스님의 선사상'(김방룡 충남대 교수) △'효봉선사의 문학세계'(김용덕 한양대 교수) △'효봉의 정혜결사와 시대적 의의'(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가 발표된다.

김방룡 교수는 효봉 스님의 선사상을 간화선과 돈오점수, 정혜쌍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전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효봉 스님은 한평생 조주의 '무(無)자 화두'를 들었던 간화선사로 화두를 타파하고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무자 화두'를 놓치 않았다"며 "깨침 이후에도 지속적인 닦음이 필요한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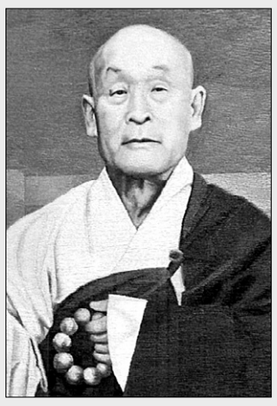
또, "화두를 들 때는 항상 성성착(惺惺着)하라고 강조했고,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해왔다"며 "효봉 스님은 간화선과 돈오점수, 간화선과 정혜쌍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김방룡 교수는 근현대 수많은 선지식 가운데 효봉 스님만큼 지눌 스님의 선풍을 계승해 한국불교를 일신한 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목우자 선풍의 회복을 통해 한국 불교계를 개혁하려는 효봉 스님의 안목과 의지는 괄목할 성장을 이룬 지금의 한국불교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용덕 교수는 효봉 스님 입적 후 발간된 <효봉법어집>을 통해 스님의 문학세계를 진단했다. 법어에 수록된 수십 여 편의 시와 오도송 · 열반송 등 게송, 경어, 서간 등이 효봉 스님의 문학작품 전부다.

김 교수는 "스님이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의식을 갖고 창작하지는


故 효봉 스님.

않았으나 한편 한편이 수미일관하게 완결된 시문학 형식을 갖췄다. 특히 게송으로서 온전히 한시의 격을 잘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덕 교수는 효봉 스님의 선시를 수행정진의 면려, 사사무애의 표상, 실천불교로 나누어 고찰할 예정이다. 참선 수행정진을 쉬지 않았던 스님은 법문 말미에 읊어지는 게송에서 선의 요체에 대해 은유적 상징적으로 시화하거나 부단히 수행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사사무애의 표상은 현상계 만물이 차별 그대로 상입하고 융통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것을 시화했다. 실생활에서 삶의 지표와 수행자세, 인간 관계와 마음 자세 등 일상사를 통해서는 실천불교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스님의 선시를 기호학적 구조론으로 접근한 시선일여(詩禪一如), 육경(六境)과 육근(六根)을 시화하되 심체와 경계가 없는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상태를 시화한 정경(情景)의 시화(詩化), '나는 본래 부처이다'라는 사상을 통한 진여(眞如)의 미학(美學)으로도 분석했다.

김경집 교수는 1935년 시작된 한암 스님과 효봉 스님의 인연에 주목해 한암 스님의 수선사(修禪社)가 효봉 스님의 정혜결사에 미친 영향을 조명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효봉 스님이 1935년 오대산으로 한암 스님을 찾아가 승가오칙에 입각해 철저히 수행했다"며 "만공 · 한암 스님 등과 안거를 마친 효봉 스님은 송광사 삼일암에 10년간 머물면서 보조국사 가풍과 정혜쌍수의 선풍을 진작시키는 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일본 강점기,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 변질돼 보수와 진보로 분열된 한국불교는 효봉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우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김경집 교수는 "효봉 스님의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은 1946년 7월 15일 하안거 해제일에 송광사 삼일선원에서 정혜결사를 시작하게 했다"며 "이 결사는 근래 선지식이 종종 출현했어도 정혜가 갖춰지지 않아 안광낙지시(眼光落地時; 죽을 때)에 앞길이 망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효봉 스님은 결사를 통해 3년간 용맹정진 했다. 이때 제정된 청규는 수행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동구불출(洞口不出)과 오후불식(午後不食), 장좌불와(長坐不臥), 묵언 등이다. 송광사 삼일암에서 시작된 효봉 스님의 정혜결사는 교단 차원으로 확대됐다.

경허의 정혜결사와 그로부터 영향 받은 한암과 만공의 결사가 있었지만 이는 조선후기 쇠락하고 일본에 의해 변질된 한국불교를 부흥하기 위한 결사였다.

김 교수는 "한암 · 만공의 결사와 달리 효봉 스님의 정혜결사는 광복 후 일본 강점기에서 벗어나 한국불교 중흥을 도모했던 현대판 정혜결사의 효시"라며 "효봉 스님의 남다른 수행력이 있었기에 효봉의 정혜결사는 현대 한국불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봉의 사상은 제자인 구산 스님에게 이어져 송광사에서 보조 지눌의 사상을 진작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02)733-5311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간화선의 세계화 비전 점검

불학연구소 제12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

간화선의 해외 지도 사례를 통해 간화선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원철)는 11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2차 조계종 간화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화선 세계화의 전망과 <간화선> 영역의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해외에서 간화선을 지도 중인 청안 스님(헝가리 원광사 주지)을 비롯해 명상지도자인 마르틴 배철러, 진우기 한국불교영어번역연구원장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진우기 원장은 주제발표 '간화선 관련 문헌의 영역(英譯) 현황'에서 영역된 간화선 관련 어록(語錄)과 전등록(傳燈錄) 등을 고찰하고 종단이 진행 중인 <간화선> 영역의 의미를 재조명해 볼 예정이다.

프랑스 출신의 명상지도자 마르틴 배철러(Martine Batchelor)는 '명상과 수행의 세계적 추세와 <간화선> 영역의 의의'를 발표한다. 배철러 씨는 1975년 한국에서 출가해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10년간 간화선 수행을 했다. 또, <The Way of Korean Zen> 등 다수의 저술을 통해 한국선과 수행가풍을 세계에 소개해 왔다.

청안 스님이 주제발표 '한국 간화선 세계화의 현황과 비전'을 발표한다. 청안 스님은 1994년 출가 이후 숭산 스님 지도로 참선수행을 했다. 200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선원을 창건하고 유럽 각지를 순회하며 참선과 수행을 지도해 왔다. 특히 2004년에는 한국식 사찰인 원각사 건립에 착수해 불사 회향 후인 2008년부터 세계 16개국 50여 수행자와 동안거를 시작했다.

이어 27일 오후 1시 템플스테이 정보센터 3층 교육관에서는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행사에는 前 통도사 강사 양관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화랑 스님, 고영섭 동국대 교수, 이계표 조선대 교수, 김광식 부천대 교수 등이 참석해 해인사 · 통도사 · 송광사 · 범어사 · 화엄사 승가대를 중심으로 승가교육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진단한다.

원철 스님은 "승가대 역사와 위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지금껏 이에 대한 학술적 분석 · 점검은 일체 없었다"며 "승가대 연구를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한 기획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02)2011-1818

조동섭 기자

'법화학천태학' '일본불교사' 창간

법화학천태학연구회 · 일본불교사연구소

법화천태학과 일본불교사 연구를 결집시킬 학술지가 각각 창간됐다.

법화학천태학연구회(회장 이영자, 02-2268-6999)는 최근 학술지 <법화학천태학연구>를 창간했다.

'법화경의 길'을 주제로 발간된 창간호에는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선으로 삼학을 모두 거둔다'와 지창규 동국대 교수의 '<묘법연화경현의> 제1권' 등 역주를 비롯해 김성구 前 이화여대 대학원장의 '십계호구의 물리학적 해석',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의 '묵조선의 형성과 그 본질' 등이 게재됐다.

특히 한영(漢英) 천태용어 사전을 수록해 연구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영자 회장은 창간사에서 "불교신행의 근본이자 불교학의 구경인 <법화경>은 지금까지 신앙적 대상으로만 인식돼 왔다"면서 "<법화학천태학연구> 창간을 계기로 법화천태의 일승원융사상을 밝히고 묘법연화의 가치를 새로이 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 02-2260-3123)는 11월 7일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지 <일본불교사연구> 봉정식을 개최했다.

제2차 학술세미나에 앞서 열린 봉정식에는 동국대 불교대학장 혜원 스님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김호성 소장은 "불교학의 자생력을 실험하는 <일본불교사연구> 발간 등 일본불교사연구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안옥선 교수 제3회 청송학술상 수상

청송장학회 "동서양 철학의 학문적 가교 세운 학자"

안옥선 순천대 교수가 제3회 청송학술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청송장학회(이사장 소광희)는 11월 7일 서울 함춘회관에서 제3회 청송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안옥선 교수에게 청송학술상을 수여했다.

안 교수는 역서 <붓다, 마르크스 그리고 하느님>(민족사 刊)과 <Compassion and Benevolence (慈悲와 仁)>(Peter Lang Publication Company)에서 불교와 유교, 개신교를 비교사상적 관점에서 연구했고, <불교의 선악론>(살림 刊), <인간과 가치>(법문사 刊) 등을 통해서는 불교적 윤리학 기초를 수립했다.

또, <여성주의 철학>(서광사 刊)과 공저 <그림자를 벗어나서: 참여여성불교>(Sri Stguru Publications)를 통해 여성성의 철학적인 탐색을, <환경보건학>(신광출판사 刊) 공저 등에서는 환경과 건강 문제를 생태사상적 관점에서 논구해 왔다.

소광희 이사장은 "안옥선 교수는 청송 선생처럼 윤리학과 사회철학 분야에서 동서양 철학의 학문적 가교를 굳건히 세운 학자"라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안옥선 교수.

한편, 청송학술상은 국내 서양철학 연구 1세대 학자로 불교 철학 연구의 기틀을 다진 故 청송 고형곤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고건 前 총리가 청송장학회 설립과 함께 제정한 상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상담과 심리치료의 만남

진흥원, 20일 크리스토퍼 거머 교수 초청특강

'불교와 사회포럼'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치료의 만남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1월 20일 오후 4시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서양치료 왜 불교일까?(Why Buddhism in Western Psychotherapy?)'를 주제로 크리스토퍼 거머 하버드대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는 불교의 마음챙김에 근거한 불안과 공황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자이다. 1978년부터 명상과 마음 챙김 원리를 심리치료에 통합시켜온 거머 박사는 명상과 요가 탐구를 위해 10번 이상 인도를 여행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내 명상심리치료연구소(Institute for Meditation and Psychotherapy: IMP)의 평생교육원장으로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넘게 임상심리를 강의해오고 있다.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마음챙김과 심리치료)> 등을 저술했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 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시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장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재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재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고혼 애혼각 열위열명영가를 극락세계 상품상생케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기도비 : 49재마다 7만원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 봉행 오후 3시 시작)
◆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접수순서대로 조상님의 위패를 영단에 봉안하여 기도드립니다.

입재법문 :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 2010년 1월 18일(음 12. 4) 오재 :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 2010년 9월 20일(음 8.13)
삼재 :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 2010년 11월 8일(음 10.3)

찾아오시는길



접수문의 :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관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구 / 수석고문 이필상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야단법석 일정표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월 21일 (첫째 날)	·	고우스님	시몽스님
11월 22일 (둘째 날)	각묵스님	용타스님	용타스님
11월 23일 (셋째 날)	도법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11월 24일 (넷째 날)	시몽스님	향봉스님	향봉스님
11월 25일	도법스님	·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입 재 : 2009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백양사 방장 수산 큰스님 입재 법어)
■회 향 : 11월 25일(수) 오전 11시 (4박 5일)
■동참비 : 출가자 - 10만원 / 재가자 - 20만원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문 의 : ☎ 061)392-7502, 전송 061)392-2081
■집 결 : 2009년 11월 21일(토) 낮 12시
■대상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접수계좌 : 농협 645117-51-017109 (예금주 : 백양사)
■접수처 : 백양사 종무소
■동절기이므로 개인침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불총림 백양사

일주문



송광사 금강산림법회서 법문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11월 25일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서 법문한다. (061)755-010



제15회 불교인권상 시상식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5회 불교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02)734-6401



부천경승단 순직경찰관 추모위령재

부천 대덕사 주지 성인 스님(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은 11월 17일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순국선열의날 추모위령재를 봉행한다.



법현 스님 원불교서 불교강연

태고종 부원장 법현 스님은 11월 18일 원광대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원광대 원불교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의례와 수행'을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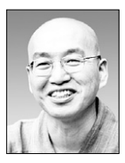
창건 14주년 기념법회 봉행

천태종 대전 광수사 주지 도정 스님은 11월 3일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주제로 창건 14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관문사 사랑의 김장 행사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영제 스님은 11월 21일 김장을 담아 우면동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50세대에 직접 전달한다. (02)3460-5300



평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11월 17일 오후 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주캠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11월 14일 교내 백생관 컨벤션홀에서 '입학 30주년 79학번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동산불교대 창립27주년

동산불교대학 안동일 이사장은 11월 20일 동산창립 27주년 기념 '동산인의 밤' 및 바자회를 봉행한다. (02)732-1206



포교사단 대의원 총회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은 11월 29일 1시 대전보문고등학교에서 대의원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몽골 청소년의 꿈 지원할 터"

지구촌공생회 월주 스님, 몽골에 '공생청소년센터' 건립

"몽골 청소년들이 꿈꾸는 희망이 몽골 공생청소년센터에서부터 펼쳐 질 것입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1월 10일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 게르촌에 '몽골 공생청소년센터'를 건립했다.



11월 1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열린 '몽골 공생청소년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월주 스님(가운데).

이날 준공식에서 월주 스님은 "교육 문화와 관련된 인프라가 전무한 게르촌 청소년을 위한 지적 · 정서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줌으로써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토양을 제공하고 싶었다"며 "몽골 청소년들의 꿈이 이곳에서 싹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몽골 공생청소년센터가 자리한 울란바토르 시 외곽은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 이주한 주민들로 천막형 가옥인 '게르'와 판자집들이 밀집된 몽골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정부의 재정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식수 등 최소한의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특히 대다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과정조차 이수하지 못하는 등 청소년 교육문제는 심각하며, 최근에는 교육의 부재가 청소년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촌공생회는 이러한 게르촌에서 공생청소년센터가 진행하는 도서관 운영과 컴퓨터 수업과 한국어 · 영어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이 지역 600여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월주 스님은 "기초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지식의 기초를 쌓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생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껏 공부하고 나아가 이곳에서 사랑과 자비를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사무차장 화평 스님, 몽골 고려사 주지 경산 스님, 주몽골 대사, KOICA 이동구 소장, 몽골 항올구청 어트겅바근 비서실장, 허성조 재몽골 한인회장 등 내외빈과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해 추위 속에서도 자비와 사랑의 훈훈한 열기를 나눴다.

박선주 기자

東大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세계적 미 · 러연구기관 분소 개소식

세계적인 미 · 러 연구기관의 분소가 동국대에 개소했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1월 10일 러시아 과학원 산하의 IMT(Institute of Microelectronics Technology), 미국 UCLA의 CNSI(California NANO system Institute)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두 기관의 분소 개소식을 가졌다.



동국대 · IMT-RAS, UCLA-CNSI간 MOU체결에서 각 대학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연구분소 개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세계 수준의 해외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해 국내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NT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인 IMT는 기존 반도체 소자의 한계를 극복할 나노재료인 그래핀(Graphene) 연구의 발원지로, 동국대 분소 운영에 향후 6년간 222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00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NT, IT, BT 분야 융합연구를 위해 설립한 CNSI는 IT분야 분소 운영에 향후 6년간 67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은우 국제협력국장은 "동국대에 설치될 IMT와 CNSI 분소는 국내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개발로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강태원 소장은 "두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해 신개념 반도체 정보소자를 개발하고, 개발기술을 산업체에 적극 이전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민다나오 종교 평화 정착 지원

5일 '종교문화간 대화 센터' 개원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 이사장 최근덕 · 성균관 관장)은 11월 5일 필리핀 민다나오에 종교간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교문화간 대화센터'를 개원했다.

종교문화간대화센터는 △종교 전통 계승 △청소년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이웃종교 · 문화 · 평화교육 등을 진행한다. 종교평화국제사업단은 이번 민다나오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전 세계 종교갈등지역의 선례로 삼아 종교평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덕 이사장은 개원사에서 "종교문화간대화센터 개원으로 민다나오의 평화 정착이 앞당겨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계를 대표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재경 스님을 비롯해 최근덕 이사장, 권오성 한기총 총무, 김동완 천도교 교령, 한양원 한국 민족종교협의회장 등 한국 각 종교대표들이 참석했다.

또 비숍 울라마 회의 페르난도 카팔라 대주교와 민다나오 이슬람 지도자 20여명, 개신교 지도자 10명 등 총 1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박선주 기자

'오픈 아이 캠페인' 개안 수술

10일 로터스월드, 5200여 후원자 참여

국제개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11월 10일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캄보디아 문 세이하(Mun Seiha, 6세)군의 시력회복을 위해 서울 김안과병원과 함께 개안수술을 진행했다.



개안수술을 받은 문 세이하(Mun seiha)군.

로터스월드는 2008년 6월 현지에서 문 세이하 군의 '선천성 백내장'을 진단하고 지난 6월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해피로그 '오픈 아이 캠페인'(Open Eye Campaign)을 펼쳐 5200여 후원자의 참여로 초청 및 수술경비를 마련했다.

이번 수술 일정은 11월 5일 로터스월드 직원과 함께 입국해 7일 병원에 입원 후 10일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었다.

로터스월드의 민정희 팀장은 "수술 검사 결과 현재 시력을 되찾은 상태다. 하지만 선천성 백내장은 수술 후 시력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시력교정을 하며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안과병원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는 자외선이 강해 주민들이 시각장애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아동 백내장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자질을 갖춘 마취전문의와 마취시설이 전무하다"며 "시력이 완전히 발달하는 8, 9세 이전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문 세이하 군을 한국에 초청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지부인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아동센터에서는 김안과병원의 지원하에 수술실을 마련해 연간 200 여 주민들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백내장 · 익상편 수술 등 시력회복 지원사업과 의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군종교구 장군 진급 축하 기념법회 봉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1월 9일 서울 하림각에서 장군진급 불자를 대상으로 축하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장군진급 축하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부교구장, 군종실장 김상래 법사 등 군종교구 관계자와 준장 진급자 20명을 포함한 장성 가족 35명이 참석했다.

자광 스님은 법회에서 "군 내에서 불자임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고 어떤 곳에 가서도 신심있는 불자로서 장교와 장병들을 이끌며 군불교 발전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자광 스님은 이날 장군 진급자들에게 총무원장스님의 지휘봉(여의봉)과 합장주, 108염주, 스님의 저서 <멍텅구리 부처님>을 축하선물로 증정하며 개개인의 발전을 축원했다.

노덕현 기자

친목도모 · 화합 위한 축구 대회

9일 은해사, 영천경찰서와 친선전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1월 9일 영천경찰서(서장 박영진)와의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했다.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영천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상호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이날 대회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해 본사 국장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 등 대중스님, 박영진 영천경찰서장 등 영천서 전직원이 직접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6대 6으로 끝났으며, 경기 후 돈관 스님은 영천경찰서에 격려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시켜야 합니다

이번 한 • 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 한미연합사는 한국방위의 핵심입니다.

◇ 한미연합사가 존재함으로써 전쟁을 억지할 수 있고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됩니다.

◇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현저히 약화됩니다.

◇ 북한 핵에 대한 대응태세가 약화되고 첨단장비와 정보능력이 절대 부족하게 되는 한편, 우리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북한은 핵 실험으로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은 반드시 연기되어야 합니다

◇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남적화 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북한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와 핵실험을 했으며,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게 되었습니다.

◇ 북한은 그간의 남북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한미연합사를 굳게 지킵시다. 한미연합사가 존재해야만 안보불안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 시작한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연기시키는 데 불교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0

북한 핵 폐기 ·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대표 공동회장 박 희 도
1,000만명 서명추진본부 공동대표 회장 김 영 관

참가단체 :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성우회, 재향경우회, 한기총, 대불총, 가톨릭 등 종교계, 자유시민연대 등 227개 안보단체

제1회 부산시 4대 사찰 가을 한마음체육대회

불심 키우고, 승부도 겨루고…

범어사 혜원정사 홍법사 성암사 연합 운동회 '열기'
총 10종목 흥분의 도가니… 배구 결승전은 프로급



여느 경기보다 치열한 접전을 펼친 혜원정사(왼쪽) 대 성암사의 배구경기.

정량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 학교의 운동장에서 부산지역의 범어사(주지 정여), 혜원정사(주지 원허), 홍법사(주지 심산), 성암사(주지 응현)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둥근 공 하나를 앞에 둔 채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1회 부산시 4대 사찰 가을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 운동장에서 열렸다. 매년 자체적으로 가을운동회를 가져온 성암사 주지 응현 스님이 보다 더 많은 불자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어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에게 제안을 했고, 이에 혜원정사와 홍법사 주지 원허 스님과 심산 스님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드디어 체육대회 날, 대회에 앞서 저마다의 특색을 한껏 뽐내며 각 사찰별 선수단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중앙 단상 앞으로 모였다. 먼저 근사한 갑옷을 입은 기사의 진두지휘에 맞춰 성암사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뒤를 이어 커다란 연등을 든 범어사, 어린이 사물놀이패의 장단에 덩실덩실 춤을 추는 홍법사, 예쁜 치어리더와 함께 한 혜원정사의 선수들이 차례로 입장 했다.

이어 개회식을 갖고 <반야심경> 봉독, 정여 스님의 개회선언 및 대회사, 심산 스님의 축사, 원허 스님과 응현 스님의 격려사, 선수대표단 선서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오늘 함께한 4대 사찰은 평소 불교발전을 위해 대중포교에 모범적으로 앞장서 온 곳들인데 한 자리에 모여 너무 기쁘다"며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발전시켜 부산의 18개 불교종단이 함께 화합하는 체육대회로 키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산 스님도 "불교가 기도나 법회를 통해서 신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대회나 다양한 문화를 통해 한마음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체육대회를 축하했다.

진지한 개회식이 끝나자 신나는 음악에 몸을 싣고 신나게 몸을 흔들며 준비운동을 하고, 5초간 함성을 질러 묵혀둔 스트레스까지 가을바람에 날려버리며 체육대회에 임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경기는 OX 퀴즈. 우리나라 삼보사찰, 부처님의 탄생 등에 관한 1~3번 문제는 오붓하게 전원 통과였지만, 지하철 한 칸의 출입문 개수를 묻는 문제에서 대거탈락의 위기를 맞았다. 정답은 10개였다. 하지만 탈락의 서운함도 잠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00m 공양미 메고 달리기, 승부차기, 족구, 배구, 줄다리기, 400m 계주 등 남자부 2종목, 여자부 4종목, 남녀혼합경기 4종목 등 총 10종목의 경기가 쉴 틈 없이 이어져 운동장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선수들은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요, 도반이지만 승부의 세계는 나름 냉정한 법이다. 특히 배구 결승전은 준 프로급 수준인 거사들의 선전으로 마치 2002 한일월드컵 4강전을 보는 듯 했다. 단 한 번의 실책이 곧장 승패로 이어질 수도 있어 판정에 민감했고, 유독 잘 하는 선수가 계속 서브를 넣으면 심판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후에는 뜨겁게 안아주며 경쟁을 넘어 우정을 나눴다. 그리고 보살 선수들의 승부차기에는 스님들이 직접 "왼발로 차서 골키퍼의 빈틈을 노려라" 또는 "발 안쪽으로 차야 공이 뜨지 않는다" 등 특강을 하기도 했다.

체육경기와 더불어 사찰간 응원전은 또 하나의 장외전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못지 않게 열정적이었다. 범어사는 검정색, 성암사는 빨간색, 홍법사는 흰색, 혜원정사는 분홍색의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특히 혜원정사응원단은 대학축제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화려한 복장을 갖춘 치어리더들과 익살스러운 분장을 해 흥겨움을 더했다.

이윽고 점심공양 시간이 되자 소나기가 내려, 한층 고조됐던 흥분과 더위를 식혀줬다. 그동안 매년 가을운동회를 열어 온 성암사 선수단은 경력만큼이나 출중한 실력으로 세 사찰 선수단을 긴장시켰고, 오랜 역사의 경남불교대학 동문회원들이 진행요원 및 심판으로 활약해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혜원정사와 홍법사 신도들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심답게 젊은 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젊음의 패기를 한껏 과시하기도 했다.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제15교구 본사다운 질서의식과 수준 높은 경기운영 능력으로 타 사찰의 모범이 됐다.

원허 스님은 "혜원정사에서도 약 10년 전 자체적으로 운동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부득이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이렇게 신선하고 유쾌한 행사를 통해 신도간에 단합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체육대회가 끝난 뒤 노래자랑 및 시상식이 바로 이어졌다. 행운권을 추첨과 종합시상, 종목별 시상, 노래자랑 시상 등 총 390만원의 상당의 대회 우승기와 트로피, 드럼세탁기, 황토매트, 밀폐용기세트 및 무선 커피포트 등 생필품 상품이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전달됐다.

4개 사찰 중 어느 절이 1등의 영예를 안았을까? 승패를 떠나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를 비롯해 참가한 모든 불자들은 진정한 화합을 이뤘고, 동참자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체육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한 4대 사찰 주지 (좌로부터) 응현 스님(성암사), 심산 스님(홍법사), 정여 스님(범어사), 원허 스님(혜원정사).



'젖 먹던 힘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줄다리기 선수들.



동명대 · 부산불교연합회 상생 위한 종 · 학 협력

동명대(이사장 강정남)와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가 불교문화학과의 발전을 통한 종교와 학교의 상생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단체는 11월 9일 오후 2시 동명대 총장실에서 종학협약 조인식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적극적인 전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동체대비의 상생적 지역문화 고취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2시 30분부터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불교문화학과 개설보고 및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의 고불문 낭독을 시작으로 발전위원장 수락인사, 동명대 이무근 총장의 인사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축하영상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이날 협약한 내용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종 · 학협력 공동연구 등 6개 조항이다.

박지원 기자

숲길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 치유

7일,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 성료

부처님은 숲길에서 태어나 숲길에서 열반에 드셨다. 불교에서 길은 수행의 시작이며 완성이다. 또한 숲은 나무, 동물, 작은 풀, 흙, 벌레 등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이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최상의 수행처다.

11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와 부산시불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가 초읍어린이대공원 산책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부산 전역에 가을비가 올 것이란 일기예보가 부산 1,500여 사부대중의 신심 앞에 무색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0일 창립 1주년을 맞는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단이 처음 기획한 대외행사로 단순한 걷기대회를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가을숲의 정취를 만끽하고 느리게 걷는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야단법석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에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출발에 앞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설동근 회장의 대회사, 정여 스님(부산시불교연합회장, 범어사 주지)의 격려사,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범어사 도명 스님의 기공체조 시범을 따라하는 준비운동이 이어졌다.

설동근 회장은 "걷기와 명상은 둘이 아닌 하나인 만큼, 일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을 깨끗한 성지곡 유원지의 자연 속에서 털어내고 참나를 깨닫는 멋진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여 스님도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원망과 불만들이 있다면 걷기명상을 통해 모두 비워내고, 그 자리에 가을 하늘의 맑고 청정함을 가득 채워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흥겨운 폭죽 신호로 시작된 명상 걷기는 1시간 여 3.4km 구간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를 따라 이어졌다. 여러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편안하게 대화하고, 자연 속에서 호흡 하며 한층 깊어진 가을날을 만끽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간식을 먹으며, 사은품 추첨 및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를 즐기며 회향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조상들 1000년 지혜 계승해야 빛 발한다"

한광석 전통염색 명장 초대, 제1회 월례학술발표회 개최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는 11월 7일 오후 3시 동명불원(주지 정산) 문수당에서 제1회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문화콘텐츠로서의 전통염색'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사)남도문화연구소 이사장 한광석 전통염색 명장을 초대해, 불교문화콘텐츠에서 전통염색의 가능성과 우리의 역할에 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서양의 색에 익숙해져 오래 전부터 우리가 알던 색, 보아온 색을 잊지 않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번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강의를 계기로 우리 마음을 전통의 청아한 쪽빛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광석 명장은 "전통염색이 돈이 된다고 해 우후죽순으로 많은 분들이 뛰어들었지만, 진정한 전통염색은 1000년 동안 이어온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했을 때 빛을 발한다. 그리고 요즘 주로 하는 대중화 · 단순화 · 획일화 · 단일화를 하는 것은 전통을 죽이는 일이고, 결국 쉽게 만들어서 파는 것은 결국 싸구려일 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한 명장은 "물을 들이는 방법 뿐 아니라 물을 들이는 섬유인 무명, 모시, 삼베만을 이용하는 것 또한 전통을 살리는 일이다. 저렴한 화학섬유와 달리 빈 모시만 1필에 100만원을 호가하고, 전시회 한번하는데 모시 200필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무명은 대량으로 구입할 곳도 잘 없다. 이러한 인문학적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또 향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광석 전통염색 명장.

학술발표 및 질의응답에 이어 홍승 스님이 진행한 사찰음식의 식탁전이 펼쳐졌다.

이번 발표회에는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고창 문수사 선법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김순향 조각보박물관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박지원 기자

'세계불교유물대전' 등 특별전

12월 3일, 2009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개막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약진하는 우리나라 불교 산업의 보루, 2009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가 오는 12월 부산시민을 찾아온다.

12월 3~6일 4일간 벡스코 제3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될 이번 팔관회에는 법회, 공연 및 이벤트, 테마 특별전, 불교산업관 등 4가지 테마로 구분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폭넓은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먼저 법회부문은 팔관회대법회,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영산재' 특별시연, 대각사 조실 경우스님 초청 특별강연 등을 봉행한다. 그리고 공연 및 이벤트부문으로 전주비빔밥 전국순회 비빔행사, 천연염색 패션쇼를 마련해 무대공연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또, 산업관에서는 전통차, 전통의상, 범종, 선서화, 석재, 사찰음식 등 불교를 주제로 한 산업부스 150여 곳이 입점해, 불교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8개의 테마관에서는 '팔만대장경 특별전' '세계불교유물대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수상작 특별전' '전통등, 장엄등 전시회' '세계화폐전시회' '부산불교30년 특별회고전' '금니사경 특별전' '팔관회 홍보관 및 문화체험관' 등 8가지 테마별 특별전이 신설돼 우수한 우리의 불교문화를 소개한다.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예상 관람객이 1일 1만5000명 이상 7만 여에 달할 예정인 만큼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책 또한 철저하다.

전시장 입구에 플루건 게이트를 설치하고 모든 입장객이 통과해 방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해운대보건소에서 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이상체온을 보이는 사람들은 입장할 수 없다.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부산시불교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무료입장권을 다운로드 받으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051)867-0501 www.bba.or.kr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펴낸 바른불교실천포럼 황경환 회장

"생사 해탈위해 불교공부 시작"

"어느 선지식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 천 코, 만 코가 있지만 정작 고기는 단 한 코에 걸리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 책 속 107가지 구절은 흘러간 옛 노래마냥 그저 지나치더라고 그중 단 한 구절이 마치 한 코에 걸려드는 물고기처럼 인연 있는 이에게 무명의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는 원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황경환 회장.

무진 황경환 바른불교실천포럼 회장(진양유조선 대표이사)이 불교경전 속 구절과 불교 전반에 관한 철학을 진솔하게 담아 낸 책 <무명의 족쇄를 풀어 줄 창 밖의 108요담,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도서출판 풍경소리)을 출간해, 11월 11일 오후 2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출판기념법회 및 김동길 박사 초청강연회를 봉행했다.

이 책에는 '무명의 족쇄를 어떻게 하면 풀어 버릴 것인가?'를 주제로 근본불교 문헌인 <사부니까야> 속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가장 가까운 경구들과 사회 · 과학 전반에 걸친 요소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재해석해 깨달음의 과학을 주제로 한 108개의 요담이 담겨져 있다.

"서구의 많은 이론물리학자 및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달음의 3가지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초월성, 카르마의 법칙,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불교의 핵심공식인 사성제가 바로 그것이고, '고(苦)'의 진실에서 불교공부가 시작됩니다."

황경환 회장이 불교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9살 무렵 선친께서 들려준 인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때문이었다.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9살인 너 역시 언젠간 죽는 존재라는 것과 함께 결코 불교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 당부했다고 한다.

"그날 선친의 말씀이 이후 내 삶의 방향이 되었고, 비록 내가 원하는 바에 아직도 스스로 미약함을 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만은 한 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30년간 한국불교연구원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평화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외교단체) 회원으로도 동시 활약하고, 한국본부 총재를 역임했다. 그리고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의 일요법회에 12년간 빠짐없이 동참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미국 뇌과학의 권위자인 김사철 박사를 우연히 만나 명상과 불교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 초기불전연구원장 대림 스님 등 수많은 인생의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벅찰 법도 하지만, 그를 지탱해주는 힘은 확고한 신념이다.

"깨달음의 과학이란 주제로 엮은 108요담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보다는 내일, 금생보다는 다음 생이, 그리고 고귀한 4가지 진실에 대한 신심과 발심을 더욱 더 가속하는 이에게 고통스러운 윤회의 원인이 되는 무명의 족쇄를 풀고 열반이라는 완전한 자유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발원 합니다."

박지원 기자

특별한 분들을 위한
참수행 마음유통 (신선이 되는 공부)

참수행 마음유통이란?
참수행이란 수행을 통하여 현세의 삶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마음을 무한히 성장시킬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성장할수록 삶의 지혜가 형성되고, 스스로 행복을 쌓아가게 되며,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육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행입니다.

참수행을 정진하실수 있는 특별한 분은?
1. 현재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전생의 선근공덕)
2. 생활수준이 안정적인 분들(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3. 자신을 향상시켜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베푸는 삶)
4. 현재 CEO와 경영인, 법률,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최고 경영자를 준비하는 사회 중견인, 자영업인 등...
5. 인격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인격완성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의식 수준이 높은 재가불자님들을 위한 수행법으로 스님분들의 가입을 받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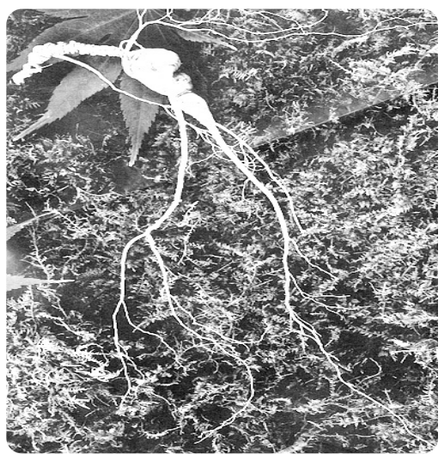
대한불교 참수행 정각종

참수행 (마음유통 경영자 과정) 문의 : 02)2269-0813 www.chamsamo.net
서초구 방배1동 901-10 노블레스빌딩 601호 [7호선 내방역(2번출구), 2호선 방배역(4번출구)]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이리역 폭발사고 32주기 추모재 거행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우성 · 백운사 주지)는 11월 11일 익산역 광장에서 이리역 폭발사고 제32주기 추모재를 거행했다.

이리역 폭발사고는 지난 1977년 전북 익산역(당시 이리역)에서 일어난 화약 폭발사고다. 사고 당시 59명의 사망자와 1343명의 부상자, 1647세대 7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행사에는 우성 스님을 비롯해 정산사 정산 스님, 금강선원 덕진 스님, 진각종 도정정사, 지역 기관장, 익산불교합창단, 유족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우성 스님은 "지난 날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며 "관계기관은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지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역사 · 문화 살아있는 문화도량으로…

6일 금산사 1410주년 개산대재에 1500여 사부대중 동참

전북의 대표적인 사찰인 김제 모악산 금산사 개산 1410주년 개산대재가 봉행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1월6일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산대재를 열었다.



11월 6일 김제 금산사 개산 1410주년 개산대재에는 1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조사전에서 1410년 전 금산사를 창건한 백제 법왕의 창건정신과 미륵제일 도량으로 이끈 진표율사를 비롯한 역대 금산사를 이끌어 온 스님들에 대한 다례재를 시작으로 명종, 명고, 육법공양, 연혁보고, 역대조사 행장소개,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1410년의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금산사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수행원력으로 오늘날 호남제일의 으뜸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제불보살님들의 정법을 받들며 역대 조사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의 계승자로서 수행과 전법교화, 가람수호를 통해 지성불교,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과 완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행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주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행과 보살도의 실천은 둘이 아니니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거북이에게서 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며 "자비는 불도의 근본이므로 보살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불자들은 구도의 본질이 자비행(보살행)에 있으니 자비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할 수 있다는 신심을 확고히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산대재에 이어 월주 · 정락 · 성타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열가지 서원으로 보살도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십선계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원각사 무등어린이회 지도교사 이대종

"아이들은 공동체 삶 배우는게 중요"

어린이 · 청소년은 우리 불교의 미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을 가보면 어린이 · 청소년 법회가 열리고 있는 곳은 아주 드물다. 성당이나 교회가 대부분 어린이 · 청소년 모임을 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광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원각사 무등어린이회는 30여 년 된 어린이 법회를 2005년 에 재창단한 단체이다.



이대종 지도교사.

이곳을 이끄는 지도교사 이대종 선생님은 아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법회를 시작하는 어린이회는 예불, 사찰 예절, 사경, 사불 등 불교 프로그램과 다도, 요가, 책 만들기, 가야금, 레크레이션 등 생활에 유익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어린이 명상학교'는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인기 캠프이다. 눈썰매장, 대전과학단지(천문대), 특전사 1일 체험, 갯벌체험 및 뱀장어 잡기 등 이 최근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다.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컴퓨터 자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에게 사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며 공동체적 삶을 배워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행사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 이대종 선생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행사들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되는 음악회'를 열어 아이들의 율동 및 합창, 가야금 병창등 공연과 1년 동안 법회때마다 저금통에 모은 보시금을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하는 것이 그중 하나의 예.

이대종 선생은 고교 1학년 때 목포 보현정사 학생회 '화랑단'에 처음 입문한 것을 계기로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고교 2학년 화랑단 단장과 목포대 불교학생회 회장을 역임했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보현정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시작으로 15년 가까이 어린이법회를 지도했다. 2005년 광주에서 원각사 어린이법회와 중고등법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선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조계종 포교원 제1회 우수 어린이 지도자 포상을 받았다. 현재 그는 불교단체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홍보팀장이다.

"광주지역에 어린이 법회가 있는 곳이 채 10곳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 선생님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대관계도 형성이 되어있지 않아 안타깝죠. 어린이포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린 불자를 키울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의 말에는 어린이법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묻어나온다.

이대종 선생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배우고 심성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국립광주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불교문화재의 비밀을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직접 듣는 시간이 진행돼 화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3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6~7시 박물관 교육관에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큐레이터로부터 특정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참석자와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다.

특히 11월 7일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에는 김정현 학예연구원이 들려주는 '사자석등, 진리의 불을 밝히다'가 진행된다.

석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밝힌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석등의 몸체를 사자의 모습으로 만든 독창적인 문화재인 쌍사자 석등의 숨겨진 비밀과 통일신라인 석조미술의 세계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인터넷 신청으로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062) 570-7061 조동제 전북지사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30일, 백두산민족예술단 창립공연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은 10월 30일 광주 백두산 식당 지하 1층에서 북한의 춤과 노래를 알리는 백두산민족예술단(단장 주미영, 함경남도 함흥 출신) 창립식과 창립공연을 했다.



백두산민족예술단의 공연 모습.

탈북자 예술인 10명으로 구성된 백두산민족예술단은 창단공연에서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북한 가요와 '노들강변' '진달래' '도라지' 등 전통민요를 구성지게 불렀다.

이어 북한에서도 최고급 무용으로 알려진 마술처럼 옷을 갈아입는 '마술춤'(사계절춤)을 비롯해 '물동이 춤' 등을 화려한 율동으로 선보였다.

주미영 단장은 "타 지역보다 유독 전남 지역에 탈북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며 "이들의 재능을 모아 북의 문화도 알리고, 남과 북의 문화 차이를 줄이기 위해 예술단체를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대부분 북한의 협주단 · 가극단 · 예술단에서 활동하거나 어려서부터 전문 교육기관에서 성악, 악기, 무용 등을 전공한 예술인이다. (062)233-5676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시 살아나는 백제 왕도

13일, 익산서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학술회의

전북 익산지역의 마한 · 백제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행사가 열렸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11월 13일 익산시 소재 전북도 교원연수원에서 '익산, 다시 살아나는 백제 왕도'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병모 고려문화재연구원장은 기조강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익산 역사유적지구'를, 윤덕향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 '익산지역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을,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센터장은 '고도 보존 및 육성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익산역사유적지구는 지난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단계인 한국유산위원회의 잠정목록에 등록된 상태다. 한편, '전북도 백제문화유산 보존추진위원회'는 익산지역의 마한 · 백제시대 유물 ·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산사분재의 아름다움 선보여

6 ~ 11일 백양사, 작품전 열어

가을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있는 백양사에서 산사 분재 작품전이 열려 참배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는 백양분재연구회(회장 신훈)와 함께 11월 6 ~11일 대웅전 마당에서 '산사 분재 작품전'을 개최했다.

분재 90여 점이 전시된 행사는 '분재의 자연미와 절제미를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백양분재연구회 회원 50명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백양사의 단풍을 화분에 옮겨 놓은 듯한 애기단풍과 소나무, 소사, 철쭉 등 30여 종의 소재로 만든 개인작품을 출품했다.

시몽 스님은 작품전을 둘러보고 "분재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산사의 풍취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훈 회장은 "작품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종하의 '쉬운 IT 즐거운 생활'

철저한 분석으로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

웹 로그 분석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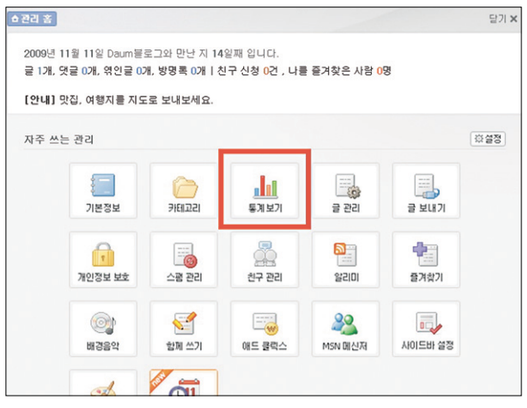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늠할 척도가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블러그, 카페, 미니홈피 등등)가 중요하다면 이제 웹 로그(통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웹사이트 운영 전략을 수립하시는 척도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도메인을 등록하고 자신의 블러그와 도메인 포워딩 하는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블러그를 이용해 웹로그(통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Daum)에 로그인 하시고 개인 블러그에 들어가시면 그림과 같이 관리 메뉴가 나타납니다.

관리 메뉴를 클릭하시면 관리홈이라는 페이지가 보이실 겁니다.

관리홈 페이지에서 통계라는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통계 보기 페이지가 보시이죠. 웹 로그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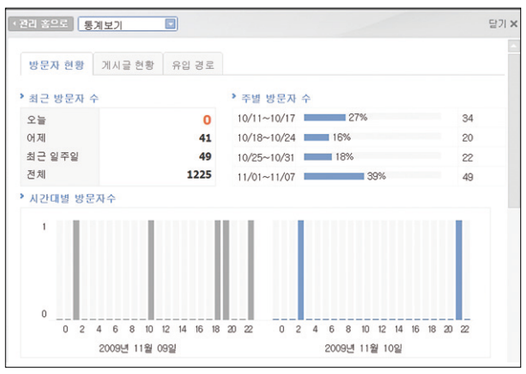




개인 블러그에 로그인한 뒤 오른쪽 메뉴에 관리버튼을 누르고 (위쪽) 관리홈 페이지에서 통계라는 메뉴를 클릭, 통계보기를 한다.

1. 방문자수

하루에 몇 명이 웹 사이트를 방문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수와 페이지뷰의 비율을 통해 한 사람의 방문자가 평균적으로 몇 페이지를 보는 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자를 대비한 페이지뷰가 늘어나는 것은 이용자들이 점차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간대별, 요일별 평균 접속수를 이용하여 이벤트, 사이트 점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보기 페이지로 방문자 현황, 게시글 현황, 유입 경로등을 알 수 있다.

2. 페이지 분석

개별적인 페이지뷰 또는 메뉴별 페이지뷰를 통해 어떤 컨텐츠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로 주로 이동하는 지를 안다는 것은 이용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지를 알수가 있으며, 이런 정보는 향후 컨텐츠 업데이트 방향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방문 경로 분석

어느 검색엔진을 통해 우리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나 링크를 통해 방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색어를 통해 웹 사이트를 방문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작업을 통해 얻은 정보는 어떤 키워드로 마케팅 전력을 수립할 것 인지를 판단 할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방문자 특성 분석

방문자의 IP, IP를 통한 접속지역, 방문자의 운영체제, 방문자의 브라우져 종류, 방문자의 모 니터 해상도 등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웹 서버의 선택

인터넷에 웹사이트(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상에 가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공간은 개인적으로 서버를 운영하여 확보할 수도 있지만, 서버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전문지식과 운영자금이 필요 합니다. 우선 서버를 운영하려면 서버스크립트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운영체제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가의 서버를 구입하고, 고정IP 서비스를 받아야 되므로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호스팅의 종류를 크게 서비스(웹호스팅/서버호스팅)와 운영체계(ASP/PHP)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호스팅

서버호스팅은 하나의 컴퓨터 전체를 임대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서버로 사용되는 컴퓨터를 전체로 임대 받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임대 서비스의 한 방법입니다.

2. 웹 호스팅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호스팅의 한 형태로, 서버 호스팅과는 다르게 서버로 사용되는 컴퓨터의 공간 중 일부만을 임대받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필요 용량만을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가의 비용으로 인터넷 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ASP 호스팅

ASP 호스팅은 윈도우 운영체제로 서비스되는 호스팅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 또한 바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PHP 호스팅

리눅스 운영체제로 서비스되는 호스팅으로, 리눅스 운영체제의 경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ASP 호스팅에 비해 저렴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더 좋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둘째,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셋째, 서버를 관리할 인력이 없다.
넷째, 웹사이트의 규모가 크지 않다.
다섯째,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1개.

위 질문 중에 2가지 이상이라면 저는 리눅스(PHP) 웹 호스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시면 웹 로그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향후 홈페이지 리뉴얼(RENEWAL) 작업 시 호스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처음 웹사이트를 구축시에는 제일 작은 호스팅부터 시작하셔서 웹 로그 분석을 통해 확장해나가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이트 중에는 홈페이지 성격과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상당 수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구축 당시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홈페이지 구축업체의 제안에만 의지하여 서버구입과 홈페이지 구축을 함으로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구축업체 또한 정확한 분석 없이 막연한 불안감 조성으로 대용량의 서버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막연한 불안감이란 서버가 마치 자주 다운이라도 될 것처럼 호도하여 대용량의 서버 구입을 권장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간 6,327명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버를 선택해야 하는 위치라면 우리는 초당 6,327명이 접속 가능한 서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초당 37명의 접속 가능한 서버가 필요할까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일반적인 방문자는 악의적인 해커가 아닙니다. 같은 일자 같은 시각 동시에 우리 홈페이지에 공격할 확률은 0%로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주간 6,327명의 방문한다면 하루에는 900여명정도 방문하고 시간당 37명이 정도 방문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적인 환경변수는 제외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초당 6,327명의 접속 가능한 서버와 초당 40명이 접속 가능한 서버는 어감에서 오는 차이뿐 아니라 실제 서버 구매 단계에서도 소비자의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초당 40명이 접속할 것이라는 수치는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식이지 웹 로그 분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규모로는 그렇게 쉽게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비용 측면에 있어서 서버가 다운되는 걱정보다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용에 대한 생각 먼저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웹호스팅 전략 수립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

1. 사이트의 발전 단계별 트래픽을 고려한다.
2.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가를 고려한다.
3. 보안 등급을 고려한다.
4. 얼마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를 고려한다.
5. 서버 관리 인력을 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6. 서버 관리 예산을 고려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여러 호스팅 판단기준을 근거로 우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웹호스팅을 판단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하루 900명 정도가 방문하는 사이트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비용을 고려하여 리눅스(php)서버를 선택하고 웹사이트는 하나만 운영한다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정은 일반적인 불교계 웹사이트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cafe24통해서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게 되면 월 5,500원 정도의 비용으로 호스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트래픽 용량은 일반적인 웹문서의 페이지 당 권장량인 50K를 기준으로 20명이 접속했을 때 1000K=1M가 되므로 절약형 호스팅(트래픽 400MB)은 대략 8,000명이 50K의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1페이지로 구성된 페이지는 거의 없으며, 페이지마다 용량이 모두 다르므로 몇 명이 접속해야 트래픽 용량이 초과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안내해 드리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웹호스팅 업체에 따라 비용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cafe24.com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자는 십수년 간의 현장 경험으로 매우 합리적은 가격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여 cafe24를 기준으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으니, 웹사이트 규모에 맞는 서버를 선택하TU서 웹사이트 운영비용을 합리적으로 지출하시기를 이 글을 통하여 당부 드립니다. 사부대중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서비스 종류별 사양

서비스명	광아우토반 절약형	광아우토반 일반형	광아우토반 비지니스	광아우토반 퍼스트클래스	광아우토반 자이언트	광자이언트 클러스2008
하드 용량 웹 스트리밍/CDN	400M 200M 100M/100M	900M 500M 200M/200M	3G 2G 500M/500M	6G 4G 1G/1G	10G 6G 2G/2G	14G 10G 2G/2G
트래픽 용량 웹 스트리밍/CDN	1.4G 800M 400M/400M	1.8G 800M 500M/500M	5.5G 2.5G 1.5G/1.5G	12.5G 5.5G 3.5G/3.5G	30G 10G 10G/10G	웹 500G/월 스트리밍10G/일 CDN10G/일
사양 안내	일반적인 웹 공간만을 제공하는 타사와 달리 스트리밍 & CDN 서비스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여 사실적 접속증가 효과 및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기회 제공 (스트리밍/CDN 이란)					
MySQL DB	무제한					
추가 DB옵션 제공	MS-SQL, Oralce, Cubrid, PgSQL more...					-
POP 메일 계정	3개	10개	30개	30개	30개	50개
도메인 추가연결	1개	2개	5개	8개	10개	20개
서브 도메인	미지원			20개	30개	50개
UTF-8	utf-8 전용 서버 지원 (서비스신청 시 선택 가능)					
설치비	5,000원	11,000원				
월 사용료	500원	1,100원	5,500원	11,000원	22,000원	33,000원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하기	신청하기

웹호스팅 전략을 세워 홈페이지 운영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불교IT문화원 www.itbuddha.co.kr (02)739-9777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 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 사찰경제 살려!!!

매일매일 경전을 읽는 공덕 업장이 소멸하는 법륜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가족 이름은 물론
경전을 복장하는 행사가 줄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생록에 기록된 금강경을 각 개인마다 다른 숫자로 법륜대에
복장하게 되어 전생에 묵은 빚, 해탈이 복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용신안특허의기술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높 이 110cm
□원통폭 45cm
□밑받침폭 30cm
□무 게 25kg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1

부부는 전생에 서로 빚진 인생

[원문]
극락당전만월용(極樂堂前滿月容)
옥호금색조허공(玉毫金色照虛空)
약인일념칭명호(若人一念稱名號)
경각원성무량겁(頃刻圓成無量功)
– 지리산 천은사 극락전

[번역]
극락당 앞에 만월 같은 아미타불 얼굴
옥호와 금빛 얼굴은 허공을 비추는구나.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잠깐 사이에 한량 없는 큰 공덕을 이루리다.

[선해(禪解)]
오늘날 부부의 이혼율이 열 쌍 중 두 쌍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혼율은 서구(西歐)를 앞지를지도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요지경 세상이다. 더욱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차츰 줄어들어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젊은 세대보다 많을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지 모른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찌 이혼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근세의 큰스님이었던 경봉 스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티격태격 싸우던 부부가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三笑窟)에 거처하고 계시던 경봉 스님을 찾아 왔다.

"스님, 저희 부부는 금실이 좋다가도 어떤 작은 일에도 싸우곤 합니다."

"허허. 그래. 아이는 몇을 낳았노?"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그래, 금실이 좋으니 그만큼 아이들을 낳았지."

부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경봉 스님은 부부의 안면을 찬찬히 살피시고는 대뜸 남편에게 물었다.

"그런데 말이다. 니는 네 마누라 몇 번 업어주었노?"

"네. 한 번도… 업어주지 못했습니다."

"봐라. 네 마누라는 아이 셋을 낳는 동안에 세 번 죽다가 살아났는데, 한 번도 업어 주지 못했으면서도 뭐가 그리 잘 났다구 마누라 구박하노."

남편은 그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봐요. 역시 우리 스님 말씀은 명언(名言)이야."

부인은 경봉 스님의 말씀에 맞장구쳤다.

그 때 그 모습을 지켜본 경봉 스님이 다시 부인을 나무랬다.

"니는 뭐가 좋다고 소리치노? 금쪽 같은 아이 셋과 마누라 먹여살려 왔지 않느냐?"

그제야 남편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 순간 경봉 스님이 파안대소(破顔大笑) 했다.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 부부는 전생에서부터 서로 빚진 인생이다."

부부가 극락암을 내려갈 때 스님이 마중 나와 다시 일렀다.

"대문 밖에 나서면 거기는 돌도 많고 물도 많으니 돌멩이에 채여서 넘어지지 말고 물에 미끄러져 옷도 버리지 말고 잘 돌아 가거라."

이 법문은 당대의 선지식이셨던 경봉 스님이 하신 법문이다. 이 법담 속에는 일상적인 대화여서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인생의 깨달음이 가득 들어 있다.

경봉 스님이 매일 싸우는 부부를 두고 코믹하게 생활법문을 들려주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 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알고 느껴라' 하는 뜻에 있다.

조선 숙종 때 단유 선사가 절을 중수할 무렵 절의 샘가에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하였으므로, 이에 한 스님이 용기를 내어 잡아 죽였으나 그 이후로는 샘에서 물이 솟지 않았다. 그래서 '샘이 숨었다'는 뜻으로 천은사(泉隱寺)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절 이름을 바꾸고 가람을 크게 중창은 했지만 절에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불상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입을 모아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주던 이무기가 죽은 탓이라 하였다.

얼마 뒤 조선의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인 원교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절에 들렀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이광사는 마치 물이 흘러 떨어질 듯한 필체(水體)로 '지리산 천은사'라는 글씨를 써 주면서 이 글씨를 현판으로 일주문에 걸면 다시는 화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의아해 하면서도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더니 과연 신기하게도 이후로는 화재가 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주련의 내용속으로 들어가 보자.

지금의 자기 행복을 스스로 알고 감사하라
부처님 명호 부르면 한량없는 큰 공덕 이룬다

'**극락당전만월용 옥호금색조허공**: 극락당 앞에 만월 같은 아미타불 얼굴, 옥호와 금빛 얼굴은 허공을 비추는구나.'

우리 인생은 문밖만 나서면 수많은 '돌과 물'을 만난다. 돌멩이와 물에 걸려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상징하는 '돌과 물'은 부부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고뇌들이 아니겠는가. 부부란 일심동체여서 이러한 위험을 함께 잘 극복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그러한 큰스님의 지혜의 경구(警句)를 귀담아 들었는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주련 여행은 지리산 천은사이다. 지리산의 가을은 붉은 단풍으로 인해 절창이다. 한 번쯤 찌든 일상을 벗어나, 물 깊고 산 깊은 지리산으로 발길을 되돌려 보자.

천은사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신라 때 도선 국사가 창건하고 신라 중기인 828년(흥덕왕3) 인도의 덕운(德雲) 스님이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명산을 두루 살피던 중 지리산에 들어와 천은사를 중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자세하지 않다.

처음 이름은 감로사였다고 하는데 천은사로 이름이 바꾸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전설 때문이다.

여기에서 극락당은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신 사찰 전각이며 옥호는 부처님의 32상(相) 중의 하나로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고 있는 가는 터럭이다. 또한 금색도 32상(相)의 하나로 부처님 몸에서 발하는 금빛을 일컫는다. 이는 부처님의 위대한 표상(表象)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극락당에 있는 아미타불의 얼굴은 마치 만월 같으며 그 상은 언제나 옥호와 금색으로 빛나 허공을 항상 비추고 있다는 말씀이다.

'**약인일념칭명호 경각원성무량공**: 사람들이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면 잠깐 사이에 한량없는 큰 공덕을 이루리다.'

위대한 부처님을 일념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끝임 없이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외운다면, 찰나에도 많은 공덕을 이루어 큰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한 시라도 부처님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일심(一心)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무한한 공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은사 극락당 주련 속에 담긴 뜻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1

깨달음의 성품알면 부처마음

[원문]
自西天二十八祖 只是遞傳心印 吾今來此土 唯傳頓教大乘卽心是佛 不言戒施 精進苦行. 乃至入水火登於劍輪 一食長坐不臥 盡是外道有爲法. 若識得施爲運動靈覺之性 汝卽諸佛心. 前佛後佛只言傳心 更無別法. 若識此法 凡間一字不識亦是佛 若不識自己靈覺之性 假使身破如微塵 覓佛終不得也. 佛者亦名法身 亦名佛心. 此心無形相 無因果 無筋骨 猶如虛空 取不得 不同質界 不同外道. 此心 唯如來一人能會 其餘衆生迷人不明了.

서천(인도)의 28조사스님들도 오직 심인(心印)을 전하셨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마음이 곧 부처'라는 돈교(頓教: 단박 깨닫도록 이끄는 가르침)를 전하려는 것이지, 계행을 지키고, 정진을 하며, 고행을 하는 것과 불이나 물에 드는 것과, 악마를 항복받기 위해 칼을 사용하는 법과, 한 끼만 먹고 오랫동안 눕지 않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것은 모두 도가 아닌 유위의 법이니라. 분별하고 움직이는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을 알면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마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셨지, 달리 다른 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 이 마음을 알면 글자 한 자 몰라도 역시 부처이니라. 자기의 신령스런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이 부서져 먼지가 되더라도 부처는 끝내 될 수가 없느니라. 부처란 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을 깨달은 이라고도 하느니라. 이 마음은 형상이 없으며, 인과가 없으며, 힘줄이나 뼈가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가 없으니, 물질의 세계와 같지 않으며, 외도와 같지도 않느니라. 이 마음은 여래만이 아시고 그 밖의 중생과 미혹한 사람은 분명히 알지를 못하느니라.


송나라 양해(梁楷) 작. '소오도(笑悟圖)'.

[해설]
인도의 28 조사스님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이 우주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하나의 마음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 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깁니다. 많이 먹고 풍족해서 고통이 없으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일체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진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별하고 움직이는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을 알면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순간이 부처입니다. 일체가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나타나고 멸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부처다 이런 얘깁니다. 과거에 깨달은 분, 미래에 깨달을 분들도 오직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된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집착하는 가운데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다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도 나도 끊어지고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것, 네 것을 따지다 보니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양 꽉 붙잡지만, 그것이 나갈 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외형적인 부분이나 마음을 보고 가까이 하다가 상대가 변했을 때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와 상대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착으로 인해 미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 도리를 알면 글자를 몰라도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 혜능 스님도 글자를 전혀 몰랐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금강경>의 일부분을 듣고 도를 깨쳐버렸습니다. 글자를 알아 유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만 보면 걸림이 없습니다.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있는 자리를 믿고 수행을 하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난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법을 못 만난 것입니다.

'자기의 신령스런 성품을 알지 못하면 설사 몸이 부서져 먼지가 되더라도 부처는 끝내 될 수가 없느니라.'

오직 성품을 알고 닦으면 성불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도리를 모르고 한다면 어떠한 고행을 하더라도 성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처란 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을 깨달은 이라고도 하느니라.'

내 마음 밖에 무언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모두 외도(外道)입니다. 나누면 모두 외도입니다. 하나로 보고 행 했을 때 정도입니다. 도(道)는 문자 · 언어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 마음은 여래만이 아시고 그 밖의 중생과 미혹한 사람은 분명히 알지를 못하느니라.'

일체가 마음으로 된, 생사가 없는 도리라는 것은 성품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깨닫고자 한다면 자기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3

일시:11월 10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 명진 스님(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광주에 내려오면서 이런 저런 감회가 좀 많았습니다. 광주는 제가 강진 만덕사나 송광사 선방에 살 때 지나쳐 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초청 받아서 오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 그러면 뭔가 저에게는 빛 같은 걸 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 부턴가 광주를 '빛고을'이라고 부르더군요. 빛고을 광주(光州). 참 이름 너무 이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광주를 품에 안고 있는 산 이름도 무등산(無等山)이어서, 참 형이상학적인 이름이란 생각이 들어요. 무등산, '평등'도 아니고 '무등'입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뜻합니다. 또 무각사를 스쳐 지나가는 강 이름이 극락강(極樂江) 이잖아요. 빛고을 광주에는 우리가 바라는 끝없는 정토 세계의 좋은 이름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예향'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도시는 그렇게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경제 제일주의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을 최고로 치는 세상, 물질적 가치에 중심을 두는 세상에서 광주는 오래전부터 돈이나 물질, 이런 것들보다 예술을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주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주에 초청을 해주신 광주 불자님들께 머리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는 뭡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만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는 것도 이해가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복과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내생의 천국을 약속 받는 종교인 것입니다. 반면, 불교는 끝없는 자기 물음을 통해서 각성 즉 깨달음으로 가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불교는 성찰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불교는 물음의 종교라고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부처님 법에도 기도와 발원과 염불, 그런 것을 통해서 다음 생에 극락을 갈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향한 끝없는 물음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생각에 도달하면 불교가 이제 어려워지고 가장 난해해집니다. 무턱대고 맡겨놓고 빌어서는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얼음 같이 차가운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전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강원에서 글을 많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어릴 적 모친께서 두 살 난 제 동생과 여섯 살 난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때 부산에 있는 당감동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섯 살 때인데 화장터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른 봄, 찬바람 막 몰아치는 그 추운 날, 삼베옷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서있었던 철 없던 그 시절이 오랫동안 저를 지배해왔습니다.

집도 가세가 기울어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전학만 여섯 번이나 다녔습니다. 또 내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맨날 쌈박질에 사고를 아주 많이 쳤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 댁에서 제가 사춘기를 보냈는데, 그 심사가 얼마나 편치 않았겠어요. 그 때 마침 수덕사의 김일엽 비구니 스님이 쓴 <청춘을 불사르고> 라는 책을 보게 되었고, '아~ 이거 불교라는 것이 참 묘한 종교구나'라고 느꼈고, 그러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3학년 때 저를 아는 분이 무주 설천면에 관음사라는 절에 저를 공부하라고 보냅니다. 비구니 스님 절에서 대입공부 해서 합격하면 대학 보내줄테니 가서 공부하고 오라해서 그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순간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인연이 때로는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에서 지내면서도 불교에 대해서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해인사 스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방이 마땅치 않아 제 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이 절에 들어오시는 모습부터 뭔가 다르더라고요. 정갈하게 광목 두루마기를 입고 걸망을 메고 밀짚모자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도량에 들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맑고 깨끗했습니다. 스님이 공양하신 모습이나 신고 온 양말을 빠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에서 스님의 위의(威儀)를 느꼈습니다. 그 때 그 스님이 스물 세 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당시 저는 19살이었지만 스님의 위의에 기가 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불교는 물음의 종교다

해인사로 출가… 세상 잘못 꾸짖는 승려대회 열어

저는 앉아서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는 방 한 쪽을 쳐다보고 숨소리 하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생전 처음 봤죠. 제가 속으로 '아니, 저 인간이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사람 갑갑해 죽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종을 치니까 부스스 일어나더니, 마당가에 묵은 벚나무가 있었는데 달빛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에 들어와 또 방석에 앉아서 참선을 합니다. 아 그리고 꼼짝을 안 하네. '야, 저 인간이 뭐하는 인간일까?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이 들어 잠들기 전에 "스님 뭣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니 "남한테 뭐 물을게 뭐 있겠소. 지 할 일 잘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십시다. 그 것 참 '이걸 한 대 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건방지고, 도도하고,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가 눌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뭣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딱,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요?"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스님들 한테 속인들이 뭘 물어봅니까? "스님은 왜 중이 됐습니까?" 그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학생은 여기 뭐 하러 와 있나?"

"예, 저는 대학교 준비할려고 와 있습니다."

"그래, 대학은 가서 뭐할낀데?"

"아니 대학 가서 좋은데 취직도 하고 그러죠."

"취직 하면 또 뭐하는고?"

"취직해서 이제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또 뭐하는데?"

"아니, 살다 사람이 죽는 거지. 뭘 자꾸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공부 하는 거 아닌가."

그럽니다. 굉장히 궤변 같죠? 궤변 같은데 사실은 그거 말고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스님은 어째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출가하시고 뭘 하십니까?"

"부처님 법은 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뭔가를 깨닫는 그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 거야. 너는 니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면서 니가 뭘 대학 가고 한다는 게, 그게 전부 허황된 저녁노을 같은 거 아니야?"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히 수행이 깊었던 스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스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18년 동안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부분이 다 사라지고 제가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공양을 하시고 스님이 가시는데, 제가 걸망을 지고 버스 정거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스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출가해서 스님 하시면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훌륭한 수좌스님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만나서 공부합니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6개월 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 후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중노릇을 하다가 30살 되던 해에 광주민주화운동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문만 봐서 시민들이 폭도들이고 간첩이 선동을 해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나는 나를 깨닫기 위해 출가를 했으니까, 세상사는 다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공부만 해야지. 이 뭣고 화두를 해서 깨달아가지고 정말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지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도에 해인사에서 광주항쟁 비디오 들어온 것을 스님들과 몰래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같은 땅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하는데, 과연 그럼 나는 무얼 하는가? 이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스님들을 모아 세상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6년 '9.7 해인사 승려

화제의 신간!!



– 한국 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전재성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경구를 읽다보면, 많은 경전에 대한 섭렵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 새삼 옷깃을 가다듬게 된다."

– 동국대학교 정병조 교수
"이 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고, 둘째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은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

無明 속에 있으면 五蘊(정신, 육체)가 내가 되고
無明 을 벗어나면 五蘊(정신, 육체)는 내가 아니네
때문에 無明 속에 있으면 生死는 나의 運命
無明 을 벗어나면 生死는 꿈 속의 꿈이라네

佛教는 깨달음의 科學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要談
無塵 황경환 편저 | 도서출판 풍경소리 | 총 238면 | 정가 10,000원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424-0144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텅 비워진 자리에 지혜 솟아

대회'를 열게 됩니다. 해방이후에 최초로 한국불교가 반정부 시위를 한 겁니다. 10.27법난규탄대회위원장도 맡아서 일을 하다가 구치소 생활도 했습니다. 그 후 개운사 주지를 잠깐 하게 되고 선방에 다니다가, 또 오고 가고 하면서 세월을 지내다가 94단 종단개혁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봉은사 주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봉은사는 강남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이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삼 년을 살게 됩니다. 봉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절입니다. 돈 많은 절이고, 부자 절이고 또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분규가 있었던 절이고 해서, 참 문제를 많이 안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 내가 한 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1000일 기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10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00일을 시작하니까, 신도들은 '저, 새로운 것들은 얼마나 돈을 해먹고 나갈라고 저러는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100일만 하면 밥 산다고 서로 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신도들의 기대, 바램. '어, 정말 하시네.' 그러면서 점점 바뀌는 거. 신도들이 스님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심과 또 정말 잘 하신다, 그런 기대. 그것들이 저로 하여금 1000일 동안 게으르지 않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게 한 힘이 된 겁니다.


법회에 앞서 전통차를 맛보며 법담을 나누는 스님과 불자들.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고, 400일이 지나고, 500일째 되는 날 기념법회를 할 때, 법상에서 내려와서 저희 신도님들한테 제가 삼배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도님들이 호법신장 같이 나를 지켜주고, 바라보고, 항상 눈빛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내가 빼먹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게으를 수가 있는가? 제가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법당에 가는 시간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사시에 한 번 빼먹은 거 말고는, 빠진 적도 없고, 늦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2999번을 딱, 시간 5분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 가르침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선(禪)을 해서 무엇을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 할 때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지혜란 것은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흔히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방하착(放下着) 해라.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비워진 자리에 지혜가 솟아나게 되어있습니다. 허공은 그대로 텅 비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무수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허공과 같다. 실제로 우리 마음은 허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뭘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누가 한 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뭘까?' 모른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 무슨 뭐,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어디 어디. 더 넓게. 세계. 더 넓게. 태양계, 은하계. 더 넓게. 그 다음에는 주소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대무변하고 끝없는 우주 공간 속에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붙어사는 나라는 거, 뭔가 이거?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확한 대답을 못하면서 하루 하루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번뇌고, 아는 것으로부터 분별심이 나왔고, 아는 것으로부터 간택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을 전부 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제방에서 간화선이 잘 되니, 잘못 되니 하면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는데, 간화(看話)가 별거 아닙니다. '나는 뭘까?' 뭐,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지스님이 왜? 무(無)라고 했을까?' 그걸 물어도 됩니다. 삼라만상 전체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꽃은 왜 붉은지, 버들은 왜 푸른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계약된 것, 앎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사상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화두 하나, '이 뭣고?' 하고 묻는 그 간절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빠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빠지기 위해서는 힘이 빠져야 합니다. 모든 앎을 다 내려놓은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힘이 완전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하실 때 보면 힘이 완전히 빠져야지 스윙이 부드럽습니다. 우리 몸에서 힘 빼듯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힘을 빼야만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행을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자비는 지혜가 없으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혜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수행하고, 나를 향해 끝없이 묻는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꾸짖어야 하고, 비굴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빛고을 광주에 온 국민들이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주, 무등의 품속에서 환한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혀나가야 합니다. 차별이 없고, 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함부로 하고, 많이 배웠다 해서 남을 함부로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말 평화로운 이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또 그러한 횃불을 광주가 선봉에 들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9. 만해 스님의 제자 김관호 법사

글 · 육성증언 통해 만해 행장 알려… 국가·사회·민족 위해 살아

김관호 법사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적 아들이다. 만해 스님의 제자로 그동안 논문과 육성증언을 통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만해 스님의 행장을 알려왔다. 80년대 초부터 전국 각 대학을 돌며 만해사상을 강연하면서 한 푼의 강연비도 받지 않아 "만해스님과 같은 분"이라는 존경을 받기도 했다.

김관호 법사님은 앉으나 서나 만해 스님 이야기고, 틈만 나면 탑골공원이나 심우장을 찾았다.

"보라구. 그 분의 집이 어찌하여 이렇게 북향을 향하고 있는지. 첫째, 조선 총독부가 보기 싫어서였고, 둘째는 남북통일의 갈망에서였어."

다 허물어져 가는 심우장 마루에 앉아 또 그 옛날 그 말씀을 꺼내신다.

"(만해) 스님은 1879년 8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거든.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6세에 동학혁명을 계기로 형과 부모가 관가에 끌려가 피살된 것을 보고, 96년 동학군 잔여세력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하다가 설악산 5세암에 들어가 피신하였다. 이때 민중들의 고통을 실감하고 이렇게 총부리만 겨누고 뛰어 다닌다 해서 나라가 독립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29세에 백담사 연곡 스님께 득도(得度)하였다. 여기서 학암 스님께 <기신론> <능가경> <원각경>을 배우고, 유점사 인학 스님께 <화엄경>을 배운 뒤 직접 5세암 선방에 들어가 선수행을 하였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자 원산을 거쳐 시베리아에서 수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다가 다시 석왕사 선방에 이르러 참선하셨다."

"법사님, 오후 2시가 되었는데 배고프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요. 시베리아에서 방랑하고 계신 용운 스님도 있는데!"

피식 웃으면서 아래 국수집에 들어가 국수 가락 같은 길고 긴 이야기를 또 늘어놓는다.

"(만해 스님은) 1908년 전국 사찰 50인중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에 원종(圓宗)을 만들고, 일본에 들어가 일본 유학생들과 함께 연관을 가지고 최린 선생과 함께 귀국한다. 1909년 조선불교유신론을 발표하고, 1910년 한일합방



(일제강점)이 되자 독립군 군관학교에 나아가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총을 맞아 파킨슨병 환자처럼 고개를 떠는 증세가 생겼다. 그래서 양양 낙산사에 가서 기도하고 꿈속에서 꿀물 한 통을 얻어드신 뒤 말은 잘하는 언변을 얻어 왜경이 잡으러 오면, '내 강연이 끝난 뒤 나를 체포하라' 해서 놓아두면 얼마나 말을 잘 하던지 잡는 것까지도 잊어버려 3 · 1운동까지는 잡아가지 아니했다고 한다."

만해 스님은 1913년 <불교대전>을 편찬해 근본불교사상을 전국에 포교하고, 1919년 3 · 1 독립선언문을 수정 <조선 독립의 서>를 집필 한 뒤 3년 징역을 받고, 22년 출옥한 뒤 다시 조선불교청년회 총재로 취임, 1925년 <님의 침묵>을 출간해 저항문학에 앞장섰다.

"(만해 스님이) 서대문형무소에 계실 때 이야기다. 남은 한 끼 한 그릇의 콩밥도 먹지 못하고 옆에서 굶고 있는데, 어떤 부유한 독립지사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감옥에서 구걸하자 6, 7개월 이상을 하루에 한 끼니씩만 드시고 나머지 밥을 그들에게 주어 배고픔을 면하게 하였다 한다. 1944년 심우장을 짓고 이사오니, 이 집이 몇 년이여?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집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배고픔을 못 참고 국수 먹자고 하는 거여. 자 가자고."

"어디로 갑니까?"

"파고다공원으로 가야지."

파고다공원에 오면 한용운 스님 비석 앞에 서서 합장한 뒤,

"이 비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지 알아? 1967년 경봉 스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시비는 백담사에 세웠거든. 1962년 정부에서 건국공로훈장을 받았으나 이 또한 좋아하지 아니했을 꺼야.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뭐가 그리 장하다고 훈장을 받는단 말인가' 하고 말이야."

이렇게 김관호 법사님은 자기 말은 한 마디도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용운 스님 이야기를 하여, 누구나 보면 "한용운 선생 오신다"하고 반겼다. 서울에서 태어나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내고, 불교거사림회 발기자가 되었으나, 절대 상(相)을 내지 않고 오직 국가와 사회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울분 속에서 한 세상을 사신 분이다.

"대쪽보다 곧고 얼음속 보다 맑고 깨끗하신 분/ 법과 질서를 위해서는 잠시도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 천재 손자를 두어 열다섯 살에 미국 대학에 입학시키고/ 이젠 우리도 세계의 두뇌를 가지게 되었다고 자랑하시던 분/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심우장 자랑을 하고 '님의 침묵'을 노래하십니까."

김관호 법사님은 1998년 10월 12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단기출가 참선안거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개산 1주년

단기출가 100일 2009. 11. 26 - 2010. 3. 5 (1차)
단기출가 50일 2009. 12. 19 - 2010. 2. 6 (2차)

지혜란? 복잡한 것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다.

▶ 대상 : 일반인(20 ~ 70세)
▶ 접수 :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www.hwalin.net
▶ 전화 : 1644-5266 /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안성맞춤의 고장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

최상의 지혜, 참선으로 하는 단기출가참선안거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나를 찾는 행복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참선체험

활인선원의 다른 과정

- **행복참선학교** (겨울 100일 - 주말선회)
  - 2009. 11. 26 ~ 2010. 3. 5 동안거 기간
  - 주말(토) 10:30 ~ 16:00 2주, 4주(일) 13:00까지
- **삼매체험 참선단식 수련회** (원명선원과 병행)
  - 2009. 12월말 ~ 1월말
  - 대상 : 일반인 65세까지
    청소년 (고교생, 보호자동행)

일구법문을 듣는 공덕이 천만번 불공보다 뛰어나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3>

환경 파괴는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 훼손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기술시장 검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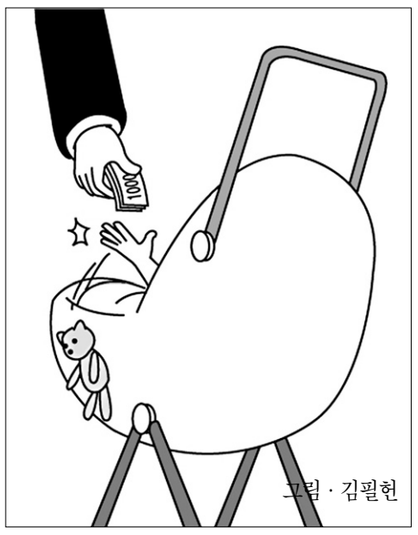
경제성장은 인간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대량생산이나 대량소비가 있고, 원재료나 폐기물의 면에서도 자연자원이나 지구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인간 생활은 자연을 해치고 자연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성립하고 있다. 자연의 자정작용을 넘어선 오염 등 자연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지구 온난화 등을 통한 기후변동을 초래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인류 존망에 관련된 보복으로 즉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가 장래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는 지구환경이 향후에도 온전하게 보전 될 수 있을 것인지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제1보로서 17년 전, 선진국들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모여 200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9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는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같은 목표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25%가까이 늘어났다. 그래서 오는 12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고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 계획이다.

그런데 브라질,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많은 국가들은 미국이 코펜하겐 회의 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어디를 둘러봐도 난제뿐인 코펜하겐회의를 앞두고 상호비방만 난무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환경비용지출이 서로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물론 이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의 기간(Time horizon)을 놓고 보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충관계'에 있다. 즉 일정한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파괴를 계속 야기하는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환경보전을 도외시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대 규모로의 경제성장은 보다 더 큰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는 현재의 1000억 달러 수준의 한국경제에 비하여 2배로 규모가 큰 자원 및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 · 에너지(철광석 등 광물자원,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고갈, 물이나 삼림, 야생 동식물의 감소, 토양 상실에 따른 사막화, 생태계의 파괴 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이산화탄소(CO_2)등의 배출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더한층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유해폐기물의 대량 배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구환경의 오염 · 파괴를 야기하는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벌써 많은


그림 · 김필헌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까지 포함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미래세대가 처하게 될 상황까지 고려하게 되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으려면 환경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는 경제성장, 고갈자원의 수급,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의 균형을 취한다고 하는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환경면에서 장래 세대에 부담을 끼치지 않도록 자원이나 환경보전에 힘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의 소비나 폐기물 처리 등의 면에서 우리 라이프스타일에까지 감안하는 개혁이 필요해진다. 또한 환경에 부담을 끼치는 행위에는 규제와 벌칙을 가하는 제도가 정비되어 기업이나 시민이 환경보호의 의미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의 배출활동에 대한 과세가 되는 탄소세 혹은 쓰레기 회수의 유료화 등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고양에 의해서, 환경보전 대책이나 관련 기술 등이 비즈니스로 성립되고 진흥되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석유,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등 불안정한 국제에너지시장의 흐름은 국내에너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료전지, 소형 열병합, 재생가능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신 에너지기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정책을 통해 소형 열병합과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현상은 선진국들과는 사뭇 다르다.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온실 가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재생에너지 또는 CO_2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의존체제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하는 논란도 있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 각국이 이미 포기하고 있고 오히려 삭감하는 경향조차 있다. 원자력 발전의 신설을 정부계획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이 끈질기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입지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CO_2의 배출은 없다고 해도 과연 친환경적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각종 조치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령, 에너지세의 상승 등도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에너지 소비절감에 대한 절실한 노력이 유발되어 효율적인 경제구조가 구축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㉓ 코치의 과학관2

허달의 불교와 코칭

무의식 세계 접근시 임상적 입증 필요

얼마 전, 중국의 장강 물길 천리, 삼협(三峽) 유람선 관광을 다녀왔다. 상류인 중경(重慶)에서 출발해 삼협댐을 갑문(閘門)으로 통과, 의창(宜昌)까지 내려오는 3박4일의 물길 여행이다. 작고한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이 시도하려다 이루지 못한 '장강 종영(長江 縱泳)'의 꿈길도 아마 이 길이었을 것이다.

유비가 한(漢)의 유업을 잇는 숙업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떨어진 별이 된 백제성(白帝城). 어린 자식들을 제갈공명과 조자룡에게 부탁하는 병석의 유비, 그 눈물 겨운 모습을 탁고당(託孤堂)에 진흙상(泥像)으로 빚어 재현해 놓았다.

내려다 보면 삼협의 첫 번째 구당협(瞿塘峽) 첫 자락의 웅장한 자태가 보인다. 붉은 투구 모양의 적갑산(赤甲山)과 검은 구름머리 오운정(烏雲頂), 두 까마득한 절벽이 버티고 서서 갑작스럽게 비색(否塞)해진 물길을 외다리 귀신이 지키는 문, 기문(夔門)이라고 부른다. 그 사이를 겉으로는 태연한 듯, 빠른 걸음이 되어 흐르는 물길이 바로 구당의 상협(上峽)이 된다. 옛 시인이 구당-웅(雄), 무협(巫峽)-수(秀), 서릉(西陵)-기(奇)로 일컬어 노래하던 바로 그 구당이다. 구당을 이야기 하자니 소동파와 왕안석의 고사를 그저 지나칠 수 없다.

소동파가 사천(四川)의 부친상을 끝내고 물길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의 재상 왕안석이 서신을 보내어 구당 중협(中峽)의 물 한 단지를 떠오도록 부탁했다. 왕안석은 당시 위병을 앓고 있었는데 궁중 의사의 처방이 이 병은 양선차(陽羨茶)라는 차를 달여 마셔야 고칠 수 있는데, 반드시 구당 중협의 물을 사용해 끓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탁을 받은 동파가 구당협을 빠른 배로 지나는데, 웅장한 구당협의 모습에 끌려 이를 완상(玩賞)하다가 중협을 지날 때에는 물 긷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을 해냈을 때는 배가 이미 하협(下峽)에 이르고 있었다. 뱃사공에게 부탁해 배를 돌리려 했으나, 물살 따라 화살처럼 가는 배를 어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수 없이 장강의 물이 상 · 중 · 하협 모두 이어 흐르는 같은 물인데 꼭 중협의 물을 떠가야 할 것이 무엇이랴 스스로 발명하고, 하협의 물 한 단지를 대신 길어 봉하여 왕안석에게 가져가게 되었다.

왕안석이 사의(謝意)를 표한 후 곧 하인에게 단지를 열도록 명해 한 병의 물을 떠서 끓이고 양선차 한 줌을 펴서 끓는 물 속에 넣으니, 차색(茶色)이 반 식경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타났다. 왕안석이 이를 기다려 묻기를, "이 물을 어느 곳에서 떠왔습니까?"

소동파는 부득불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 "중협입니다."

안석이 다시 묻기를, "정말 중협입니까?"

동파는 파탄이 난 것을 알았으나, "예, 중협입니다." 라고 우길 수 밖에 없었다.

왕안석은 머리를 흔들고 기이하게 웃으면서, "이것은 하협의 물이 분명합니다. 자첨(동파의 자)께서는 왜 노부를 속이십니까?"

동파는 깜짝 놀라서 곧 물 긷던 진상을 일일이 말하고 나서, 다시 용기를 내어 묻기를, "제가 우매하여 그러하였으니, 삼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재상께서 어떻게 이것이 하협의 물인지 그 가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왕안석이 솔직한 동파의 사과에 노기를 거두고 말하기를, "구당의 수성(水性)은 <수경보주(水經補註)>라는 책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상협의 수성은 너무 급하고, 하협의 수성은 너무 느슨하니, 오직 중협의 물만이 완급이 반반이라 수성이 중화(中和)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물로 양선차를 끓이면 상협의 맛은 짙고, 하협의 맛은 담담하며, 중협의 맛은 그 사이인데, 차색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반드시 하협의 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 회에서 어줍잖은 과학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는데, 그만 삼천포로 빠져서, 코칭계 일각에서 충분한 임상(?)적 입증 없이 무의식 세계에 무단 접근함으로써 코칭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마쳤었다. 불교 수련 중 자칫 빠지기도 하는 선병(禪病), 무병(巫病)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눈 밝은 선지식들의 노력이 꾸준함에 비해 코치의 윤리강령에서는 코칭과 정신의학, 상담의학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코칭과 종교행위 사이에는 경계 설정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눈에 뜨인다.

나는 위의 고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었다. 어떤가, 코치와 지망생, 고객 여러분은 이 고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배움을 얻은 것이 있겠는가? ■ 한국코칭센터 고문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구단구궁법
※테이프출시
(교재 및 요점 상세히 설명)
⊙ 구궁술로 1분안에 길 흉성패 명운을 꿰뚫는다.
⊙ 타지방에 계신분은 교재와 테이프로 공부可
(교재 및 테이프 가격 30만원)
⊙ 직접래방 개인지도時
(4주완성 수강료 50만원)
⊙ 계좌번호
부산은행 233-12-045334-2 (박옥균)
금어산방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916-7
☎ (051)554-6040
010-8569-5695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혜암 수좌는 나같은 조실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46〉

제11장 한걸음 더3


그림 · 최문정

혜암은 전강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늘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 통도사 극락암 선방에서 정진할 때 경봉에게 들은 전강의 일화가 가끔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경봉은 법문할 때마다 전강의 행장을 소개하곤 했던 것이다.

혜암은 경봉에게 전강을 통도사 보광선원의 조실로 초빙한 얘기도 여러 번 들은 바 있었다. 불도(佛道)의 세계에서는 세속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다. 도력이 비슷하면 세속의 나이를 초월해서 도우(道友)가 되었다. 경봉과 몇 살 아래인 전강의 관계도 도우지간이었다.

혜암은 전강의 행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더불어 전강의 법문을 직접 들은 것처럼 절절하게 음미하곤 했다.

黃鶯上樹一枝花요
白鷺下田千點雪이로다.

주장자를 들어서 대중에게 보인 도리는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오르니 한 떨기 꽃이요’ 법상을 친 도리는 ‘백로가 밭에 내리니 천 점의 눈이니라.’

또 주장자를 들었다가 법상을 치고 이르되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 개는 흙덩이를 쫓는다.’ 했으니 그만하면 알 것이지 거기에다 또 무엇을 첨부해 말한 것인가.

그러나 알수록 그 허물이 많고, 우리 중생의 알음알이가 모르는 것보다 더 허물이 많아 법문을 듣고 알음알이를 내는 학자(學者)에게는 방(棒)을 내릴 것이니라. 아무리 알아 보았자 분별식으로 아는 것은 번뇌 망상만 더하고, 차라리 모르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알음알이가 없느니라.

우리 중생들은 분별망상 때문에 생사고(生死苦)를 받느니라. 그러니 아는 것이 모두 망상이고 업(業)인데, 이런 소견으로 법문을 들어보았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한 방망이요, 아는 것은 두 방망이라 하느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언하(言下)에 도인은 마음을 취하고, 범부는 경계를 취하니라. 또 사자는 짐승 중의 왕이니 흙덩이를 던지면 사람을 물고 개는 흙덩이를 쫓는다. 도인은 마음을 취한다고 하니 어떤 것이 마음인가, 마음을 쫓아 들어가도 마음이 아니며, 부처도 아니며, 모든 색상이 끊어진 자리인데 어떤 것을 마음이라 할 것인가.

도인이나 사자도 색견과 상견(色見相見)에 떨어지거늘, 하물며 경계를 취하고 흙덩이를 쫓나니 그 얼마나 어긋난 일인가. 우리 불법의 해탈도리(解脫道理)는 부처와 부처가 서로 보지 못하며, 천성(千聖)도 알지 못하였고,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생사 없는 근본당처(根本當處)에 들어가서는 무일물(無一物)이니 유일물(有一物)이니 하여도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일러야 하겠는가. 이 생사 해탈법이 언하에 있는 것인데, 언하를 여의고는 참으로 얻기 어려우니 언하에 대오(大悟)해야 하느니라. 즉, 법문을 듣다가 깨닫는다는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서울 선학원에서 만공스님과 용성스님 두 선지식이 서로 법담을 하시게 되었다.

용성스님이 만공스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묵동정(語默動靜)을 여의고 이르시오.” 하시니 만공스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계셨다.

그러자 용성스님은 만공 스님에게 “양구(良久; 침묵)를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만공스님의 대답이 “아니오.”라고 하셨다.

이 법거량의 내용을 들은 나는 용성스님을 뵙고 “두 큰스님께서는 서로 멱살을 쥐고 흙탕에 들어간 격입니다.” 하니 용성스님께서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물어서, 내가 “스님께서 한번 물어 주십시오.” 하였더니 용성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묵동정을 여의고 일러라.” 하셨다. 내가 대답하기를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라는 말씀입니까.”하니 용성스님은 “옳다. 옳다.”하시었다.

불법이란 이렇게 한 번 방망이를 업고 들어가서 뒤집고 살아가는 도리이니라. 근세 한국불교에 있어서 선의 중흥조이신 경허 대선사의 오도송(悟道頌)을 한 번 말하여 보겠다.

忽聞人語無鼻孔하고
頓覺三千是我家로다
六月燕巖山下路에
野人無事太平歌로다.

홀연히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유월의 연암산 아랫길에
들사람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한번 방(棒)을 쓰고 들어가는 법이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후, 일곱 걸음을 걸으신 뒤 사방을 돌아보시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기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하셨는데 그 후 운문선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당시에 만약 보았더라면 한 방망이로 타살하여 개에게 주어 천하를 태평케 했으리라.”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운문끽구자(雲門喫狗子)’라고 하는 선문중(禪門中)의 ‘척사현정(斥邪顯正)’ 공안이다.

나도 경허 큰스님의 오도송에 대하여 일방(一棒)을 쓰고 한마디 하겠느니라. 우리 선가(禪家)에는 참선해서 견성하는 법을 소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 있는데, 만약 중이 시주의 은혜만 지고 도를 닦아 해탈하지 못하면 필경 죽어서 소밖에 될 것이 없다는 말을 어떤 처사가 듣고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만 되어라.”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경허 큰스님은 언하에 대오하였다.

유마경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문수보살은 말로써 이를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유마거사는 묵묵히 말이 없음으로써 이르니 유마거사야말로 불이법문을 가장 잘 설했다고 찬탄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 도는 승속에 관계없는 것이니라.

경허 큰스님은 단 한마디 ‘소 콧구멍 없다’는 언하에 대오하였으니라. 견성하여 생사해탈법을 얻어 삼천세계가 그대로 나의 집인 줄 깨달았으니 무슨 일이 있으리오.

‘유월의 연암산 아랫길에 야인이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참으로 훌륭하고 거룩한 오도송이라고 여러 큰스님들이 모여서 찬탄하시기에 나는 경허 큰 스님의 제자 보월스님 앞에서 직접 말하였다.

“무비공(無鼻孔)에는 없다(無)는 허물이 있고, 돈각시아가(頓覺是我家)에는 깨달았다는 각견(覺見)의 허물이 있으니, 이런 것이 붙어서 생사묘법(生死妙法)을 못 보고 또 제구 백정식(白淨識)을 못 건너가게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곳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니 학자를 바로 지시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보월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참 공연히 말을 제멋대로 하네.” 하셨다.

그때 만공스님께서 “그러면 자네가 한번 일러보소.” 하셨다. “예, 참, 저보고 일러 보라고 하시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천하에 없는 해탈 보배를 바로 주신들 그 위에 더 반갑겠습니까. 큰스님께서 한번 청하여 주십시오.” 하니 만공스님께서 물으시기를 “그러면 경허 큰스님의 ‘무비공 도리’나, ‘각견 도리’나 ‘무사태평가 도리’를 어디 한번 제쳐 버리고 일러 보소” 하시었다.

내가 말하기를 “ ‘유월연암산하로’까지는 경허 큰스님이 송하신대로 두고, 제가 외람되지만 큰스님 송의 끝구절 ‘야인무사태평가 도리’만 이르겠습니다.” 하고서 농부가를 부르듯이 “여여 여여로 상사뒤여.” 라고 일렀다.

그랬더니 만공스님이 있다가 “아, 이 사람아 노래를 부르는가. 여여로 상사뒤여가 노래가 아닌가, 노래를 부르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시었다. 그래서 나는 “스님이 제청하시면 다시 한 번 이르지요.” 하고는 보기 좋게 춤을 추면서 곡조를 부쳐서 다시 “여여 여여로 상사뒤여.” 하니 “적자 가운데 농손(嫡子弄孫)일세.”라고 만공 스님이 점검하셨다.

마침내 혜암은 인천 용화사에 이르렀다. 그 무렵 전강은 용화사 법보선원 조실로서 찾아온 선객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암은 곧장 조실채로 올라가 인사를 드렸다. 전강은 혜암을 전라도 곡성의 구수한 사투리로 반갑게 맞았다.

“얼릉 오시게.”

“스님 회상에서 정진하러 왔습니다.”

“잘 왔당께. 자네가 선덕(禪德)을 맡아줄랑가.”

전강은 한 번도 같이 정진해 본 적이 없는 혜암에게 선덕 소임을 맡겼다. 그만큼 혜암의 선기(禪機)가 빼어남을 이미 알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혜암은 하안거 동안 전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혜암의 정진은 한결같았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좌식(一坐食)에다 눕지 않는 장좌불와의 두타행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다. 대중공양이 들어와 모든 대중이 별미를 즐기는 날에도 혜암은 어울리지 않고 동떨어졌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밤중에도 좌선을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었다.

용화사 선원의 대중이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도 혜암의 한결같은 정진에 재발심을 하고 신심을 냈다. 반살림이 지나면서부터 느슨해졌던 선방 분위기가 사뭇 팽팽해졌다. 어느 새 좌선 중에 졸던 사람도 저절로 없어지고 요령을 피우려던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대중의 눈빛이 가을 논물처럼 맑아지고 허리가 작대기처럼 꼿꼿해졌다.

전강은 혜암이 선방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믿고 고마워했다. 전강이 대중에게 즐겨 주는 화두는 ‘어떤 것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의 물음에 조주선사가 ‘앞니에 곰팡이가 생겼느니라(板齒生毛).’고 답한 것이었다.

혜암은 전강과 선문답을 자유자재로 했다. 서로가 어떤 때는 할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침묵과 미소로 마음을 전했다. 전강은 법문 중에 대중들에게 말했다.

“혜암 수좌는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자 전강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암은 나같은 조실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이다.”

대중들이 몹시 놀랐지만 전강은 그런 반응에 개의치 않고 혜암을 수시로 조실채로 불러 차를 마시며 격려했다.

“혜암 수좌, 불편한 점은 없는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디.”

“대중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조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겨.”

“지나친 칭찬이십니다.”

혜암은 마음속으로 전강의 칭찬을 부담스러워했다. 대중 가운데 일부가 혜암을 가리켜 전강 못지않은 도인이라고 수군댔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혜암이었으므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다.

혜암은 산중암자를 떠난 자신을 자책했다. 지리산 상무주암과 문수암에서 그랬듯 다시 자신을 누에고치처럼 가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혜암은 하안거 해제 전날에 전강 회상을 떠나기로 했다. 그리하여 해인사 퇴설당에서 적명(寂明), 현우(玄宇), 일타(日陀) 등과 3년 결사로 자신을 담금질하기로 했다. 자신을 가두는 보임(保任)이 광대무변한 법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계속〉

혜암의 선기가 빼어남 알고 전강은 선덕 소임 맡겨

한결같은 정진에 느슨하던 선방은 사뭇 팽팽

해인사 퇴설당에서 3년 결사로 담금질 다짐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보리심 발해 삼계에 초연하면 심출가"

정암 스님, 세상 속에서 불이선(不二禪) 닦는 '재가수행' 펴내



"만약 얽매임(繫)이 있으면 이것은 아직 출가한 것이 아니다. 일체의 모든 것으로부터 집착하는 바 없으면 이것이 진정한 출가이다. 만약 무상(無上)의 도심(道心)을 발해서 마음이 삼계(三界)에 초연하면 모습(形)이 비록 매이는 바 있어도 이것은 진정한 출가이다. 비록 재가수행자이지만 능히 무상심(無上心)을 발하면 이것이 곧 출가이고 구족계를 받은 것이니라."(승조 대사 '유마경주')

승조 대사는 아직도 무엇인가에 얽매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출가수행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밖으로부터의 얽매임은 사물과의 반연에서 생긴 얽매임으로 주로 정(情)에 기인한 사람관계의 얽매임을 뜻한다. 안으로부터의 얽매임은 자기 내면의 오음(五陰)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인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으로부터 속박된 것이다.

이러한 오음이 무상하다는 이치를 확실히 체득했을 때 몸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승조 대사는 몸과 사물, 경계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을 때가 진정한 출가라고 밝히고 있다. 무상도심 즉, 보리심(菩提心)을 발해서 마음이 삼계에 초연하면 비록 얽매임이 있어도 진정한 출가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법을 펴고 있는 정암 스님이 재가불자들의 '심출가(心出家)'를 안내하는 책 <재가수행>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정암 스님은 가정과 직장, 사찰을 오가며 수행하는 재가자도 대도(大道)를 성취해 자재한 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이치를 승조 대사의 <유마경> 주석, 부 대사의 어록, 혜능 대사의 <육조단경> 법문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道)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의 의미와 수행자의 본래면목인 법신(法身)과의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승조 대사, 지자 대사, 길장 대사, 전등 대사의 <유마경> 주석을 소개하고 있다.

정암 스님은 "모든 반연과의 인연에서 벗어난 것이 심출가"라면서 "진정한 수행자에게는 세상사로부터의 시달림도 없고 생사와 열반이란 분별심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스님은 "불도의 성취는 본성(本性)을 일깨움에 있다"며 "재가수행자도 굳은 신심과 올바른 견해, 겸허한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암 스님은 서문에서 "선지식과 경전이 자신의 스승과 길잡이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수행자가 무엇인가에 미혹되어 우주법계에 펼쳐져 있는 가르침과 상응하는 법연(法緣)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유마 거사님처럼 세간에 머물면서 출세간의 이치와 계합된 불이선경(不二禪境)에 노니는 재가수행자가 출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8세에 동진출가한 정암 스님은 국내와 중국의 제방 선지식을 친견하며 정진했으며, <유마경과 육조단경 연구>로 북경대 석사학위를, <승조의 유마경 불이사상 연구>로 북경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겨울 <유마경>을 보면서 문득 불이선경에 계합되었다는 스님은 <유마경>의 불이(不二)정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을 발원하고 한중 양국에서 전법에 매진하고 있다.

재가수행 | 정암 저 | 하늘북 | 1만 2000원

김성우 기자



정암 스님.

"있는 그대로 완전하니 물들지만 말라"

장영섭 기자, 조사선 공부법 '공부하지 마라' 펴내



"도(道)는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닦아서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닦아 이루어 놓은 것은 곧 다시 무너져 내리고 만다."(마조 어록)

선사들은 사람들에게 도가 무엇이니, 부처가 무엇이니 하며 진리의 뜻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공부가 순탄치 않아 좌절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깨닫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고 격려하곤 한다. 선사들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가르칠 것이 없으며,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하니 물들지만 말라는 것이었다. 오로지 수행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뿐….

세상의 공부법이 채우기 위해 찾고 구하는 것이라면, 출세간의 공부는 비우기 위해 버리는 공부, 아니 공부라는 말 조차 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사선의 이른 바, '닦는 바 없이 닦는다(無修之修)'고 하는 무념(無念)의 공부가 이것이다. 불교신문 장영섭 기자가 쓴 <공부하지 마라>는 선사 스님들의 닦는 바 없이 닦는, 비우고 쉬고 버리는 마음공부에 대해 흥미롭게 풀이하고 있다. 초조 보리달마 스님으로부터 마조도일, 임제의현, 조주종심 … 퇴옹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단박 깨침의 순간과 역동적인 수행 일화, 어록 등을 구성진 입담으로 풀어냈다.

공부하지 마라 | 장영섭 지음 | 조계종출판사 | 1만원

김성우 기자

맛지마니까야 개정판 빠알리대장경

한국빠알리성전협회(대표 전재성)는 빠알리대장경 <맛지마니까야>(중아함경) 전집 5권(완간 2003년 11월)의 초판을 정밀하게 교정보완하고 주석과 인덱스를 다시 달아 한 권으로 개정 출판했다. 이번 책은 색인에서 고유명사를 비롯해 각종 비유나 법수(法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 학문연구나 설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편집됐다. 166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책은 예전의 전집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가격도 저렴해졌다.

맛지마니까야 | 전재성 역주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12만원

김성우 기자

음악과 함께하는 낭독회 2009 마음의숲 북콘서트

도서출판 '마음의 숲'은 12월 2일 오후 7시 조계사 전통공연장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낭독회 '2009 마음의숲 북콘서트'를 연다. 주경 스님의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 출간 기념도 겸한 이날 북콘서트에는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의 저자 성전 스님과 <느림보 마음>의 저자 불교방송 문태준 PD 등이 직접 책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수 김현성의 노래와 성악 공연, 독자와의 책에 대한 진솔한 대담과 도서 사인회 등도 진행된다. (02)322-3165

노덕현 기자

과거 · 미래 벗어나 지금 행복한 바보 되자

주경 스님, 11년간 산사 · 세간을 오가며 느낀 깨달음 녹아있어



"죽음으로 삶의 고통을 끝내려는 모든 이들에게 고합니다.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네 삶 속에 유행처럼 번진 '자살'.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인해 죽음으로 삶의 고(苦)를 피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그 고통을 당당히 맞서 이길 것을 전하는 삶의 지침서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 사진)은 이 생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므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부딪히고 그 아픔을 껴안아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의 에세이집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하루하루가 좋은날 이라는 선문답)'에 대한 글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이 무조건 행복입니다'로 이어진다. 부석사 새벽예불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틈틈이 메모한 일상의 단상에서 스님은 '행복의 법칙'을 설한다. 스님은 행복의 제1법칙으로 '바보가 되라'를 주문한다. 행복한 바보론이다.

주경 스님은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때 그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자" 당부한다.

부석사 주지 소임을 맡아 아이들 넷을 키우며 '아빠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은 지도 8년째. 주경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대중교화의 최일선에서 뛰어왔다. 현재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치고 있다.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 계속됩니다 | 주경 지음 | 마음의숲 | 1만 2000원 노덕현 기자

중국 대표 발효차 '보이차' 제대로 알기



우리 이상을 지배하는 차가 커피라면, 최근 10여 년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발효차는 보이차(普洱茶: 중국 발음으로는 '푸얼차')다. 중국 운남성의 보이부(普洱府)가 차의 집산지 역할을 한 데서 유래한 보이차는 맛이 온화하고 자극이 덜해 채식을 하거나 위장이 약한 이들도 즐겨 마실 수 있는 음료이다. 청나라 때 황실의 총애를 받기도 한 이 차는 현대에 들어 광동성, 홍콩, 대만에서 널리 마시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 본토에서도 새롭게 인식되어 골동품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보이차에 대한 정보를 함축적이고 간략하게 담아낸 책 <보이차 수첩>이 나왔다. 보이차에 대한 설명과 역사를 비롯해 꼭 알아야 할 정보나 상식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보이차를 제대로 알고 즐기기 위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아 실용성이 높은 책이다.

보이차 수첩 | 글을읽다 엮음 | 글을읽다 | 95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	한마음선원
2	사는 즐거움	보경	뜰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부처되는 공부	우학	뜰
5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6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7	미안하지만 다음생에 계속됩니다	주경	마음의 숲
8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9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혜담	불광출판사
10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김상백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신간! 선문염송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닦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법공양

황토삼백초는 튼튼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신종 플루가 걱정되는 지금
황토삼백초가 내 곁에 있어 좋다!!

삼백초는 항암과 성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멸종의 수난을 겪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 177호입니다.

(주)천둥소리에서 국내 최초로 대량 재배에 성공한 귀한 식물입니다.



◆ 황토삼백초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은 발효대사과정에서 중금속, 독성물질, 잔류농약 등을 무력화시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황토삼백초 제품이나 차를 꾸준히 드시면 힘이 넘칩니다. (차, 환, 추출액, 발효원액 등)

참고문헌 : 삼백초 건강법, 삼백초 효소건강법, 증약대사전, 당본초, 영남채약록

☎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 본사 (055)945-2976, 2676, 2679
· 대구지사 010-2531-4785 / 인천지사 011-336-5843
· 서울지사 010-3119-1911

황토삼백초는 (주)천둥소리의 등록상표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세계의 등 서울의 밤 밝히다

세계등축제 청계천서 열려… 한류 등 4개 테마


11~15일 청계천 광통교 주변 '원류존'에 설치된 등.

세계의 등들이 서울의 밤을 환상적인 빛으로 수 놓았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2010-2012 한국방문의해-서울과 함께'의 연계 행사인 '세계등축제(Seoul Lantern Festival)'가 11월 11~15일 청계천(청계광장~삼일교)에서 열렸다.

'류(流)'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11월 11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펼쳐진 '2010-2012 한국방문의해-서울과 함께' 개막식의 점등식을 통해 5일간 서울의 밤을 밝혔다.

'교류(交流)존' '원류(遠流)존' '한류(韓流)존' '일류(一流)존'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이번 축제는 세계 20여 개국에서 공수해온 다양한 등이 청계천 물줄기를 따라 빛을 밝혔다.

한마음선원, 조계사, 부산연등축제, 진각종 등 불교를 대표하는 국내 등과 더불어 일본의 대나무등, 우산등, 중국의 연꽃사각등, 대만 가오슝의 관제묘등이 참여했다. 그밖에도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전통문화등과 설화 및 전설의 동물등 · 한류열풍을 일으킨 한류스타의 캐릭터등 · IT강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디자인등 등 다채로운 등들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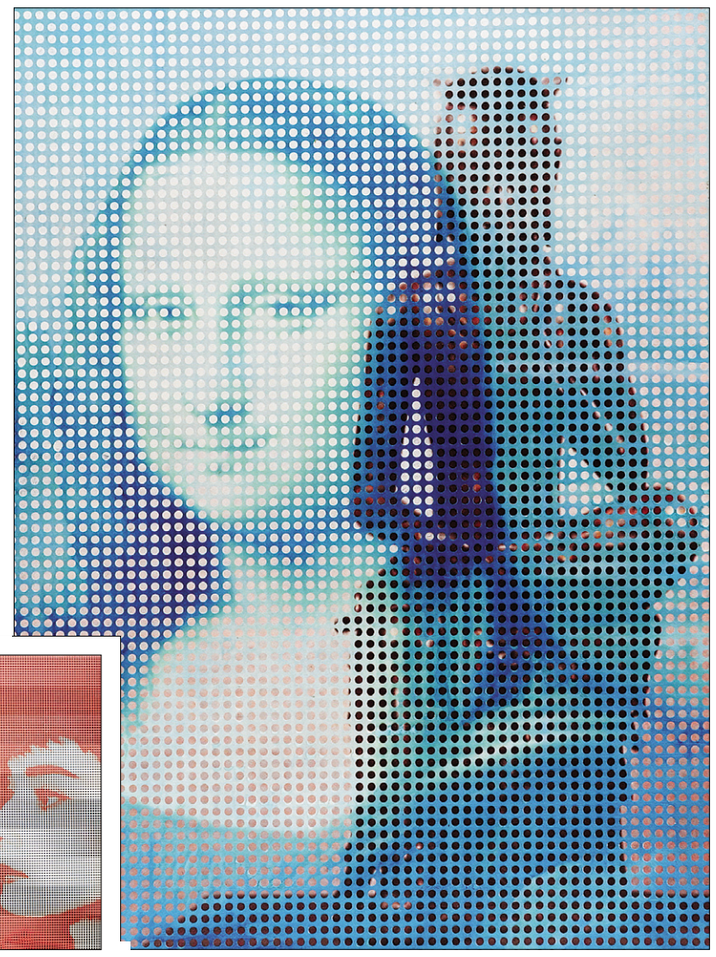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을 보면 야경이 뛰어난 곳들이 많다"며 "이번 '세계등축제'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이미지로 인상 깊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화려한 등과 더불어 소망등 만들기, 유등체험행사, 문화공연 및 이색퍼포먼스 등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은정 기자

동양과 서양, 이미지로 초우하다

모나리자 · 반가사유상 미소 한 자리에
28일까지 필립강갤러리서 김중식 개인전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중식 작가의 작품 '모나리자와 반가여래' '마주보는 오드리 햅번' '마릴린 먼로와 백자병'.

동서양의 미소를 대표하는 모나리자와 반가사유상 두 이미지가 만났다. 수려한 몸매로 심플한 절제미의 극치를 보이는 조선 백자는 현대적 섹시 아이콘인 마릴린 먼로와 어울렸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들이 만나 영산회상을 이룬 김중식(48) 작가의 개인전이 11월 28일까지 서울 신사동 필립강갤러리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사람과 물질을 융합시켜 색다른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김중식 작가는 프랑스국립학교를 졸업하고 파리와 국내를 오가며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해왔다. 그런 김중식 작가의 이번 전시는 '이중주의 하모니'다. 전시 제목처럼 그의 작품은 여러 음표가 만나 하나의 음악이 되는 것처럼 대비되는 이미지가 만나 제3의 이미지로 태어난다.

전시 대표작 '마주보는 오드리 햅번'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오드리 햅번과 또 하나의 익숙한 그림이 함께 배치돼 있다. 바로 반가사유상이다.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쉽게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동 · 서양의 이미지를 함께 작품에 등장시켰습니다."

반가사유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오드리 햅번의 모습은 의외로 낯설지 않다. 작품속 오드리 햅번의 눈빛은 신심 가득한 불자들의 눈빛만큼이나 따스하게 느껴진다.

김중식 작가는 "이러한 시도가 작년 파리 전시회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을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대비되는 두 이미지가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김중식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업 기법 때문이다. 캔버스에 이미지를 그린 후 구멍(dot) 뚫린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다른 이미지를 그린 후 종이를 떼어내면 구멍 뚫린 부분만 이미지가 남게 돼 독특한 시각적 세계를 보여준다.

이런 독창적인 그만의 기법과 어울려 탄생된 새로운 이미지는 팝(pop)적인 느낌이 강해 또 다른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작품에 등장하는 원(dot)은 공, 우주, 해, 달, 별, 세상을 상징하고 눈과 렌즈 같은 시각장치를 상징하기도 하죠. 원은 자동성,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어 긍정과 옳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원 속에 모든 사물과 움직임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둥근 원을 보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교에서의 '원'은 선의 안과 밖을 분별하지 않는 절대적인 크기다. 중국 선종의 3조 승찬 스님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융하고 장애가 없어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고 말했다. 김중식 작가의 작품에는 오드리 햅번, 마릴린 먼로 같은 섹시(sexy)로 표현되는 세속적 아름다움과 모나리자 · 반가사유상 · 백자 등 전통적 아름다움이 차별을 여의고 혼재해 있다.

김중식 작가는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 다양한 모습을 작품에 담고 싶었다"며 "떠돌다 만난 형상, 집합체, 생명, 움직임 그 자체가 나의 그림이며, 그런 원 속에 담긴 그림들은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둥근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무상의 깨달음을 말해주는 김중식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조화와 관용의 미를 이번 전시를 통해 느껴보자. (02)517-9014~5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송헌 전기만 문도 불교조각전 열어

12월 1일까지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전기만 선생이 11월 18일~12월 1일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승전 및 제1회 송헌 전기만 문도 불교 조각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전기만 선생의 석가 삼존불과 선생의 이수자 및 전수생 16인이 16나한상을 제작해 조선시대 전통 불교 목조각 양식의 진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제자들의 개별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석정 스님은 전기만 선생의 작품에 대해 "전기만은 오랫동안 조각기술을 연마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오한 경지에 도달했다"며 "그의 불상(佛像)은 전문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보면 거룩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기만 선생은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심으로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선생의 전공은 조선조 불상으로, 조선 불상의 특징은 서민적인 미(美)를 자랑한다.

이번 전시는 홍시처럼 무르익은 전기만 선생의 작품과 전통문화 계승에 주력하는 제자들의 작품을 현대적 정서로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자리로서 한국 불교조각의 다채로운 면모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02)3011-2163

이은정 기자

조영근 선생 고희음악회 개최

21일 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서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25년간 음성공양을 해온 불교 원로음악인 조영근 선생이 11월 21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고희음악회를 개최한다.

학림사, 석림사, 보광사, 법장사 합창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는 조영근 선생이 발표한 창작찬불가를 엄선해 공연할 예정이다.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박소림, 테너 한정일 등이 학림사, 석림사, 보광사, 법장사 합창단과 함께 출연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조영근 선생은 고희음악회 공연에 앞서 "결코 짧지 않은 25년이라는 세월동안 불교음악을 위해 열심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불교음악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서 이번 고희음악회를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3 밥은 현재-미장원 편<2>

미장원 언니들과 함께 한 행복한 만찬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소원 하나를 이뤘다. 그 소원인 즉은 '미장원에서 파마하면서 밥시켜먹기'다. 굳이 소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언젠가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였는데, 모처럼 단골미장원에 들렀다가 운 좋게도 밥 때를 놓친 미장원의 쥔장 신 언니와 김 언니 틈에 끼어 덩달아 음식을 주문하게 됐다. 손님도 없는 한가한 시간에 미장원 한쪽에 설치된 케이블TV에서는 누가 보던지 말든지 일일드라마 재방송이 한창이고, 테이블 위로는 각자 주문한 참치김치찌개와 떡볶이와 오징어라면이 기대 이하로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은 자태를 하고는 차려졌다. 선뜻 수저를 들기가 망설여지던 차에 떡볶이를 먼저 시식한 김언니가 "완전 소태다 소태!"라며 소감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참치김치찌개에는 우째 참치는 읍다. 이 근처 식당들이 하나같이 이렇다니까. 어째 라면도 멀개가 맹탕으로 보이는데…."

참치의 흔적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는 참치김치찌개를 수저로 휘휘 젓던 신 언니가 내가 주문한 오징어라면에 눈길을 던져 한 마디 건넨다. 라면이야 그다지 솜씨를 타는 음식도 아닌지라 마음을 놓고 있던 터에 다소 긴장이 되어 서너 가닥을 건져 입에 넣으니 신 언니의 추측이 여지없이 들어맞았다. 음식의 맛보다는 미장원에서 음식을 시켜먹는다는 행위에 의미를 두었던 터라 웬만하면 맛있게 먹어줄 용의가 있었는데, 허멀건 국물에 불을 대로 불은 면발을 건져 입에 넣을수록 입맛은 멀찍이 달아나고 그 묘한 맛의 비법에 의문까지 일었다.

TV에서는 드라마 재방영이 끝나고 뉴스로 이어져, 도심 야외수영장에 멧돼지 두 마리가 출현해 사살했다는 전갈을 보내오고, 단정한 차림새의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할 즈음엔 불어터진 라면도, 짜디짠 떡볶이도, 참치건더기는 오간 데 없는 참치김치찌개도 그 양이 꾸역꾸역 줄여들고 있었다.



미장원에서 시켜먹은 떡볶이.

"아이, 정말 못 먹겠다.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는 잘 하겠다. 우리 이제 웬만하면 시켜먹지 말자."

떡볶이를 밥 삼아 먹을 만큼 '떡볶이 귀신'으로 통한다는 김 언니의 불만이 극에 달할 무렵, 좀 전까지도 똘박한 목소리로 세상만사 일들을 들려주던 TV속 아나운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점잖은 남자 진행자가 인간사의 부조리한 일을 파헤치기 위해 근엄한 목소리로 사건현장을 안내한다. 미장원의 두 언니와 최악의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펼쳐져 돌아가고, 그새 내 머리는 방금 전까지 뱃속으로 꾸겨 넣었던 라면가락처럼 뽀글뽀글해졌다.

"먹긴 먹었는데 먹은 거 같지도 않고 억수로 허전하네. 언니야, 좀 있다 군것질이나 하자."

"난 안하고 싶다. 살 빼야 된다아이가.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안 된다."

"뭐야 혼자만 살겠다는 게야. 같이 죽자~."

때론 간드러지고 때론 박력 넘치는 경상도 여인들의 매력적인 수다를 뒤로 하고 미장원 밖을 나섰다. 두 언니의 수다처럼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배추를 한 아름 싣고 지나가는 트럭의 확성기에서는 배추가 실하다며 풍요로운 시절 소식을 알리고, 미장원 옆 곱창집에서는 영업 준비를 위해 부산스럽다. 현실이 아닌 과거에 머물고 있는 내 감각이 '나는 왜 현실에 머물지 못할까?'라는 풀지 못한 의문을 떠안고 주변을 탐색해간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껴본다. 오늘 모 야외수영장에서는 멧돼지 두 마리가 사살됐고 내일 일기는 '맑음'이렷다. 라면 맛은 맹탕이었을망정 미장원에서 밥을 시켜먹어 본 감회로 내 배는 지금 그럭저럭 행복하고, 라면발을 닮은 내 머리가 발걸음에 맞춰 경쾌하게도 나부낀다. 하지만 이렇게 애써 인지한 모든 사실과 느낌도 이미 바람 따라 흘러간 과거의 일 이었으니, 나는 왜 현실에 머물러있지 못할까? 나는 왜 행복해도 행복하지 못한 걸까?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2 보약의 복용시기

겨울보약 먹어두면 호랑이도 잡는다

보약은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 봄의 보약은 면역력을 증진한다. 여름의 보약은 스태미너를 회복한다. 가을의 보약은 피로를 제거한다. 겨울의 보약은 근원을 보충한다. 겨울철에 보약을 먹어두면 봄이 되어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는 중국속담이 있다. 겨울은 저장의 계절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기 소모가 생기고 난 후의 충전시기이다.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충전했는지가 그 다음해의 건강을 결정한다.

#네 가지 종류의 보약

보약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보기약(補氣藥), 보혈약(補血藥), 보음약(補陰藥), 보양약(補陽藥)이다.

첫째, 기(氣)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하고 입맛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고 자주 설사하는 증상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경우에 백출, 산약과 같이 기를 북돋아주는 한약을 먹으면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사군자탕, 보중익기탕이 있다.

둘째, 혈(血)이 부족하면 안색이 노랗고 창백하며 여성의 경우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이같은 경우에 당귀, 숙지황 등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을 먹으면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처방으로 사물탕, 당귀보혈단이 있다.

셋째, 음기(陰氣)가 부족하면 몸이 마르고 입이 바싹바싹 타며 피부가 건조하고 기침을 하며 안면에 홍조증상 등이 있다. 이같은 경우에 산수유, 천문동 등이 부족한 음기를 채워주고 신기(腎氣)를 보충한다. 대표적인 처방으로 육미지황탕, 오자환 등이 있다.

넷째, 양기(陽氣)가 부족하면 추위를 많이 느끼고 하체가 시리고 새벽에 잠이 깨며 정력이 약해진다. 이런 경우에 양기를 북돋아주는 부자, 황기와 같이 양기를 일으키는 약재가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처방으로 부자이중탕, 팔진대보탕이 있다.

#연령별 보약

연령별로도 보충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유년시절에는 성장과 총명이 중요하다. 뼈와 근육이 발달하고 뇌발육이 증대되는 식생활과 보약이 필요하다.

중년기에는 만성질환이 하나 둘 정도 있으며 장기능이 약해져 식적(食積)이 생기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몸속의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장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식생활과 보약이 필요하다.

노년기에는 몸의 근본인 신장의 기가 약해지므로 자음강양(滋陰强養)을 하는 식생활과 보약이 필요하다. 자음강양은 약해진 하체의 음기를 보충하고 전반적인 기의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노화는 상체가 구부러지고 하체가 빈약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하체 대퇴부의 근육이 튼튼하면 백이십세 장수를 할 수 있다.

#보약을 복용할 때의 주의사항

1. 녹두는 약효를 감소시킨다.
녹두는 해독작용을 하므로 보약의 작용을 해소시킨다. 그래서 녹두를 삼가한다.
2. 숙지황을 먹을 때 무를 먹지 않는다.
흰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숙지황의 보하는 성질과 무의 서늘한 성질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제로 흰머리가 되지는 않는다.
3. 기름기 있는 육류를 피한다.
기름기는 장에서의 보약 흡수를 방해한다. 그래서 보약을 먹을 때 기름기 있는 육류는 삼가한다.
4. 커피, 차와 같은 카페인음료는 보약의 성질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5. 음주는 당연히 삼가한다. 간이 피로하면 보약의 작용이 약해진다.
6. 적당한 산책은 기를 활발하게 하여 보약의 작용을 상승시킨다.
7.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8. 저녁을 적게 먹으면 뇌와 장기능이 활발해져 보약의 효과가 증진된다.

한양방센터삶 대표원장 이경제 (02-576-7575)



올해 고봉스님이 수행하면서 직접 재배한 **당조고추**, **청정지역**에서 자란 향과 맛이 뛰어난 **사과**

당조고추를 구입해 주신 대덕 큰스님과 불자님,
그리고 소승이 농사 짓는 이곳 군위군 소보면 까지 오셔서
격려를 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지면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생명있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하시던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와 농사 짓는 수행속에 가을의 추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재배한 당뇨와 성인병예방에 좋은 당조고추를 풋고추로써의 판매를 마무리 하고 홍조를 건조시켜 김장용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과중에 제일 향 좋고 맛 좋은 사과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토원을 찾아주시는 불자님과 대중들이 직접 땀 흘리며 재배한 농산물을 여러 불자님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지면으로 소식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원에서 재배한 농산물

1. 사과 1,000상자
2. 당조고추(고추가루) 500근
3. 홍화씨
4. 배추, 고사리, 고구마
5. 쌀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번지 054)383-0407, 010-2750-4394

정 토 원 주지 고봉 합장

사 람 을 찾 습 니 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사진의 사람을 찾습니다.

- 촬영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9일 동대문 우체국
- 신체특징 : 1. 키 180cm정도의 건강한 체격
  2. 짧은 머리
  3. 좌측 뺨에 적갈색 큰 반점
- 제보 :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전화 02-2011-1838 / Mail : 1998060801@buddhism.or.kr
  ※기타 :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은 소정의 사례를 함.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빼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불상 • 탱화

아주 저렴하게 판매
사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께만
판매합니다. 소량만 주문 제작해
드리므로 불교용품점에서도 판매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불단 제작도 해 드립니다
043)857-1259

유럽을 석권하다!!

히말라야 氣 명상 밀법
세계 최초, 온라인 大 공개
(일 만년, 대 우주 황제 수련 밀법)
인터넷 검색어 : 삼봉종
문의 : 041)547-3707
E-mail : djkcom@naver.com
공식 홈페이지: www.777djk.com
온라인 강의실: www.ivictory.net
사) 삼봉종 불교 대학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불자 국제결혼

- 국내/ 국제 초혼, 재혼
- 일본 45세 여성 이하 무료
- 미국 영주권 취득

이너머스웨이브
대표전화 070)8813-2265
담당 010-6310-2093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0-3045-0085

스님 되실 분 (약간 00명)

- 단기출가 교육원
- 종단, 사찰 등록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교리, 법음범패, 역학교육
- 법사 교육반 있음(보살 포함)

천태불원 승가원 대구 구성사
053)629-4916
010-8789-1399

참 좋은 명리학

명리학자 금당 이종수
(3대 복심법 명리학
선종 학파 이수자)
부산광역시 동구 동광동 5가
1-7 인쇄골목 2길.
010-5015-7175
명리학 상담가능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정부정책,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가상태, 만물 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과는 무궁
016-606-5658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서울에서 50분 거리.
산세 좋은 명당. 2만 5천여평에
대작 불사를 하고 있는 사찰 입니다
(현재 80%이상 완공중에 있음)
대작 불사에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실
화주 보살님이나 포교하실 보살님을
모시고져 합니다.
주지 스님 직접 상담
010-9240-0529

덕유산 산하
암자에서 기도하며
지낼 40-50대
비구니 스님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스님 구합니다.
017-569-372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54)777-2796
010-5096-5078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비구입니다.

010-8677-12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지역, 50-60대
010-7139-8631
010-9127-633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경남 양산 신불정사 (창건사찰)

- 사무장(女, 유경험자)
- 법당보살, 공양주 (부부도 가능) 모집

전화 055)388-3456~7
팩스 055)388-3458
010-3599-3124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건전한 사고력과
단정한 용모로 한마음,
가족되어 부처님전에
정성껏 공양 올릴 수 있는
이런 인연되는
보살님을 찾습니다
▷경북 칠곡 동명, 40~50대
011에9045또9045

부전스님 구합니다

▷경남 마산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010-4187-67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포항
054)283-3343

노스님 시봉하며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불심깊은 50~60대
경주지역 사찰
011-534-3345

큰 가람 사찰 운영 동참자

(불심있는 보살에 한함)
- 위치 : 부산, 대구, 울산에서 한시간 거리
- 신도수 약 2천명 이상의 사찰로 운영중임
- 약간의 투자 가능한 분

010-7714-3757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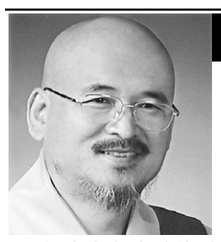
잠시 · 한 · 두달 · 100일 산사에서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031)674-7188
033)441-0664

연등보살 모금 아르바이트

- 부부, 학생, 외국인
- 광역시 거주
- 이력서, 사진, 7일교육

(12월 1일부터 3월 30일 12시까지)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 208번지 만불사
043)745-3010
조계종 만불교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풍수건축

주택지, 풍수감정
주택, 상가 풍수설계
賀堂 043)293-2400
cafe.naver.com/fungsoo

신중탱화 120×180 (조성 3년) / 대웅전 현판 (2년) / 주련 4개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드림

010-5153-0052 경북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공 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여래종

재단법인 취득에 의한 임명장, 등록증, 신분증 갱신 공고

본 종단이 비영리법인(종교)에서 법인재단인 법인 한국불교여래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등록 취득하여 각 사암의 임명장, 등록증, 신분증 갱신 사유가 발생하여 갱신공고하오니 종도께서는 아래의 날짜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일시 : 불기 2553년 10월 31일
▶ 갱신기간 : 불기 2553년 (양) 11월 1일부터
불기 2553년 (양) 12월 30일까지
▶ 서 류 : 사진2매, 주민등록증 사본,
구비서류 (총무원)

(양)11월 13일 창종법회에서 접수받습니다.

※불기 2554년 1월 1일부터는 구 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석 명 안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 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고(古)건축, 사찰 건축전문

전문적인 건축지식과 오랜 현장경험을 통한
완벽책임시공 보장,전통사찰 전문
일반사찰 전문, 부속 건축물 일체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전문
010-6405-2060
061)741-1624 / 031)581-2120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종교학 (불교문화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중심지
- 법당·요사 : 약 60평 (구한옥)
- 부지 : 100평
- 가액 : 14억

- 위치 : 경북
- 법당 : 60평 ● 요사 : 60평
- 부속건물 : 4동
- 납골당 : 분양중
- 부지 : 3800평
- 가액 : 28억

- 위치 : 강원(동해안)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70평
- 산밑
- 가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경관수려
- 가액 : 3억 9천만원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법당 : 35평
- 산밑
- 가액 : 4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사찰 터
- 총평수 : 3만평(100% 평지)
- 바다 조망권(남향) 최고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최고명당)
- 천연수 졸졸 (버스진입가)
- 가액: 평당 45만원

시내 아담한 법당
- 총평수 : 86평
- 2층 : 법당 26평
- 1층 : 요사, 방 4칸
- 주차장 40평, 지하철 인접
- 가액 : 3억 8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동부산대학옆
- 평수 : 42평, 1층 요사채, 방3개, 거실
- 2층 법당 17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1억 4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비품(시설비) 1,200만원

011-9395-941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내동
- 평수: 50평, 법당 18평, 방 3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9323-4478
010-3827-819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토 굴 안 내

- 위치 : 영천에서 경주방향 15분거리
  (경주IC 영천 IC15분 內)
- 대지 120평 작은 임법당
- 구옥(흙집)3칸, 연탄, 기름보일러 겸용
  새로 설치, 10년된 토굴
- 비구니 선객이 편히 짐 풀수 있고,건강을 살필 수 있고, 조용히 정진 할 수 있는 아늑한 토굴
- 교통편리(KTX10분거리, 내년 개통 신경주역)
- 가액: 5천만원

010-6717-17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 3층 25평, 법당 ● 가액: 2억 2천만원

- 4층 25평 요사채 ● 전세: 5천 5백만원
  아파트 밀집지역, 옥상 전체 사용가능
  (창고, 텃밭)

031)970-9008
011-9005-700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신시가지 2만세대 아파트단지 들어섬
- 3층 중 2층 ● 평수 : 총 60평 중
- 법당 25평, 방3, 큰방1 주방 大1, 거실,
  화장실, 에어컨 2대
  삼존불 모셔져 있고 탱화 있음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4천만원 중 600만원만 받겠습

010-6553-2828

천하절경 사찰적지

- 충북 청원군 미원면
- 7200평(현 펜션성업중)
- 옥하구경 중(9경)박대소
- 다음카페 "송죽헌"
  동영상 참고

010-6393-0794
010-8336-271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 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 외 화장실 3개
- 가액 : 5억

011-816-9104
011-815-910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전 120평
- 임법당 15평, 큰방 2칸 작은방1
-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2평
  집기 일체
- 비구니스님기도처 적합
- 가액: 8,500만원
- 꼭 필요 하신분 연락 주세요

011-340-5963
010-6667-5778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40평
- 2층 건물에 2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32)549-208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부 마을 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7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재래시장부근)
- 4층건물에 3층과 4층
- 3층은 법당, 상담실
- 4층은 요사채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즉시법회가능

051)638-1134

암자 터 임야 안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 특징 : 암자터 좋은 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9천 5백만원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 (전세가능)

010-5430-396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 동부지청 부근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 2천만원, 월 20만원

051)782-0110
010-3101-115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 사시사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사용은 토굴 별장
- 대지 : 198평, 건물 30평
- 개인하천부지 38평
  무료 드림. 합 236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3088-3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평수 :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500만원
  (절충가능), 시세 반값도 안됨

051)503-0908
010-2291-55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28,000평, 대지 4,000평
  건평 720평
- 대웅전, 산신각, 대문종각,
  요사채, 법당, 나한전, 식당 외
  일체 모든 시설 완벽
- 가액: 융자포함 20억

010-8281-878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신신,후불,신중,칠성, 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 ※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부지 : 17,000평
- 법당 신축허가 필
-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수려한 지역
- 법당(가건물), 요사, 화장실,
  전시시설. 유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918-03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위치 최상
- 건물 : 2층 중 2층
- 평수 : 47평
- 방2, 공양간 등 시설완벽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612-2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역 1분)

011-713-563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은천동
- 평수 : 3층에 3층
  50평(옥상사용)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싸게드림

010-3550-11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시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 최신시설, 최신내부 장엄
  운동장 몇 십대 주차가능

011-857-3775
031)755-3775

포교원 안내

- 위치: 마산역 시장 내
- 포교원 인수하실 분
- 방 2, 삼존불, 탱화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있음

011-9696-0949

지리산자락 고요한 암자

- 총 650평
- 대지 320평
- 건물 : 황토건물 4동
- 수행 정진 하실 분
- 가액: 1억 5천만원

055)882-0319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40만원
  (조정가능,전세가능)

010-9990-5234
신현대부동산

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흥천군 화촌면
  (흥천읍에서인제방향으로 10여분거리)
- 대지 110평,건평: 30평
- 임법당, 큰방1, 작은방 2, 큰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 창고2,
- 심야전기 보일러, 작은텃밭
- 조용하고 밝고 깨끗한 남향
- 가액: 8천5백만원 (사정상 급 양도)

033)434-2916
010-8605-2679

암자 같은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청정지역
- 마을과 국도 150m거리. 산밑
- 목조기와 20평, 방 3개
- 요사채 30평, 주방1, 방 2 ,실내
  화장실1, 샤워실1, 창고 10평, 산신각
- 총 340평, 심야 전기 보일러,
  스님 법사님 불자님 등 기도수행처로 적합
- 가액: 전세 3천만원

010-7670-06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 총평수 420평
  (대지 100평, 전 320평)
- 구조: 슬라브 30평,
  조립식법당 15평
  가액: 4억 7천만원

031)768-8568
011-739-0968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 평수 대지 888여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약사여래불 대세지보살, 칠성
- 소부리 100불, 완벽한 법당으로써
  즉시 법회가능
- 사찰내 주차가능 IC에서 2분거리
- 사찰 앞 경관이 좋으며 산 경치가
  수려하며, 등산로를 끼고 있다
- 가액: 2억

010-9418-59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010-6278-1488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역전 3분거리 도로 접
- 대지 400평 ● 건물 21평 포함
- 가액 : 평당 10만원
- 대지 470평 ● 가액 : 평당 5만원
- 복바위 앞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음

010-5048-9949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찰 및 전원 주택지 안내

- 사찰, 경남 김해시 삼계동 소재
- 부지151평, 인법당40평, 요사20평
- 산신각, 창고, 심야보일러시설등
- 가액 : 2억 5천(전세가능)

- 전원주택지, 경남 거제시 전망 좋은 바닷가
- 지방도로 옆(약860평)
- 약32평 복층 건물 있슴
- 가액 : 5억

010-6369-11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불, 지장보살2자반 동불,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산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多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0-5336-8875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3억 5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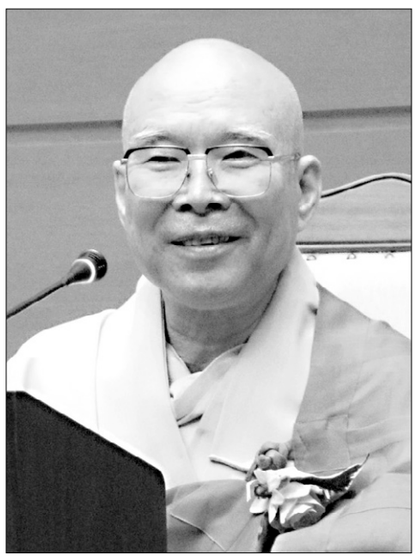
011-650-8481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법 실천하면 모든 문제 해소돼

강 사 :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일 시 : 2009년 11월 11일
주 제 :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최 : 명상문화연구원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어느새 인간성 상실로 전에 없던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다.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인간적인 삶을 계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적 전통명상 보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자 명상문화연구원(이사장 세민, 원장 현종)이 개원했다.

명상문화연구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설립기념 고불법회를 봉행한 후 '명상과 삶, 그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고우 스님 초청법문을 진행했다. 우리 불교의 순수한 가르침은 과연 그런 모습인가 알아보고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우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들어보자.


'명상의 효과와 가치' 에 대해 법문 하는 고우 스님.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 할수록 불교는 발전
개인 · 국가 · 사회에 도움 되는 종교로 돌아가야


고우 스님의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하는 불교명상 법문을 듣고있는 사부대중.

불교만이 연기법 설한 종교

한국의 노자라 할 만큼 세계종교분야에서 해박한 유용오 박사라는 분이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기독교, 알라신이 창조한 이슬람교, 중국의 도교에서도 '모든 종교는 하나에서 만물이 창조됐다' 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된 종교를 전변설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용오 씨는 "불교도 이름만 다르지 같은 종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른 종교와 구분이 됩니다.

불교는 연기설(緣起說)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변설(轉變說) 이지만, 불교만이 연기설 종교입니다. 전변설 종교는 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불교만이 전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전쟁한 역사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알면, 전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구상의 이데올로기 · 종교 · 종족 갈등 중 가장 심한 것이 종교 갈등입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끝내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종교전쟁입니다. 평화를 지향하고 자유, 사랑, 자비를 추구하는 종교가 오히려 반대되는 갈등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아적이고, 저급하고, 그런 기복종교를 하는 것은 비단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자비나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면서 저급한 기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상호공존의 존재 원리

명상을 통해서 제대로 종교역할을 해보자고 명상연구원을 만든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 적절하게 방향을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깨닫기 전에는 개인적 고민도 많았지만 깨닫고 난 후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사회 · 국가 · 개인의 고민들을 풀어줄 방법을 발견하고 나서도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승가공동체(승단)를 만들어 깨달음의 내용을 설법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의 원리' 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깨치고 보니 '내가 있다' 는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 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허구라는 것이죠. 불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회문제, 국가문제, 세계전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몸소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부처님 뜻이나 다른 종교창시자들이 의도했던 것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 종교가 지속되면 종교가 없는 것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개인, 국가, 사회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의 원리와 부처님이 깨달은 존재의 원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은 문제해결을 힘으로 하려합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싸우지 않습니다. 2008년 8월에도 평화적으로 범불교도대회를 치렀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외도들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부처님은 외도들에게 "네가 존재의 원리를 안다면, 나를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욕을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연민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아도 불교는 깊이깊이 익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 할수록 불교는 발전할 것입니다.

유용모 씨가 불교를 제대로 알았으면 개종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돈 · 명예의 노예 아닌 주인으로 사는 법

실제 불교는 매우 위대한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으로 보면 비교를 멈춘 그 자리에는 지혜가 생깁니다. 비교 안하고 잘 살수 있는 법. 첫째가 비교입니다. 진보, 보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목표를 물으면 '돈' 이 목표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 어쩔 수 없다고 말 할지는 모르지만, 돈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면 결국 자본주의는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 법 제대로 이해하면, 일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자연히 명예도 돈도 따라옵니다.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우리사회 지금 어른이 없다고 하는데 인격도 따라 옵니다.

세 번째는 자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욕망에 끄달려 노예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죠.

네 번째는 우리사회의 화두인 일방소통이 아니라 쌍방소통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종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모두가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강한 나라에서 나왔으니 파급력이 클 것이라 봅니다. 그런 세상 누가 만드나 고민하다 신문과 책을 통해서 보니 그분이 적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처님 말씀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또렷하게 연기된 현상 관해야

부처님은 '존재원리' 를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는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 즉, 보는 것은 부처님과 우리와 작용이 같습니다. 우리는 세가지 중 하나만 하고 있고 두 가지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 두 개를 발견하면 우리 의식이 그렇게 변해 우리 가족, 사회,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연기설' 입니다.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집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재료를 부합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그 재료들 역시 여러 물질이 조합된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고정불변 된 존재가 아니에요. 연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 고정불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일로 독립된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 원리를 2600년 전에 깨달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 억 만개의 원자 덩어리가 여러분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믿겠습니까? 이것은 현대물리학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인만의 물리학강의> 책에도 나와 있고 말입니다. 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 할 수록 불교는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일화된 존재로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 속에 또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 돼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변화하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체가 없어서 무아(無我)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열반적정(涅槃寂靜)' 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중국의 운문 스님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이 매일매일 좋은날을 산다고 했습니다.

전변설 종교는 명상이라고 하는데, 불교명상은 '삼매' 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성성적적(惺惺寂寂)' 해야 합니다. 연기설 종교는 불교 단 하나입니다. 삼매를 통해 자기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갖추면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할 수있습니다. 불교 명상은 다른종교와는 다릅니다. 불교의 명상은 성성적적이 돼야 합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불자정보 758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 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8천만원
절 사신분에게는 2천만원을 불사하겠습니다
011-540-33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언양 (인접) 부근
● 매우 발전적 사찰 운영 중심
● 가액 : 2억 정도(절충가)
017-559-890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면적 65평
● 방 4개, 다용도실, 임법당
● 삼존불, 냉난방, 완벽 설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실비 상의
타사찰 소임으로 급 양도
018-622-986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시내 중심지 위치
● 법당, 요사채 2동
● 대지 90여평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비구니 스님 포교 활동 적합함
010-3958-550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서면 부전시장부근
● 최고시설, 최고의 요지
● 3층건물에 3층
● 평수 : 2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약간
010-7769-7773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 명당터
● 약 1,000평, 토목공사 완
● 수도전기 완, 건축허가 완
● 컨테이너 1동
● 가액: 1억 5천만원(가액절충가능)
010-3697-22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 부곡온천 근처
● 임야 약 1,000여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등 종교용치 200여평
● 가액: 1억 5천만원(가액절충가능)
010-8675-4088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남 벌교읍 부용리702번지
● 집터 31평
● 방 3개, 수세식 화장실
● 가액: 1,800만원
010-3541-231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의왕시 내손동 평촌 롯데마트 앞
● 안양 평촌요지 교통편리
● 평수 45평, 5층 ●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031)426-05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소월읍읍내
● 평수 : 약 800평
● 법당(5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8평, 주차장 넓음
●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31)764-0180
010-2747-979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 가액: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암자(급)안내
● 위치: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종각
● 요사채, 화장실 1동
● 평수: 344평, 건물허가
● 실사용 1천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061)322-1961
011-491-5086

사찰 대출 안내

사찰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죽도2동 새마을금고**입니다. 사찰은 주로 공시 시가가 낮고 일반인의 눈으로 단청의 가치를 판단하기 힘들기에 사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마을금고는 오랜 경험과 사찰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지역사회개발과 회원복지에 목적을 두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라 부처님의 중생 구제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양도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높은 이자로 사채나 대출을 쓰시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의논해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 약 60만원 ◀
출장비, 소개수수료, 대출꺾기가 일체 없습니다.


죽도 2동 새마을금고 본점전경

· 대출지역 : 전국
· 대출형식 : 담보대출
· 대출금액 : 5천만 ~ 5억
· 대출금리 : 연 7.2%~8.2%
· 대출기간 : 5년(연장가능)

■ 담당직통
· 상무 : 이강욱 010-9842-4200
· 과장 : 김상민 016-9314-2522

죽도2동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⑱ 석굴암 문수보살

한국 자생차 음다 연원 삼국시대로 추정

우리나라에서 음다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삼국사기>에는 신라 흥덕왕 3년(828년)에 당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대렴이 차씨를 가지고 와서 지리산에 심어 성행하게 됐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선덕여왕대에도 차가 있었다는 대목을 보면 한국의 자생차와 음다의 연원은 그 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차의 재배와 음다가 함께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는 기록의 한계로 그 정황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불교의 동전 후, 한반도에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해 차문화가 번성하게 됐고 불전에 올리는 공양물(供養物)로서 차는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 시기 자장, 의상, 원효, 원광 등 위대한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 명산대찰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불교는 중흥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한다. 특히 불교의 오계에 영향을 받아 화랑의 지침이 된 세속오계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게 한 사상적 배태가 됐으니 이 시기 불교의 원대한 위력도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궤를 같이해 원효와 충담사, 기파랑과 월명 대사, 혜소, 진감 국사 등의 고승들이 차에 관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어 불교라는 정신문화가 차를 만나면서 수많은 유무형의 아름다운 유산을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수보살', 불국사 석굴암.

이후 통일신라시대 경덕왕의 재위기간(742~765) 동안에는 신라의 불교예술이 극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황룡사종 등 많은 국보급 문화재들이 모두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석굴암은 명실공이 최대의 걸작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미술을 대표한다. 주실에 배치된 장중하고 근엄한 모습의 본존불과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의 보살상, 저마다 개성 있는 표현의 나한상과 사천왕 등에 이용된 조각수법은 종교적 믿음과 우아한 솜씨가 조화를 이뤄야만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본존의 좌우 측면에 위치한 보살상 두 점은 이국적인 매력을 갖춘 독특한 모습과 아름다운 자태로 보는 이를 한눈에 매료시킨다.

그 중 오른손에 보발(寶鉢)을 들고 있는 보살상은 학자들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미륵하생(彌勒下生)사상과 화엄사상에 의해 미륵불과 문수보살에게 차가 공양됐던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한다면, 문수보살의 도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관련 자료가 더욱 발굴돼야 하겠으나 당시 문수보살께 차를 공양하는 일화가 <삼국유사>에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도 이 조각상을 찻잔을 들고 있는 문수보살로 보는데 있어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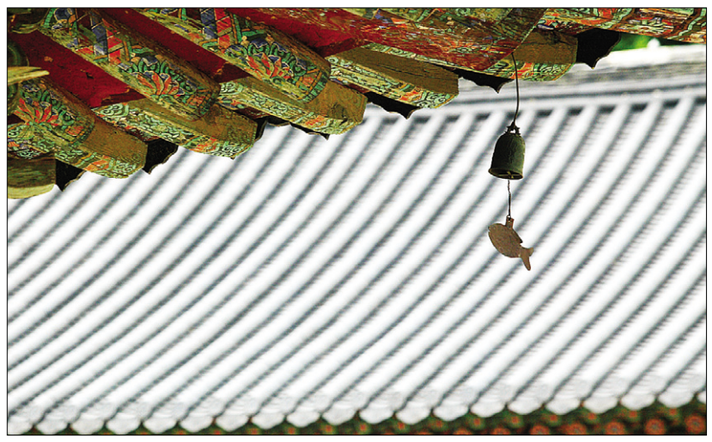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오른손에는 보발을 살포시 감싸고 수려한 자태로 서있다. 그윽한 눈빛으로 차색을 바라보며 향기를 음미하고 있는 듯 보살의 얼굴은 더없이 고요하다. 이는 전신을 휘감고 있는 구슬장식과 보관의 화려함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비칠 듯한 얇은 천의 속에서 드러날 듯 말듯한 암시적인 신체의 곡선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전달한다. 어깨와 손을 지나 대좌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한 선묘로 이뤄져 마치 바람에 날리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석굴암의 문수보살상은 인체의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사실성을 종교적으로 이상화시킴으로써 숭고함과 신비함의 극치를 드러내었다.

때는 경덕왕의 재위시기, 승려 충담사는 삼화령의 미륵세존께 차 공양을 올리고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왕을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를 바쳤다. 이를 마신 경덕왕은 "차는 특별한 맛이 있어서 입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가득히 피어났다(茶之氣味異常 中異香郁烈)"라 품평한 적이 있다. 이런 신령스러운 맛이 바로 우리나라 차 맛의 원형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했던 미감(味感)이 곧 예술가의 미감(美感)이 돼 석굴암의 문수보살상에 자취를 드러내게 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⑩ 풍경(風磬)



그날은 무비 스님을 뵙기 위해 부산 범어사를 찾았다. 보제루 처마에 걸린 풍경이 이정표처럼 염화실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풍경소리를 따라 걷다보니 풍경소리는 절집의 또 다른 향기란 생각이 들었다. 다가가야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의 향기처럼 풍경소리는 절집의 마당을 밟아야 들을 수 있는 향기였다.

염화실 마당에도 풍경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풍경소리 끝에서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몇 해 전에 큰 병을 이겨내고 인터넷에 '염화실'이란 카페를 열어 획기적인 전법의 장을 펴고 있었다. 귀한 법문을 듣고 염화실을 나섰다. 멀어지는 담장 너머에서 스님의 시선이 따라오고, 도량으로 불어온 바람은 향기가 다한 풍경을 다시 흔들고 지나갔다. 염화실 마당에도 풍경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것이다. 스님은 처음 머리를 깎았던 절집의 염화실 마당에서 풍경소리를 듣고 있었다.

詩가 있는 도량

■ 검은등뻐꾸기 세상 끝을 울리네

이젠 대팻밥 같은 구름 몇 장 남아있다.
바람은 능숙한 목수, 구름 허리 대패질하고
경쇠도 잠재운 노을이 대웅전을 금칠한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울부짖는 동박새야.
동백숲 으늑한 길 부도 밭에 접어들면
거북이, 물고기, 게가 서방정토 밀고 가네.

세월밥 천 년 먹으면 땅끝 바다도 귀 여는지.
홀딱 벗고 홀딱 벗고, 빡빡 깎고 빡빡 깎고,
무심한 검은등뻐꾸기 세상 끝을 울리네.

미황사 어스름은 눈이 시린 푸른빛이다.
올려 보나 내려 보나 눈물 묻은 푸른 이내
파도에 발목 적시는 가을은 다시 돌아오고.

–윤금초, <유심> 11 · 12월호

옛 판화의 세계

이고가 법을 배우다
이고참문(李翺參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동자를 대동하고 경전을 읽고 있는 유엄 스님에게 당주자사인 이고가 찾아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장면이 판각돼 있다. 약산유엄(藥山惟儼, 751~834)은 산서성 사람으로 성은 한(韓)씨이며, 17세에 광동성 서산(西山)의 혜조(慧照)에게 출가했으나 후에 석두희천(石頭希遷) 선사를 만나서 비밀히 심법을 증득한 뒤 약산(藥山)에 주석했다. 이고(李翺)는 중국 당나라의 문인(772~841)으로 자는 습지(習之) 당송 십육가(唐宋十六家)의 한 사람으로, 스승 한유가 불교를 배척한 것과는 달리, 불교 사상을 채택해 심성(心性)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였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주자사 이고가 유엄 선사의 덕행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하루는 그를 찾아갔다. 마침 선사는 나무 아래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다. 비록 자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 줄은 알았으나 못 본 체 그냥 경전만 읽고 있었다. 자사는 선사의 교만한 태도에 화가 나서 성난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을 듣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휘젓고 떠나려 했다. 그 때 유엄 선사가 말했다. '태수께서는 어찌해 귀만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깁니까?' 그러자 태수가 공손히 몸을 돌려 물었다. '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유엄 선사가 손으로 위를 가리키고 또 아래를 가리켰다. 그러고 나서, '태수께서는 알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태수가 몰라서 고개를 저었다. 유엄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는 것일세'라고 했다. 그 때 자사 이고는 크게 깨닫고 오도송을 읊었다. '몸 형상 연성해 학의 형상과 짝 이룰 수 있어 일천 그루 소나무 아래에는 두 함의 경이 있도다.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다른 말씀 없었고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다 하였네.'" 이 내용을 무비 스님은 '한 번은 구름을 가리키고 한 번은 병을 가리킨 그 간결하고 소박함과 탈속함, 우주의 무게와 같은 정적은 차라리 사람의 숨을 멎게 한다.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도다. 저절로 그러한 것이 도다. 공연히 흔들어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고 도를 멀게 하지 말라. 참으로 선기(禪氣)의 고고함이 물씬 묻어난다'라고 풀어쓰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도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본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이고참문(李翺參問)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여러분이 없다면 상대가 어딨다고 상대를 원망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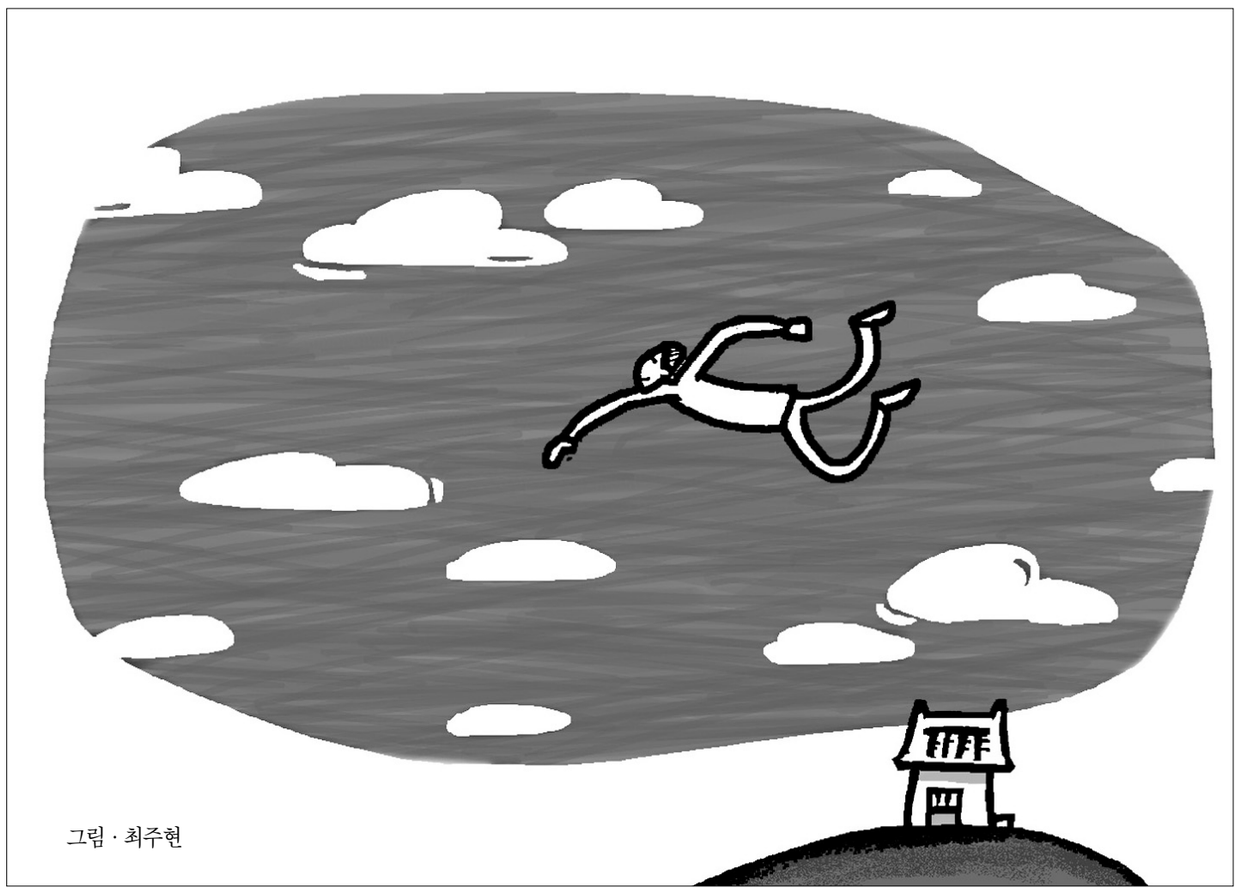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같이 죄 많은 중생이 뭐…

문 스님께서 주인공에 맡기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시기에 그 말씀 받들어 잘하고 가다가도 어떤 일이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래, 나 같이 죄 많은 중생이 뭐….' 하는 생각이 들면서 힘이 쫙 빠지곤 합니다. 이런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 혼자서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지. 내가 무슨 팔자야.' 이러한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꼭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붙을 자리가 없다. 시공이 초월돼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바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거니까 거기 붙을 자리가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사세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면, 아픈 것도 주인공에 맡기면 그 주인공 속에서 약사여래가 될 것이고, 가난한 걸 주인공에 맡긴다면 바로 관세음이 될 것이고, 임신이 안돼서, 또는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산신이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용신이 돼 주고, 지장이 돼 주고 칠성이 돼 주고 문수가 돼 주고 보현이 돼 주고 수호신이 돼 주고 법신이 돼 주고,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군데 주인공 안에는 모든 칠보가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로 털구멍을 통해서 이 부처님 자체가 그대로 나고 든다 이겁니다. 바로 이 모든 수십억 마리의 생명들이 보살로 화한다 이 소리죠. 바깥에서 세균이나 영계나 유전성이나 병균이 들어오는 것도 다 바로 용광로에 넣으면 없어지듯이 바로 물이 아닌 까닭에 그러한 것입니다. 안에서 그 악업 선업이 일어나는 것도, 역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바로 이 물에다 물방울을 수없이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사 갈 때는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날짜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날 가면 그대로 법이다 이 소립니다. 또 누가 삼재가 들었다 이런 것도, 삼재도 그냥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거기 무슨 삼재가 붙습니까? 그러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찰나 생활이다 할 때는 그 삼재니 팔자니 운명이니 뭐, 어느 달엔 좋고 어느 달엔 언짢고, 꿈을 꾸니까 또 언짢겠다, 좋다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 의식은 체가 없어서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한꺼번에 모두 그 교차로에서 돌아서 고만 모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간지옥도 무너질 것이고 화탕지옥도 무너질 것이고, 오간지옥 하면 여러 가지 지옥이 한데 합친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옥이 무너지는 까닭에 인과가 끊어진다 이 소립니다. 녹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잔뜩 얼었던 얼음이 봄이 오면 녹아서 흘러내리듯이, 스스로서 흘러내리면 그냥 그 산하대지에 풀들이 무성하고 나무들이 이파리가 피고 뿌리가 싱싱하고,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일어나서 봄을 맞이하듯, 우리도 역시 마음이 그렇게 모두가 녹아지면 과거의 업보라든가 팔자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끄달리지 마시고 모두 주인공에 놔 버리세요. 그런 데서 모두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의 결혼이 마땅치 않아

문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바쁘게 맞벌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 녀석이 결혼을 한다는데 영 마땅치가 않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돌봐주지도 못해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제 생각엔 자식의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스님, 이럴 때 제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는지요?

답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낮고 높고가 없습니다. 모든 아집과 아상, 나라는 조건을 바로 빼 버려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엄마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며느리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아내가 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여러분입니다. 찰나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며 나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내 거, 남의 탓, 남의 원망 이걸로써 모든 게 빚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상대가 어디 있다고 상대를 원망을 합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아들이 잘못한다, 딸이 잘못한다, 남편이 잘못한다, 아내가 잘못한다 이래서 원망하고 성을 내고 그냥 싸움을 하지 말고 언제나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안으로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 한마음에다가 되놓으면서 바로 부드럽게 "얘, 어디 가서 뭐나 좀 먹었니?" 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외국에 나가 사시는 분들 보면 남녀가 전부 그냥 쉴 사이가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시더군요.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보기가 드문 그런 가정이 많습디다. 서로 일 다니시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와 "요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요렇게 음식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놓고 참, 너를 사랑한다. 이거 들어와서 먹어라.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되겠기에 너를 보필을 잘 못해주는구나." 하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뽀뽀라도 해서 냉장고 바깥에 붙여 놓으면 이탈을 하려야 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금자리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사랑스러울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그 애정, 그걸로 인해서 모든 자식들이나 또는 부부지간이나 이탈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애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저 자손들이 "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 영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부모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말리는 것도 어지간해야죠. 다리를 뻗을 자리를 보고 뻗어야지 덮어놓고 다릴 뻗어서 뻗어집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물에 빠져 죽어 버리고 말았죠. 외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죽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어른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애들이 생각하는 지금 시대, 이 시대가 전부 생각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애들이 생각하는 그 점이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침착하고 자기를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고요. 뭐 마당에 앉아서 뭐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만들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지, 아니 행복을 누가 갖다 줍니까?

맷돌도 심봉이 없이 맷돌을 굴려 보십시오. 그 맷돌이 이탈이 되지 않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바로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 기둥이 맡입니다, 이거는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것입니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프로펠러는 그 능력을 믿고 그냥 돌아갑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 육신은 그 프로펠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믿으라는데, 여러분의 주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성이라고도 하고 바로 '참나' 라고도 합니다. 그

☞26면으로 계속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제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본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득도증서 사본 1통 (계단장 또는 사승)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심적사
심적 시민 선원 개원

◆ 하안거 · 동안거 결재와
산철 결재 봉행 · 운영
- 개원일 : 2009년 12월 1일
◆ 매주 주말 철야정진 참선 법회운영

마음을 밝혀 참나인 불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심적 시민선원을 개원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매월 초하루 3일 신중기도
매월 음. 9~11일 500 나한기도
매월 음. 18일 지장재일 봉행

전화 : 055)973-1769,
011-9388-4255, 011-562-8640
팩스 : 055)973-1206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127번지
진주에서 35분, 산청IC에서 8분거리

대한불교 조계종 웅석산 천년나한도량 심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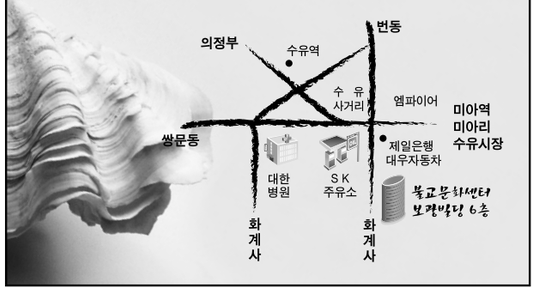
정토교학의 선지식 군맹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관무량수경』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 기 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수 강 료 : 10만원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장 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 전 화 : 02)983-7484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buddhanews.com

내면의 주인공을 믿고 절대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세요

☞25면에서 계속

런데 그 주처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을 구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기에 '아, 당신 영혼은 당신한테 있지 딴 데 있느냐.' 이랬죠. 당신부터 알아야 딴 데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당신이 바로 전화통이라면 당신부터 전화를, 당신의 이 몸뚱이의 집에 전화를 놔야 딴 데도 전화를 할 수 있고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여기도 전화를 놓지 않고 어떻게 남의 집에 전화를 할 수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제일 첫째,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 됨으로서 바로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진리를, 끝간 데 없는 진리를 파악하게 되고 물리가 터지게 됩니다. 내가 우선적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처를 꼭 믿으셔서 가정의 어떤 문제도 그 자리에 맡겨 놓고 화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것인지요

문 인터넷으로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주인공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여쭙니다. 주인공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것인가요?

답 여러분은 생활 속의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만 되는지, 어떠한 것이 불법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활이 불법이냐, 그리고 진리며 길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떠나서 어느 신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부터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참나가 있다. 참나는 나를 수억겁 광년 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끌고 갈 거다.' 그런 거를 진실히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바깥으로 끄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주인공이라 하면 개별적인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주인공이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와 마음이 직결돼 있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이요,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라.' 하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바로 그 '한마음' 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움죽거리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몸뚱이 속의 수십억 마리가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움죽거려 주고 어떤 것은 안 움죽거려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것이 움죽거릴 때 내가 움직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그 수십억 마리의 대표인입니다. 한마음, 한생각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회장격이나 사장격이죠. 이 오장육부에, 또는 세포에 어떠한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 공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공장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지배를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럼 그 공장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혹성입니다.

그러면 어떡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자체가 개별적인 내가 아니냐? 내 몸속으로도 수십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서 짓는 그 참나가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거든요. 바깥의 외부의 일도 바로 나 자체 이 개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밖으로도 개별적인 나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생명들과 나 생명이 둘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사는 데 '나야. 내 거야.'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몸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전해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말도 하게 하고 똑똑하게 다니게도 해 주는데 아니, 내가 혼자 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들어 있는 그 생명체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모두가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서 서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 내부나 외부나 같이 돌아가는 거, 공생 공용 공체 공식 하고 이 우주 전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인 나 하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총합해서 '주인공' 이라 한다면 내 근본에다가 맡겨 놔야죠. '야! 내가 억겁 천년 서부터 이끌어 온 것도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나를 형성시킨 것도 내 주인공이요, 바로 지금도 끌고 가는 게 바로 내 주인공이요,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 아픈 것도 내 주인공밖에는 병을 낫게 해 줄 수 없다. 내가 가난한 것을 이끌어 주는 것도 바로 내 주인공밖에 없다. 내가 일이 막혀서 안되는 것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진짜 당황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다가 자꾸 끄달리지 않고 옆에서 죽는대도 눈 하나 깜작 거리지 않고 여기다 맡길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저절로 바로 승천이 돼요. 각자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도 없고 생활도 없고 부딪칠 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며, 생활이 있는 것이고 바로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는다면서 너무 멀리 찾아요. 부처님이 가죽 속에, 모두 이 원 안에 전체가 들어 있다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풀포기 하나 빼놓지 않고 같이 다 들어서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이나 이외에 따로 있는 줄 알고 '나 좀 잘되게 해 주시오. 우리 아들 좀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칠성한테 가서 빌어야지, 산신한테 가서 빌어야지,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그러다가 보니까 용왕까지 가서 무슨 뭐 거북이나 미꾸라지나 이런 거 이름 써서 갖다가 넣고선 그것도 또 잘해 달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귀신 아닌 귀신 짓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자기를 자기가 믿고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 나가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그 의식이,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요다음에 또 나와도 그 습성 그대로 가질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털옷을 입을 수도 있고 뱀 허물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다면 그 습을 떼지 못해서 또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허물을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인간도 얼마나 차원이 천차만별로 많습니까?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인은 상인대로, 또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화가는 화가대로 또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아주 자연히 누가 그거를 가리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장단 맞추고 끼리끼리 그렇게 모두가 정말 그 춤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모든 문제,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또는 미술적으로나, 어떤 천문학적으로나 천체물리학적으로나 이러한 문제 등등이 여러분 앞에 기술이 주어진 대로 과목이 주어진 대로, 그러니까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규모 있게 이 주인공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몸뚱이 이것은 참자기의 시봉자밖엔 안 돼요. 즉 말하자면 시자다, 또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마음이 동하질 않으면 이 자기 마음 주인공이 고집이 세어 가지고요,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살아 보셨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거기에 틀리다고 할 때는 전혀 아주 그냥 몸이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누구의 심부름꾼이겠습니까? 자기의 자기가 심부름꾼이죠.

내 참나인 주인공이 다 하는 것이고 그 주인 거지, 나는 관리인이요 심부름꾼이다.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러한 바쁜 세월에서 그대로 나는 심부름을 부지런히 하고 내 주인공의 뜻에 의해서 나는 부지런히 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걸 막론해 놓고 해결 못하는 것도 없고, 또 못한다 할지라도 안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건강염려증이 심한 편입니다

문 안녕하세요? 저는 전생에 몸이 아파서 많이 고생을 했었는지 건강 염려증이 심한 편입니다. 무슨 큰 병은 없는데도 누가 무슨 병에 대해 얘기만 하면 제가 꼭 그 병에 걸린 것 같아 걱정돼서 속을 끓이곤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절에 다니면서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도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나의 부정적인 의식들을 벗어나서 좀 호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답 우리 몸속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습니까? 병이 나도 바로 '아, 이 병도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깐 한마음 속에서 낫게 할 수밖에 없지.' 할 때에 비로소 그 병은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병이 나으면 뭐가 되느냐. 자기가 약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가난을 면했다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관세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체 만법을 다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바로 현실의 모든 것을 보는 거고 듣는 거고 행하는 거고, 즐거운 거고 자유스러운 거지 누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법당에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거기 있으니깐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부처님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 없다면 부처님은 없어요. 자기가 변소에 있기 때문에 부처도 변소에 있고 자기가 안방에 있으니깐 바로 부처도 거기 있고 하나님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딴 데 가서 찾습니까? 산기도 간다고 가지를 않나. 무슨 담요니 뭐니 해서 잔뜩 해 가지곤, 먹을 것도 미숫가루 해 가지곤, 그래도 살 양으로요. 아, 죽어야 죽은 세상을 보지 살고서야 어떻게 죽은 세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러 간대요. 상대가 어디 있어서 기도를 합니까?

자기는 오븐과 같아서, 바로 자기는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하죠. 그러면 오븐이라면 그 집 속에서 별의별 만법을 다 끓여 내고 데워 먹고 거기서 다 나오고 들고 하는 거죠. 딴 데서 합니까? 만약에 우리 몸뚱이가 오븐이라면 거긴 불도 필요하고 뭐 재료도 필요하고 모두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서 끓여 먹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오븐에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데워서 먹고 끓여 먹고, 사다가 거기서 해 먹듯이 여러분 이 육신 속에서 다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요.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이 목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 때에 이유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똥 누러 갈 때에 이유가 붙던가요? 이유가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자기를 자기가 믿고 자기를 자기가 다스려 나가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나는 이게 아리송해. 이게 아리송해. 그거 뭐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섯 살 먹은 아이도 그 이론은 다 알아요.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90살을 먹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전부 병 앓는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또 그 뭔가, 난 이름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위암 식도암 목암 할 거 없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재료를 가져왔으니 그 재료를 가지고 실험해 봐라 이럽니다. 나는요, 내가 의사가 돼서 고쳐 주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을 고치면 바로 그건 저절로 고치는 거니까 그 실험을 해 봐라 이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험해서 자기가 한번 실험해서 그거를 탁 포착을 했으면 체험을 하고는 다른 게 돌아오면 또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실험한다고 그래도 편안하죠. 일하면서 말입니다. 앉으나 서나 그냥 참선입니다, 실험이고. 그대로 그냥 연구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생활이 없고 부처가 어디 있으며 생활이 없고 여러분이 어디 있으며 부처님이 무슨 필요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도 자기의 근본에 맡겨 놓고 모든 것 주인공이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편안하실 겁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 세상보기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조계종 환경위원

지금이라도 4대강 계획 중단하라

결국 MB 정부가 죽음의 삽질을 시작했다. 대운하사업이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딪치자 '4대강 살리기'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사탕발림하고 반생명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론수렴'이 아니라 '여론 호도'를 통해 비판의 촛점을 돌리는 잔머리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서울의 한강처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한강은 시멘트 개발로 인해 죽음의 강이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데, 자연의 4대강을 도시의 강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이다. 지난 20년 동안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산간 국지를 제외하면 홍수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보 건설과 준설로 현재 4배가 넘는 저수량이 한꺼번에 하류로 집중되면 지천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홍수 위험이 더 높아진다.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수량을 확보하는 일보다 수자원 관리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을 낭비하고, 물 관리에 미숙할 뿐이다. 4대강 파헤친다고 강우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토목공사에 의지한 물부족 현상 타개는 궁여지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은 무모하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세우면 물흐름이 정체되어 수중의 인과 질소 농도가 높아져서 수질이 떨어진다.

4대강을 뱃길로 만들려면 부득이 강줄기를 직강화 또는 고정화하는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강변에 바위, 모래섬, 둔치, 여울, 호소, 늪과 같은 자연지형이 사라진다. 유람선 통행이 가능한 6미터 수심에서는 물고기와 수서곤충들의 산란처인 수초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철새들의 낙원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강변 초지와 습지가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서 개체수의 감소는 물론 오히려 종의 다양성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은 생태의 기본상식이다.

이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5개월 만에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정부 내 소금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는 이 반역사(反歷史)적 역사(役事)에 면죄부를 내주는데 오히려 앞장섰다.

4대강 사업 예산이 발표 때마다 늘어나 22조를 훨씬 넘어섰다. 각 부처의 연계사업비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달할 것이다. 여당 안에서조차 삭감론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시비와 의혹은 예산 심의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너무 소박한 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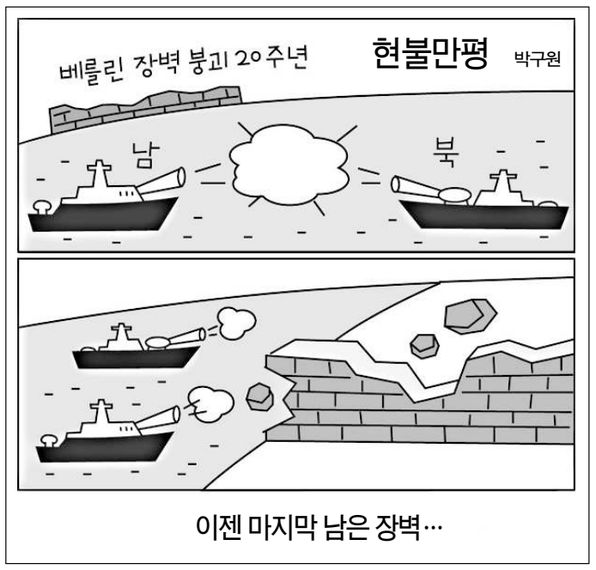
사업에 참여하는 재벌들은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이윤을 지역에 내놓겠는가. 고용창출 효과 역시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인 현상, 단순노동 창출에 그칠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대운하 계획 때도 그랬지만, 4대강 개발로 사찰 등 문화유산 접근이 용이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교의 발전이 아니라 사찰의 관광화일 뿐이다.

이로 인한 수행환경 파괴는 한국불교 1천년 최대의 법란이 될 것이며, 한국불교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게 될지 모른다.

늦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삽질을 멈추어라. 그것이 국토와 백성을 위하는 길이요, 또한 정부 스스로를 위한 일이다. 정부의 용기 있는 선택이 훗날 정부의 길이 남을 치적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FAX (02)737-0696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1월의 테마-시간

진정한 영원은 찰나에 있다

시간은 존재가 아니다. 그저 존재의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을 소유할 수도 없고 다가오는 시간을 잘라낼 수도 없다. 다만 그렇게 시간은 간주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시간은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정을 하려면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로울 줄 알아야 하고 긍정을 하려면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네 현실은 어디 그런가. 그저 부정하면 느낄 수가 없고 긍정하면 그것에 이끌려 갈 뿐이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자세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 자신이 저 시간을 바라볼 뿐이다. 아니 그대로 두고 느낄 뿐이다. 결국 나와 시간에 대하여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만 나와 시간은 같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단지 상대적이고 가설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존재성을 체험하려면 영원을 긍정하고 터득해야 한다. 영원이란 나와 시간이 동일한 점에 공존하는 것이다. 곧 찰나일 경우에만 영원할 수가 있다.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영생불사(永生不死)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불교 이전의 바라문교에서도 그랬고 중국의 신비술에서도 그랬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후 하늘에 태어나 거기에서 불사의 생활을 한다고 간주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신선술의 방식으로 불로불사의 묘약을 발명하려고 고심하였다. 불교는 이와 같은 불사 및 생천(生天)의 사상을 대기방편설(對機方便說)로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에 비판을 가하면서 그것을 초월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생에 대하여 집착이 나타나고 집착이 있는 곳에는 미혹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미혹이 있는 곳에서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영생불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다.

영생불사의 사고방식에서는 사를 버리고 생을 취하려고 한다.

불교는 이와 같은 분별적인 입장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생과 사의 대립을 초월할 것을 설한다. 그것이 곧 무생무사(無生無死)라든가 불생불멸(不生不滅)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하여 생사불이(生死不二)의 입장에서만 참으로 영원과 절대의 생이 체험된다는 입장이다. 그와 같은 체험에 대하여 선에서는 영원이 곧 현재[久遠卽今日]라고 말한다. 소위 '영원한 현재'로서 결국 지금 이 찰나에서 영원을 보는 것이다. 아니 찰나에서만 영원이 체험된다. 곧 진정한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찰나에 있다.

찰나의 현재야말로 영원이 체험되는 장이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는 사후가 없다. 그저 '현재의 영원'을 느낄 뿐이다. 이것은 피차의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한다. 그것이 곧 사바즉정토(娑婆卽淨土)의 체험이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절대긍정이며 인생에 대한 크나큰 달관이다. 생이 다하고 사가 오는 것이 아니다. 생이 그대로 불생이고 사는 그대로 불사이므로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다. 이것을 불이생사라 하였는데 그것이 곧 선의 체험이기도 하다.

김호귀 연구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社說

명상문화연구원에 거는 기대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자살, 우울증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때, 불안한 마음을 비우고 쉬게 하는 명상은 소화불량, 가슴 답답증,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좋은 약방문이 되고 있다.

매순간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불교명상문화를 연구 · 보급하기 위한 사단법인 명상문화연구원이 발족됐다. 연구원은 앞으로 연구활동을 비롯해 서적 발간과 수행용품 개발, 명상실천조직 결성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간화선을 비롯한 어려운 수행법에 막혀 명상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원은 위빠사나를 비롯해 염불, 절, 주력, 간경, 호흡법, 요가 등 다양한 수행법 전문가들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수행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수행법을 대중에게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서구에서 먼저 불기 시작한 명상 열풍은 상업성을 가미한 이른바 '제3 수행법' 붐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간접 포교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연구원이 '명상'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간화선을 비롯한 정통 불교수행을 알리겠다는 취지여서, 종단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일반인들이 불교명상을 통해 언제나 가슴속에 산사의 풍경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명상문화연구원을 비롯한 수행전문가들의 보다 큰 원력과 보살행을 기대한다.

'친일인명사전'과 불교계의 역사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가운데 불교계 인사 54명이 포함됐다. 편찬위원회는 친일불교 단체 주요 임원, 기고나 강연을 통해 부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자 등을 중심으로 친일 인사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친일인사 54인 중에는 근현대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종익, 강대련, 권상로, 이회광 스님 등의 명단이 보이지만, 불교계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조선불교조계종을 설립한 이종욱 스님의 경우, 자신의 독립운동을 은폐하려는 위장 전술이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불교계의 빈약한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리 및 사상만 강조하고 근현대불교사를 황무지로 방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늦었지만, 호국불교란 말이 부끄럽지 않게 불교계의 친일과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근현대불교에 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참회할 것은 참회하고, 잘못된 역사 기술은 정정을 요구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가 필요하다.

3.1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친일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족불교의 이미지에 걸맞게 친일파재산환수나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활동과 같이 민족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특별기획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5 / F. 02)737-0696